

덕민 스님 (불국사 승가대학장)
길거리 푸른버들
찡그린 눈썹 물들이네
8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2월 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982호 2014년 3월 5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사가라위경〉
우리의 목숨은 무상하고
우리네 인생은 잠깐이다.
부지런히 닦아 불멸의 곳으로 가라.

생명존중 없는 살처분, 법적 규제 필요

조계종 교육 아사리 스님들 'AI와 살처분' 주제 포럼

예방을 이유로 진행되는 대량 살처분과 방역을 기준한 법령이 국민의식에 한참 미치지 못하며,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교 역시 생명윤리 관련 기구를 구성해 이 같은 사안에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2월 28일 총무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 '조류독감(이하 AI)과 살처분'을 주제로 교육 아사리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교육 아사리 원영 스님(사진, 계율 · 불교윤리분야)은 현재 정부의 방역활동의 문제점과 외국 비교, 대안에 대해 분석했다.

원영 스님은 "현재 한국의 가축 전염병의 방역 실상과 제도는 부실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 2003년부터 올해까지 10년동안 2~3년 주기로 AI와 구제역이 발생했다. 그때마다 정부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3km 내 가금류나 소, 돼지 등을 살처분했다. 올해에도 2월 25일 현재 39일간 565만3000마리가 인간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문제는 살처분 과정이다. 원영 스님은 "생명존중의 태도가 일체 배제된 원칙 없고 불합리한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살처분 대상이나 지역 범위를 정하는 것도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경우 AI가 발생할 경우 해당농가의 가금류만 살처분하고 나머지 3km 지역내 가금류에 대한 예찰과 방역을 강화하고 이동제한 이동금지를 할 것을 권고한다. 유럽연합도 오염지역 500m 내에서의 선택적 살처분을 통해 생명의 죽음을 최소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가축 전염병과 방역, 살처분 관련 법령들이 방대하다. 한국은 6개 관련 법령이 총 96페이지(A4 기준)인 반면 일본은 8개 관계법령에 총 277페이지에 달한다. 내용 역시 매우 세밀하고 까다롭게 기준돼 있다.

이에 대해 스님은 "한국은 AI의 발병 환경 등을 고려 않고 주변

韓 법적 기준없이 생매장
日 의사처리 후 처분해
법령 분량도 확연한 차이
EU도 해당 농가만 처분

"자문 역할 살처분협의회
심의 · 의결기구로 격상해야"
불교계 생명위원회 구성 및
승 · 재가 생명윤리교육 필요

3km의 건강한 가축들까지 모두 살처분하고 있으며, 그 결정도 행정기관장의 결정에 의존한다"면서 "심지어 공익을 위해 축산주가 재산 상의 손실을 보지만 보상에 대한 규정도 없거니와 현실적으로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원영 스님은 정책적 대안으로 예방, 방역 등에 관한 정책자문기구인 '가축방역협의회'를 심의 · 의결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스님은 "예방, 방역, 보상등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개정해 현행 정책자문기구인 '가축방역협의회'를 살처분 시행여부 및 지역의 범위 등에 대해 심의, 결정하는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위원회 구성에는 가축 방역 전문가뿐만 아니라 생명윤리학자, 종교인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병원성AI 확진이 없는 한 살처분 대상 적용하지 않을 것과 공장식 밀집사육 개선, 생매장 등 살처분 방식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등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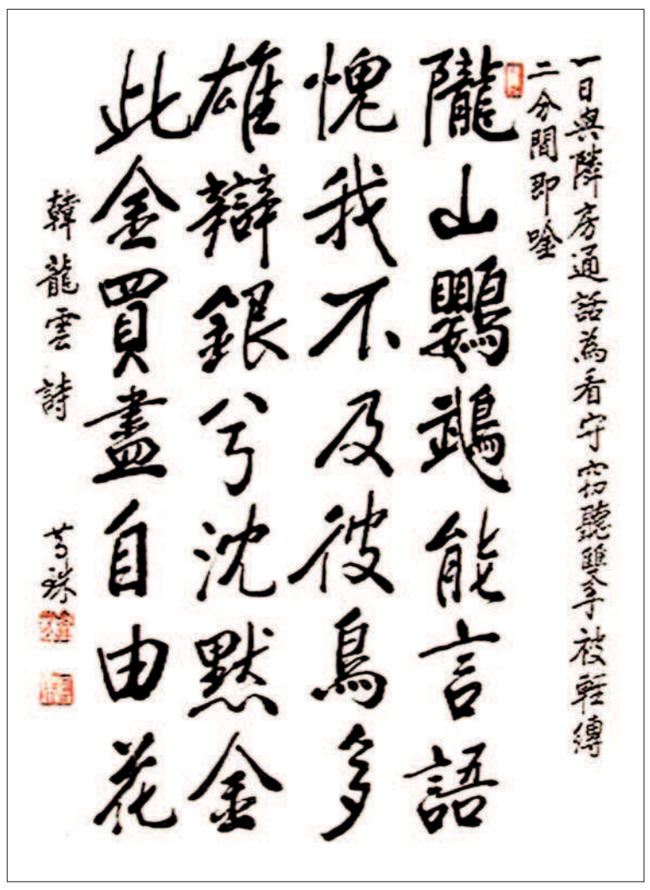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살처분 등에 대한 불교적 대안과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원영 스님은 총무원 산하기구로 '불교생명위원회'를 구성해 생명윤리와 관련된 제반문제를 연구 분석하고 사회적 대응해 나갈 것과 생명윤리에 대한 승가와 신도교육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교육 아사리 벽공스님(계율 분야)은 육식 자제 캠페인을 펼칠 것을 방안으로 내놨다. 스님은 "동물보호협회 등과 연계해 종단 차원으로 살처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면서 "신도 교육을 통해 현재 우리 밥상에 오르는 고기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다 죽는지 실상을 알게해 육식을 자제토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총무원은 교육 아사리 포럼의 결과를 제안서로 작성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련 제단체에 제출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다시 읽는 만해 스님 옥중詩 올해도 어김없이 3.1절이 돌아왔다. 민족대표 33인에 참여한 만해 스님은 옥고를 치뤘고 옥중에서 몇 편의 한시를 남겼다. 위 유묵은 '농산의 앵무새'라는 제하의 만해 스님의 한시를 석주 스님이 쓴 것이다. 이 시는 일제 치하에 침묵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의 현실을 개탄하고 '침묵이 금'이라면 침묵으로 자유를 사고 싶다는 자조가 담겨 있다. 남한산성 만해 기념관은 오는 3월 30일까지 '한용운의 옥중 한시'를 주제로 기획전을 연다. 〈관련 기사 20면〉 글=신중일 기자

3.1절 맞아 독립운동가 추모

용성 · 만해 스님 추모법회 · 사업 잇달아

제95주년 3 · 1절을 불교계 항일 운동가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들이 진행됐다.

(사)독립운동가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 장수 죽림정사, 정토회는 3월 1일 죽림정사에서 3.1절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올해는 용성 스님 탄신 150주년을 맞는 해로서 5월 29일 학술심포지엄도 계획돼 있으며, 탄신일인 6월 5일에는 죽림정사에서 기념식을 봉행한다.

대한불교청년회는 3월 1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2000여 명이 참가하는 제35회 전국만해백일장을 개최했으며, 만해 스님의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 만해포럼을 결성해 매해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안성 도피안사는 1일 대웅전에서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를 초청해 '3 · 1독립만세운동과 불교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등 3 · 1절 기념법회를 봉행하며, 의정부 광동고등학교는 교내 법당에서 용성스님과 만해, 운허, 태허스님을 추모하는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한양대 불교학생회 선지식 동문회는 3월1일 망우리공원을 찾아 만해스님의 묘역을 참배한다. 선지식 동문회는 42년째 3 · 1절에 만해스님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월28일 기미독립선언문 낭독과 특별강연, 태극기 만들기 등으로 진행된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신중일 기자

정부·종교계 '과세' 놓고 장고 중

26일 간담회… 기재부 종교인 항목 추가 밝혀

2월 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된 종교인 과세를 놓고 정부와 종교계가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국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나성린)는 2월 26일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종교인 간담회'를 열고 과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정부가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존 방침을 대폭 수정한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소득의 사례금 항목에 포함하려 했던 기존 방침을 바꿔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정의도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에서 '개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품'으로 변경했다. 과세 범위도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조계종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27일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각 종교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과세 방침을 대폭 수정하기로 결정했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나누고 함께 하면 행복해집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표어 발표… 점등식 등 일정 확정



불기 2558년 연등회 포스터.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 공식 봉축 표어와 연등회 일정이 확정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 봉축위)은 "오는 5월 6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 표어로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를 선정했다"고 2월 25일 밝혔다.

선정 이유로 봉축위는 "동체대비의 사회적 실천과 자비나눔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노력하자"며 "갈수록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 소외된 이웃들이 많아지는 이때 '이웃과 사회를 향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봉축위는 2014 연등회 일정도 공개했다.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기 위한 연등회는 4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 점등식으로 화려한 시작을 알린다. 어울림마당은 오는 4월 26일 동국대 운동장에서 열리며, 수만 연등이 종로 일대를 수놓는 연등행렬은 26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이어 종각사거리에서는 제등행렬을 마무리하는 회향한마당이 열린다.

4월 27일 정오부터 조계사 앞길 우정국로에서 전통문화마당이 열리며, 오후 7시부터는 흥겨운 노래속에서 연등놀이가 진행된다. 전통등 전시회는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조계사와 봉은사 일대에서 만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982호 INDEX

연중기획 5
탐진치 줄이기- 행복으로 가는 길



종합 2·3
삼선승가대, 불학대학원으로 전환
전국 출가열반주간 정진 '다채'

테마가 있는 사찰기행 12
마애불이 있는 사찰 - 삼천사

디자인 등록원

명품 청동 촛대세트

현 불 샵
단독입점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품 명		규 격 (가로/지름)	판매가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750,000원
		(中) 41㎝×21㎝	700,000원
		(小) 35㎝×21㎝	650,000원
	거북이	(中) 41㎝×21㎝	550,000원
		(小) 35㎝×21㎝	500,000원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1,040,000원
		(中) Ⓐ 21.5㎝×29㎝	760,000원
		(中) Ⓑ 18.5㎝×23㎝	560,000원
		(小) 15.5㎝×18㎝	380,000원
다기	다기	(大) 26㎝×20㎝	370,000원
		(中) Ⓐ 22㎝×14㎝	260,000원
		(中) Ⓑ 20㎝×13㎝	240,000원
		(小) 17㎝×12㎝	220,000원
향통	원형	(大) 15.5㎝×7.5㎝	100,000원
		(小) 11.7㎝×5㎝	80,000원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종단 內 양극화 실태 조사 나선다

조계종 불교사회硏 신년 계획

연구소장 법안 스님의 재임으로 2기 체재에 접어든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종단 내 양극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들어간다.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아카데미 사업과 교재 출판 사업도 추진한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2월 24일 기자 간담회을 열고 올해 추진될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연구소는 △종책 △호국불교 △기초 자료 △불교사회 △연구기반 구축 5개 사업 영역에 걸친 사업 계획을 내놨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종책 연구분야의 '종단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방안 연구' 이다. 이는 불교 안에 내재된 양극화 문제로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이다.

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불교 내부에도 교구부터 지역 사찰, 스님 간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면서 "더 이상 간과하고 있을 수준이 아니다. 종단 차원에서 이를 연구해서 해소 방안을 어떻게 종책으로 만들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단 재정을 국고에서 독립시키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재정 자립도가 높아져야 종단의 건전성도 자리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책 분야 연구사업으로 종단 개혁 20주년 기념 사업을 총무원과 연계해 진행하며, 불광연구원과 공동으로 초 · 중 · 고 윤리교과서 불교 관련 서술 검토 토론회를 6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

각종 행사 시 의전에 대한 의전편람과 재가불자들의 수행방법과 체계 등을 살펴본 '재가불자 수행체계 조사' 를 3월 중 발표한다.

매년 실시된 대국민 여론조사는 올해 조금 볼륨을 키워 진행된다. 2011년 연구소 개원에 맞춰 발표된 조사와 연계해 3년 주기의 정기조사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법안 스님은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조사 외에도 3년마다 시행되는 여론조사는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볼륨있게 진행될 것"이라며 "질문지는 계획 중에 있으며, 이런 여론 조사들은 여론의 추이와 인식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불교 내 의식들이 고양될 수 있도록 교육과 출판사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미약한 불자들의 사회 인식 제고를 위한 불교사회윤리교재를 발간하고 인문학, 사회학을 접목한 아카데미도 진행한다.

스님은 "사회적 의제에 대한 불교적 해석을 담긴 사회윤리교재를 준비 중"이라며 "의식교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삼선승가대학, 불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

시대는 변화한다. 이에 따른 승가 교육 환경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지난 1978년 개원해 통학 강원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도심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오던 서울 삼선승가대학(학장 묘순)도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삼선승가대학은 지난 1월 17일 30회 졸업식을 끝으로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날 졸업식은 새로운 출발에 대한 다짐이기도 했다. 앞으로 삼선승가대학은 기본교육기관이 아닌 전문교육기관인 불학승가대학원으로 변모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36년 전 설립된 삼선승가대학은 유일한 통학형 강원으로 사중 소임이 바쁘거나 건강 상 이유로 대중 생활이 어려웠던 비구니 스님들의 기본교육을 책임져 왔다. 지난 30기까지 총 26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모두 수행, 포교, 복지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중에는 대중에도 잘 알려진 농아인 포교의 달인 혜성 스님(광림사 주지)는 대표적인 삼선의 제자이다.

학장 묘순 스님은 "36년을 한결같이 이끌어왔지만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 없다. 출가자 감소에 대한 영향도 적지 않았다"면서 "종단의 승가교육 방침에 따라 승가대학을 정리하고 대학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동문 스님들이 '후학을 위해 교육불사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고 요청했고, 이에 응했다"면서 "시작했으니

36년간 266명 졸업생 배출
유일한 통학 강원… 대학원 전환

오는 3월 26일 입학식 및 개강
금강경 등 한문원전 교육 '집중'
"양질 교육프로그램 제공할 것"

불학 전문 대학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선불학승가대학원은 오는 3월 26일 오전 10시 입학식을 개최하며, 공식적인 학사 일정을 시작한다. 한문불전을 수학하고 연찬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았으며, 교육 참여대상자는 비구니 스님이다. 이전과 같은 통학형으로 2년 4학기 과정이며, 수업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다.


삼선승가대학의 오늘을 있게 한 학장 묘순 스님


2007년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방부를 들이고 있다. 이제는 불학승가대학원으로 전환한다.

주요 교육 커리큘럼도 확정됐다. 1학년 1학기에는 금강경, 아함경, 한문학연구 Ⅰ 를, 2학기에는 구사론, 원각경, 한문학연구 Ⅱ 를 가르친다. 2학년 1학기에는 해심밀경 유식30송, 중론, 2학기에는 한국과 중국의 선문헌을 공부한다. 이듬해에는 유마경, 능엄경, 선시, 법화경을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때는 기신론, 화엄경삼현십지, 한국선문헌, 중국선문헌을 수학하게 된다.

3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되는 1학기 수업은 학장 묘순 스님이 금강경을 지도하고, 동국대 불교학부 강사 원과 스님이 아함경 강의를 한다. 또 현성주 동국대역경원 前 한불전 편집실장이 한문학연구를 강의한다.

졸업자에게는 3급 승가고시 응시에 필요한 교육 경력 2년을 인정해주며, 논문 심사 후 각 승가대학 교육 교역자 자격이 부여된다.

학장 묘순 스님은 "요즘 출가하는 스님들은 한글세대여서 한문 원전을 익히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입학한 스님들에게 한문 문법을 체계적으로 지도해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가불자들도 한문 원전을 배울 수 있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아직은 여건이 되지 않아 힘들지만, 정착 단계에 이르면 개방형 교육기관의 장점을 살려 재가불자들도 수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전국 부대 곳곳에 군장병 편히 쉬는 법당 개설"

군종특별교구 26일 신년회견서… 1사찰 1군법당 운동 전개

군종교구가 2014년 신년계획으로 낙후된 군법당 개 · 보수사업을 전개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사진〉은 2월 26일 서울 호국 원광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사업 계획을 밝혔다.

정우 스님은 "불자들의 힘을 모아 우리나라 군부대 시설 중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논산 호국연무사를 건립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전방 격오지 등에는 노후화된 부대 법당들이 산재해 있다.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 · 보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군종교구에 따르면 논산훈련소 외에 전체 군장병의 56%가 교육을 받는 각 부대 신병교육대에 조차 법당이 없는 곳이 태반이다.

스님은 "신교대의 이전으로 법당이 없어 가건물을 법당으로 쓰는 곳이 많다. 주로 초임군승이 부임하는 격오지의 경우도 조립식 막사를 법당으로 이용하는 등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낙후된 군법당을 개보수하는데는 예산이 관건이다. 군종교구는 군법당 불사를 위해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축사찰 표준설계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향후 연대 · 사단 · 군단 등 각급 부대별 법당 모델을 마련해 건축비를 절감한다는 계획. 건축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공병병과출신의 예비역 장성이 임명된 상태다.

예산 확보를 위해 정우 스님은 군장병 불자 배가운동도 올해 중점사업으로 진행한다. 정우 스님은 "예산 16억원 중 종단지원금은 2억 5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일하기로 하면 돈이 한없이 필요하지만 돈 갖고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많은 불자들의 지원과 관심이 있어 군종교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계장병 일반사찰 연계 모색

군종교구는 10만명에 달하는 수계장병을 제대 후 사찰에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포교원과 함께 개발해 실질적인 불자양성소로 거듭나게 할 방침이다. 또 장병들을 이끄는 부사관 이상 급 장교포교도 강화할 계획이다.

스님은 "군복무 시절 부대에 법당이 없어 개신교 종교행사에 참여해야만 해 찬송가도 불렀다"며 "열심히 군생활을 하던 중



격오지 법당 보수 불사 추진
예비역 군승 활용 포교 전개

지켜보던 지휘관이 서류를 뒤져 내가 스님인 것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중대장부터 사단장까지 모두 불자였다. 그 인연으로 중대 · 대대 · 연대 · 사단까지 법당을 건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장병들은 이동이 잦고 계급간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하사관일 비롯해 오래 근무하는 장교들이 중요하다. 군종교구에서는 불자 하사관 · 장교를 교육기관부터 자대배치 후까지 관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포교원과도 연계해 장병들이 제대후 일선 사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자란 군법사, 민간서 충원

군종교구는 또 군법사 외에 재가 포교사 관리체계를 정착해 포교전선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교사 간담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보시금이 들어오는 영외법당을 격오지 영내법당과 이어주는 구조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제대한 예비역 군승법사를 비롯한 관계자 500여 명의 재능기부를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또 '군장병 위문품 보내기' 사업 일환으로 부처님오신날을 기해 59개 부대에 3만여개 '자비의 선물' 을 지원하며 장병 월동준비용 면장갑도 전달할 예정이다. 군종특별교구는 올 초 44개 부대에 22만개의 핫팩을 후원한 바 있다.

정우 스님은 "젊은 나이에 군대에서 만나는 불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동쪽으로 기운 나무는 결국 동쪽으로 쓰러지기 마련"이라며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종삼 · 지현 · 탄공 스님 15대 종회의원 선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직능대표에 종삼 스님(전 화엄사 주지)과 지현 스님(청량사 주지)이, 마곡사 중앙종회의원에 탄공스님(고란사 주지)이 선출됐다.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2월 27일 회의를 열고 직능직 강원대표에 지현 스님, 율원대표에 종삼 스님을 선출했다. 마곡사는 덕천 스님이 후보를 사퇴한 가운데 27일 산중총회를 열어 탄공 스님을 종회의원으로 선출했다. 총회에서 탄공 스님은 75표, 혜우 스님은 28표를 획득했다. 2표는 무효 처리 됐다.

종삼스님은 도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화엄사에서 도천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9년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지현 스님은 법종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1년 보각사에서 법종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5년 범어사에서 소천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탄공 스님은 능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6년 망월사에서 정영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5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신중일 기자

周易禪解 강의 모집안내

원조각성 큰스님 강의

우익지욱대사 (1599-1655) 周易禪解

佛敎的으로 주역을 해석한 周易禪解를 강의 한다.
지욱대사는 명 말의 불교를 마지막으로 활짝 꽃피운 최후의 거장이다. 周易禪解는 진시왕도 분서갱유 중에 주역을 태우지 않을 정도로 귀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佛敎的 주역강의는 감히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것을 근대에 유불선의 통달한 대 강백이신 각성 큰스님께서만이 명쾌하게 풀이로 명강의가 될 것 입니다. 이 귀중한 인연을 함께해서 자기완성에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 강의일시 : **첫 강의 3월 19일**
■ 강의시간 :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 수 강 료 : 6개월 300.000원
■ 기 간 : 2년
■ 모집인원 : 50명 ■ 교 재 : 별도
■ 대 상 : 비구, 비구니, 재가자 약간명
■ 접수기간 : 2014년 3월 1일부터 ~ 18일까지
■ 입금계좌 : 농협 352-0293-1539-53 (예금주 : 최재동)
■ 접수문의 : **010-4242-7070 화영법경 스님**
■ 강의장소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213-50번지 좋은절

찾아오는길
KTX 광명역 오후 1시 동쪽편 봉고차운행
[승 용 차] 서울용인고속도로 서분당 고기동 내려서 절까지 2분거리
[좌 석 버 스] 조계사 건너편 5500-1번 미금역 (분당 미금역에서 택시 10분거리)
[지하철 이용] 미금역하차 7번출구쪽 마을버스 14번, 32번 →고기초등학교하차 도보 20분거리

통화불교 전강원 경전연구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45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4년 4월 7일 (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부처님 출가·열반 의미 정진으로 기린다

전국 사찰 출가 · 열반재일 행사 '다채'

음력 2월 8일과 15일은 불자들에게 뜻 깊은 날이다. 8일은 부처님이 왕좌를 버리고 출가(出家)의 원력을 실천으로 옮긴 출가재일이며 15일은 중생구제에 원력을 다한 부처님이 사바세계와 인연을 놓은 열반재일이다. 불자들은 이 8일 동안 큰 명절로 기리면서 출가열반 특별정진을 한다.

올해의 출가 · 열반절 주간은 3월 8일부터 15일까지다. 이 기간 전국 주요사찰들이 참회 정진에 들어간다.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학, 02-511-6070)는 주지 원학 스님의 특별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출가재일인 3월 8일과 9일, 열반재일인 15일 오전 11시 봉은사 법왕루에서 원학 스님이 직접 〈열반경〉을 강의한다.

양산 통도사(주지 원산, 055-382-7182)는 3월 8~15일 '불기 2558년 부처님과 함께' 를 주제로 석가모니불 정근, 108배, 금강경독송, 예불 정진을 진행한다.

또한 매일 오전 11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혜남 스님(통도사 전계사)의 '출가의 의미-출가' △지안 스님(고시위원장)의 '부처님의 가르침-사성제' △우진 스님(서축암 감원)의 '부처님의 계율-십선업' △영랑 스님(기획국장)의 '부처님의 가르침-팔정도' △중선 스님(수도암 감원)의 '부처님의 가르침-십이인연' △지형 스님(통도사 강주)의 '부처님의 가르침-사무량심' 등을 주제로 법문이 진행된다.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 02-2650-2220)는 출가재일부터 열반재일까지 정진주간을 삼아 수행정진한다. 이 기간동안 국제선센터 사부대중들은 '참회와 서원의 행복한 108배' 와 발원문 봉독 등의 수행 프로그램에 동참한다.

대표 수행모임인 **정토회**(지도법사 법륜, 02-587-8993)도 출가 열반 정진 주간을 맞아 '새로운 인생의 꽃을 피우라' 를 주제로 8일 용맹정진에 들어간다. 정토회는 매일 오전 9시 사시예불과 300배정진을, 오후 7시부터 저녁예불과 108배 정진을 진행한다. 또한 법륜 스님의 영상법문도 함께 이뤄진다. 정토회의 본당격인 서초법당 이외에도 양천, 강서, 노원 등 각 지역 법당에서도 이 같은 정진이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회향천도재도 함께 봉행된다.

출가 · 열반재일을 맞아 자비도량참법 기도 정진을 진행하는 사찰도 눈길을 끈다. **남양주 봉선사**(주지 정수, 031-527-1956)는 3월 8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청풍루에서 자비도량참법 기도 정진을 진행한다.

부산 홍법사(051-508-0345)는 '출가에서 열반까지' 를 주제로 자비도량참법 정진에 들어가며 회향일인 15일에는 합동수계의식도 봉행하며, **화계사**(주지 수암, 02-902-2663)도 출가재일을 맞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 30분까지 철야 다라니 정진을 한다.

마곡사(주지 원경, 041-841-6220) 역시 출가 · 열반절을 맞아 부처님 열반의 참뜻을 되새기며, 응진전에서 기도 정진이

봉은사 주지 스님 '열반경' 직강
국제선센터 정진 주간 기도 정진
철야 다라니, 팔상록 기도 '눈길'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출가 · 열반재일 정진 모습. 전국 사찰들도 출가열반 정진 주간을 맞아 다양한 수행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계교육 입교 행자, 1보1배 정진

행자 114명 24일 직지사서

지난 18일 제46기 사미 사미니계 수계교육에 입교한 남행자 68명과 여행자 46명 등 총 114명의 행자가 2월 24일 제8교구본사 직지사 대웅전 앞에서 1보1배 정진을 했다.

수계교육 지도위원장 흥선 스님(직지사 주지)은 이날 1보1배를 마친 행자들에게 절수행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며 "절은 수행자가 해야 할 최소한의 수행이다. 숨 쉬는 일, 밥 먹는 일, 차 마시는 일처럼 일상에서 떨어져서는 안 될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일까지 이어지는 수계교육 기간에는 율학, 경학, 염불의식, 습의, 선, 교, 율과 전법교화 등 다양한 특강이 진행되며 오는 3월4일 5급승가고시를 치른 후 합격자에 한해 5일 수계식에서 사미 사미니계를 수지한다. **신중일 기자**



2월 24일 직지사에서 진행된 사미 사미니 수계교육에서 행자들이 1보 1배 정진을 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 민간교류 확대해야"

인권위 등 26일 기자회견

"통일의 선행조건은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왕래와 민간교류 및 경제협력확대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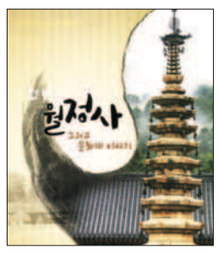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한반도불교평화통일실천기획단은 2월 26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통일은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남과 북은 갈등을 멈추고 상생을 통해 세계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동반자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 단체가 행정통합을 하는데도 진통 끝에 십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하물며 남북이 하나 되는 일은 생사를 건 노력과 인내를 각오해야 한다"며 "정치적 합의 이전에 민간교류를 통한 민족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 "민간교류 확대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쌓아야 한다"고 촉구하며 "통일의 원칙은 남북 긴장이 아니라 신뢰구축을 통한 소통과 화합에 있다. 남북이산가족의 한과 눈물이 통일을 위한 역량을 쌓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도 이 맥락 위에 있다"고 역설했다. **배현진 기자**

월정사 문수청소년회 문화재 안내책 발간



평창 오대산 월정사 문수청소년회 청소년 동아리는 지역 사회 전통 문화재를 소개하는 '청소년 영어문화재해설사-청소년 문화재 액티비티북(사진)' 을 최근 발간했다.

책 제작에는 청소년 20여명이 참여했으며 문화재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퀴즈가 적절히 섞여 있다.

'청소년 영어문화재해설사-청소년 문화재 액티비트북' 은 국내 어린이들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쉽게 문화재 정보를 전달하고자 영어판으로도 제작됐다. 책자는 월정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거나 성보박물관에 방문하는 어린이와 외국인들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한편 문수청소년회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인성과 성장을 위해 설립됐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학술원 내홍에 ABC사업 파행 우려

실무진 "원장 전횡, 용퇴하라" VS 현각 스님 "관행 타파한 것"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진행 중인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사업(ABC사업)' 운영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불교계 사상 유례없는 총 2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ABC사업이 파행됐을 경우 향후 다른 국고지원 사업에도 영향이 예상돼 문제가 커지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산하 ABC사업단 이종수 집성팀장(조교수)과 박인석 역주팀장(조교수)은 2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학술원장 현각 스님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이 현각 스님의 퇴진을 요구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해외문헌조사비 결재 거부 등 행정 파행 △측근인사 채용 △연구원들에 대한 인격모독 등이다.

이들은 먼저 현각 스님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해외문헌조사비 3000만원 중 일부 조사비 결재를 거부하는 등 일본 용곡, 대곡, 경도대학 내 문헌조사를 중지시켜 ABC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현각 스님이 취임 이후 전임 연구원 채용에서도 행정을 불투명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각 스님은 25일 서울 장충동 불교학술원 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불교학술원의 잘못된 관행과 방만한 사업 운영행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리사욕을 채우려 ABC사업을 볼모로 잡는 두 학자에게 다시 한번 이성을 찾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해외문헌 조사의 경우 이미 국내에 있는 자료들이며 그동안 무분별한 해외출장으로 국비를 낭비해 이를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스님은 역주자 교체에 대해 "지금까지 임의추천 등에 의해 역량이 부족한 이들이 역주를 진행해 역주작업의 폐해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동국대 한 고위관계자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 는 현각 스님의 주장과 '기획위원회에 보고 했다' 는 두 팀장의 주장에 대해 "불교학술원의 경우 여러 사업단을 포괄하는 그룹의 모체 개념으로 있는데 ABC사업단은 당연직 단장을 불교학술원장이 맡고, 실무를 맡은 기획위원회가 따로 존재하는 구조였다"며 구조적인 원인을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동국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전임원장 당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이었는데 후임원장이 사업 내용을 점검하니 반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의 전문성을 위한 자율보장과는 별개로 행정에 있어서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무진
"해외 문헌조사 결제 거부"
현각 스님
"무분별 출장 국비 낭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민추본, 조불련과 봉축합동법회 논의

11~12일, 中 심양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에 춘풍이 불고 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은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이하 조불련)과 남북불교교류 실무협의를 갖기로 했다.

3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중국 심양에서 열리는 이번 협의는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남북합동점등법회, 만해스님 70주기 남북공동학술토론회, 서산대사 국가제향 복원, 북녘 어린이 영양개선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남북불교교류의 중장기 전망에 관한 정책협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1월 중순 민추본이 남북불교교류 실무협의를 제안하고, 2월 초 조불련이 동의하면서 이루어졌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고민하십니까?
하는 일마다 안되십니까?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장 / 한국 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 총재
현오스님 이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교육생 수시모집 [최면. 퇴마. 자극요법. 기공]
서울 은평구 | 부산 동래구 사직1동 18-14 | 인터넷상담 가능
010-5656-3915 | 010-9229-3801
빙의 · 신병 · 천도재전문 현오스님 을 찾으세요

일 주 문



신흥사, 최전방 부대 장병 위문

속초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2월 27일 22사단을 방문해 위문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생명연구윤리위원에

광주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은 전남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연구윤리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간이다.



한국다인연합회 자문위원

차(茶) 전문가 양흥식 교수는 2월 13일 사)한국다인연합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기문명리학 강의

서일영 대구시신도회 이사는 6월 1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동안대구한의대 평생교육원에서 기문명리학을 강의한다.(053)763-7029



손학규 고문, 불교협동조합 강연

손학규 민주당 고문은 2월 24일 서울 불교여성개발원 월례모임에서 '불교계 협동조합 활성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동산불교대학 제40회 졸업식



동산불교대학(학장 법산, 이사장 이상우)은 2월 23일 동산불교대학 제40회 및 대학원 제31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동산불교대학원 외 동산불교대학 불교학과(2년), 불교다도학과(3년), 불교미술학과(3년), 불교한글의식반(2년), 범패반(2년) 과정의 졸업생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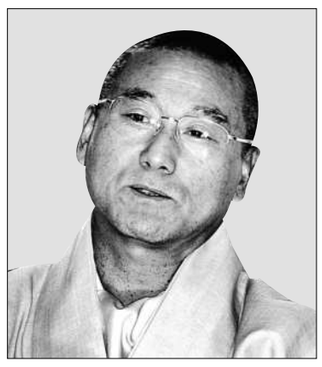
증명법사 법산 스님은 수계법문에서 "남을 향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참된 나를 발견하는 참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본각선교원 이전

본각선교원(원장 고준환, 前경기대 교수)은 서울 종로구 종로오피스텔에서 진행하던 '법화경과 선' 강좌를 신도림역 인근의 현대파크빌 724호로 이전해 강좌를 계속한다. (02)762-4848

"박람회로 불교문화 대중화 추구"

2014년 불교박람회 조직위원장 성직 스님



불교미술의 대중화 선언
붓다아트페스티벌 '눈길'
섹션별 구분 이해도 높여
3월 6일~9일 STEC서

"지난해 불교박람회가 내실화를 다지는 데에 최선을 다했다면 올해는 대중화를 동시에 다질 수 있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조계종이 주최가 된 만큼 불교문화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대중적화해 국제적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힐링, 슬로우라이프를 슬로우건으로 내건 2014년 불교박람회가 3월 6일~9일 서울무역 전시컨벤션센터(STEC)에서 열린다. 이에 불교박람회 조직위원장 성직 스님(불교신문 사장)은 2월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4년 불교박람회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했다.

2014년 불교박람회는 250개 업체가 참가 350개 부스가 운영되며 예상 관람객은 약 6만 5천명이다. △붓다아트페스티벌의 조직구성 및 실무진 강화 운영 △미리 보는 연등회, 북콘서트 진행 △불교문화체험 부스 강화 등을 통한 불교문화 대중화를 추구한다.

특별전시관은 △붓다아트페스티벌 △템플스테이 홍보관 △사찰음식 홍보관 △불교문화 상품관 등으로 구성된다. 성직 스님은 "올해로 2회를 맞는 붓다아트페스티벌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불교작품을 전시, 불교미술의 대중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의미가 깊다. 특히, 올해는 '불교만화 초대기획전'으로 대중들에게 불교미술을 쉽게 전달하는 동시에, 도네이션 프로그램 '새봄의 선물 20만원 전'을 통해 불교미술작품 가격의 합리화를 정착시키고 수익금은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에 기부해 나눔을 실천하고자 했다"고 전한다.

또한 사찰음식은 전시, 체험, 학술대회, 경연대회를 통해 맛과 건강을 추구한다. 사찰음식전시에서는 원형전, 현대전, 특별전, 사진ㆍ영상전 등을 만날 수 있다. 학술제에서는 학술 심포지엄 사찰음식 쿠킹클레스 등이 있으며 체험행사로는 전통두부 만들기, 소식그릇만들기, 두부장만들기, 요리교실 등이 있다.

이밖에도 고요한 산사에서의 하루 사찰체험프로그램에서는 스님과의 차담, 염주와 연꽃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불교문화상품공모전 수상작 전시는 물론 불교문화상품 판매 및 브랜드 런칭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강연도 다양한다. 박람회 첫날인 3월 6일에는 전통건축, 한옥, 단청, 범종 등을 주제로 한 전통건축 강연이 열리고, 7일 금요일에는 불화, 불상, 근대 불교미술 접근법 등 역사 강의가 이어진다. 8일에는 전통음악 페스티벌이 마지막 날인 9일 일요일에는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진행하는 북콘서트도 열린다. 특히 3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불사 특별강연에서는 문화재 보수 건설 시공업체 강의와 도편수의 불사전반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앞으로 불교박람회는 세계 최대 불교전람회인 중국 샤먼국제불사용품전람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교류할 예정이다. 또한 붓다아트페스티벌은 독립 박람회로 분리하는 방향도 추진중이다. 성직 스님은 "내년 박람회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접근성이 좋은 위치인 만큼 봉은사를 중심으로 불교 산업과 문화를 연결시켜 공신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법정 스님 입적 4주기 추모법회

2월 25일 성북동 길상사서


법정 스님 입적 4주기 추모법회가 2월 25일 성북동 길상사에서 열렸다.

법정 스님 입적 4주기 추모법회가 2월 25일 성북동 길상사에서 열렸다. 명종 타종으로 시작된 추모법회는 법정 스님의 생전 영상법문 상영을 시작으로 종사영반과 헌화, 송광사 동주 법흥 스님의 법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길상사 설법전을 가득 메운 700여 명의 사부대중들은 추모재를 통해 스님이 남긴 가르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법정 스님의 생전 영상 법문에서 스님은 '문명의 소도구로 전락하지 말자'는 주제의 법문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문명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사람다움과 여유를 잃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한 법정 스님은 "순간 순간에 감사하고 누릴 줄 알아야 한다. 순간을 수단시하고 살면 평생을 살아도 남는 게 없다. 목표를 좇아 급하게 달리지 말고 여유를 갖고 돌아갈 줄 알아야 한다"며 현대문명 속에 여유를 찾을 것을 강조했다.

송광사 법흥 스님은 추모법문에서 "스님은 성격이 치밀하고 시간을 소중히 여겼으며 자신의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회고했다.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돌이켜보면 한 말씀 한 말씀이 인생에 큰 도움되는 것이었는데 말씀을 제대로 간직하고 실천하지 못해 후회가 크다"고 전했다.

에이핑크 손나은 동국대 입학



인기 걸그룹 멤버 등이 종립 동국대 2014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했다. 동국대는 2월 26일 서울캠퍼스 만해광장에서 201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올해 동국대 14학번 새내기로 입학식에 참석한 인기 걸그룹 에이핑크의 손나은 양은 "문화예술인을 많이 배출한 동국대학교에 입학하게 돼 기쁘다"며 "우리 모두 각자가 가진 멋진 꿈을 함께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동국대에는 모두 3,074명의 학사과정 신입생과 663명의 석박사과정 신입생이 입학했으며, 올해 수석합격은 경찰행정학과에 입학한 김소영 양이 차지했다. **노덕현 기자**

국제불교학교 제2기 졸업식



조계종 국제불교학교(학장 정도, 교육원 교육부장)는 2월 20일 용인 화운사 국제불교학교 대강당에서 제2회 졸업식 및 제4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보장 스님을 비롯한 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보장 스님이 총무원장상을 승원 스님이 교육원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신입생 8명 스님들의 입학식도 함께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국군불교총신도회 창립 기념법회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김현집, 합참차장 · 육군 중장)는 21일 서울 육군회관 무궁화홀에서 '창립 제1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배종영 해군 준장이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오명호 육군 대령 · 김정구 육군 중령 · 이상운 공군 준위가 포교원장상을 각각 수상하는 등 군불자 14명에 대한 표창도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수미산 불국사, 자비나눔 실천행


가섭 스님(왼쪽에서 세 번째)이 일운 스님(왼쪽에서 네 번째)에게 쌀을 전달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 수미산 불국사(주지 가섭)는 2월 24일 황송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일운)에 쌀 1000kg을 전달했다.

신자들의 십시일반 모금으로 구매한 쌀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으로 제공된다. 불국사는 이 외에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두고 꾸준한 후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황송노인종합복지관은 하루 평균 500여 명의 어르신에게 영양식의 밥상을 제공하기 위해 질 좋은 음식재료로 건강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貪心 줄이기
탐심
–더 나누자

“아상때문에 탐심 생기고 이웃 돌보지 못해”

20년째 365일 무료급식
이웃 위해 봉사하니
탐심 줄고 만족은 커져

20년 노인 무료급식 종로 원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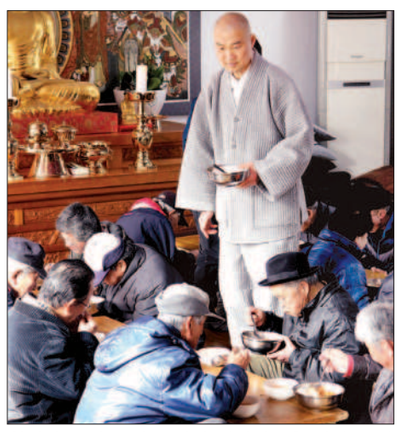
매일 오전 11시가 넘으면 서울 종로 탑골공원 후문에는 노인 하나 둘씩 공원 담장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번호표를 받는다. 무료로 주는 점심을 먹기 위해서다.

원각사(주지 보리)는 탑골공원 후문 뒤 낡은 건물 2층에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라는 간판을 걸고, 1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무료로 대접하고 있다.

보리 스님은 20년 전, 탑골공원 안에서 어르신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눠주는 일을 처음 시작했다. 이후 불자들이 한두 명씩 무료 배식에 동참하면서 일주일에 이틀은 국수를 삶아 배식했다. IMF 경제위기로 수많은 퇴직자들이 거리로 쏟아졌던 1997년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위탁을 받아 소고깃국과 쌀밥을 하루 최대 1200여명에게 대접하기도 했다. 1998년엔 공원 성역화 사업으로 음식물 반입이 전면 금지되자, 4월에 월세로 건물 2층을 구해 법당을 차리고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원각사에는 현재 평일 100~150명, 휴일 250~300명의 노인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찾는다. 이 인원은 일주일 평균 1000~1350명이며, 연간으로 따지면 5만~7만 명에 이른다. 보리 스님은 15년을 매일같이 해왔으니 100만 명분의 식사를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곳 급식소가 정부의 지원 없이 종교、시민단체의 기부금과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봉사팀은 30여개. 한 스님이 종로 탑골공원에서 어렵게 무료배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 둘 동참했다. 봉사자들은 매월 1회 정해진 날에 와 주지 스님의 법문을 듣고 봉사활동을 시작한다. 10여 년 동안 봉사활동을 해온 사람들도 상당수다. 이들은 봉사활동을 하면 할수록 욕심은 줄어들고 행복감이 생긴다고 입을 모은다.


원각사 주지 보리 스님과 봉사자들은 매일 12시 노인들을 위해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13년째 배식봉사를 하고 있는 광명행(65、구의동)보살은 “불교는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베풀고 행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기쁘다. 어르신들을 도우면서 탐심은 줄고 작은 것에 만족하게 되는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15년간 매일 빠지지 않고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여의심(83、행당동)보살은 “봉사활동이 한 번도 힘들거나 지루 했던 적이 없다. 어르신들이 밥 한끼 드시고 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배가 부를 수가 없다. 더 겸손해지고 하심이 된다”고 말했다.

보리 스님은 “그분들이 희망을 갖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相)을 버려야 한다. 나를 세우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생기고 이웃을 보살피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원각사 입구에 걸린 “당신은 우리의 희망입니다”라는 간판이 이런 스님의 뜻을 설명해주고 있는 듯하다.

이나은 기자

瞋心 줄이기
진심
–더 낮추자

‘내 기준 강요 금지’ … 분노 조절의 지름길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잠시 여유를 가집시다
그리고 남을 인정하세요

미소(微笑), 소리 없이 빙긋이 웃는 모습을 의미한다. 조계종 기획실장 일감 스님은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다. 웃으며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 일단 스님에게는 무슨 고민이라도 털어놓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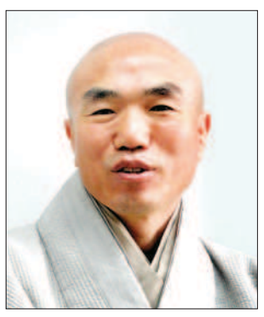
‘분노 사회’ 라고도 말할 수 있는 현 세태에 대해 일감 스님에게 물었다. 거침없는 답변이 단박에 돌아왔다. 내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분노는 자신의 기준에서 만들어집니다. 내가 가진 가치관이 옳고 남이 그르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기준을 남에게 강요합니다. 타인이 이를 수용하면 괜찮지만 대부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화가 나고 심해지면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스님은 분노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했다. 정말 보편적인 정의가 성립되지 못하고 약자에 대한 핍박받는 상황에는 당연히 분노해야 한다는 것이 일감 스님의 주장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불의에 분노하기보다는 침묵하고,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에만 분노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님은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없을까? 일감 스님은 “그렇지는 않다”고 잘라 말한다. 다만 화가 날 때는 한번 더 자신을 돌아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저도 화가 나는 일이 있고, 분노가 차오르는 경우도 있지요. 그럴 때마다 감정을 한 템포 쉬어가려고 합니다.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마음에 여유를 잠시나마 갖게 되면 분노는 사그러들게 돼 있습니다. 저 역시 실수해서 화를 내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고 마음을 씁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아상이 송곳처럼 올라왔구나’ 라고 참회합니다.”


일감 스님 (조계종 기획실장)

금산사 템플스테이를 ‘국민 힐링 템플스테이’ 로 발돋움 시킨 일감 스님의 ‘내비둬 콘서트’ 도 삶의 여유를 찾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실제 ‘내비둬 콘서트’ 의 부제도 ‘나는 쉬고 싶다’ 이다. 이를 통해 스님은 산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여유를 선사한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내비둬’ 는 일, 직장, 가족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내려놓으라는 의미합니다. 금산사 템플스테이는 참가자들에게 일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방하착(放下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핵심은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로 볼 때 나를 낮추고 비울 수 있으며, 욕심과 분노는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대중들에게 자신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 여유를 가질 것을 충고했다.

“젊을 때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공부가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원칙과 가치관이 형성돼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합니다. 내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고 남의 가치관을 인정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사소한 분노를 내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신중일 기자

癡心 줄이기
치심
–더 비우자

“새벽마다 탑에 다기물 올리며 마음 비워유”

평생을 비운 할머니
미흡한 내 언행 참회
“처처에 스승있다”

사자빈신사지서 만난 할머니

단풍이 찬란하게 손짓하는 월악산 송계 계곡길을 따라오르다가 ‘골미길’ 이란 이정표를 보며 우회전하여 조금 가니 사자빈신사지 석탑이 보인다.

보물 94호인 사자빈신사지 석탑 기단부의 상대를 돌사자 4마리가 떠받치고 있고, 그 가운데에 두건을 쓰고 지권인을 결한 비로자나불 좌상이 계신 모습을 우러르며 합장하였다. 비로자나불 좌상은 작지만 고려 때 불상의 특징대로 위엄이 서려 있다.

함께 동행하신 스님과 도반과 탑을 돌아보는데, 이 탑의 비로자나불을 닮은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셔서 말을 거신다.

“내가 충주 살다가 이곳에 와서 산 지가 40년이 넘는디 맨날 새벽에 이 탑에 다기물을 올리고 있슈. 와서 보니까 이곳 부처님이 물 한 모금 못 얻어 마신 지가 100년은 넘었더라구유. 새벽에 안 일어나면 부처님이 베개를 흔들어서라도 깨워줘유. 충주 살 때는 덕원사에 다녔는디 지금 생각하면 욕심으로 다녔슈. 여기서는 새벽마다 이 탑 앞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비워유.”

묻지 않는데도 술술 할머니의 말문이 열리신다. 순박하면서도 언행이 다르지 않으니 가는 곳마다 스승이 있다던 옛말이 그르지 않다.

보물인 석탑 바로 오른쪽 옆에 터를 돋구어 현대식 양옥 한 채가 서 있고, 그 집의 오른쪽에 쓰러질 듯한 작은 시골집 한 채가 할머님이 사시는 곳이란다.


할머니는 40년간 사자빈신사지 석탑에 다기물을 올리고 있다.

신축 양옥집의 대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모두 할머니 소유 땅이란다. 양옥집 주인은 그 땅을 사려고 할머님을 계속 조르고 있단다. 할머니 땅에 갇혀 있어 할머님이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출입구 없는 집이 될 것이다.

“자식들이 모두 와서 팔라고 하는디 돈은 가져서 뭐해유! 딸네가 돈을 빌려달래서 빌려줬는디 안 갚어유. 그래서 그냥 주었다고 생각해버렸슈.”

어느 날 할머님이 바깥나들이를 하고 돌아오니 양옥집과 탑 사이를 흐르는 물길을 모두 메워 마당을 만들고, 물길을 돌려 할머님 집으로 흘러내리게 해서 비 오는 날이면 집이 온통 물난리란다.

한 사람의 욕심이 천년 탑의 고즈넉한 꿈을 훼방하는가 하면, 순박하고 따질지 모르고 마음 비워가며 사시는 할머님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 이마에 보석이 빠져서 얼매나 안타까운지! 악세사리점에서 유리를 사다가 내가 대신 끼워놨슈.”

할머님께 이곳 비로자나 부처님은 돌부처님이 아니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공경하여 모시는 살아계신 부처님이시다.

〈배광식 著, 천 개의 연꽃잎으로 피어나리라 中〉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 전화 010-7415-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안전한 사회 위해 노력해달라"

조계종 경찰전법단 신년법회 봉행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2월 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경찰불자 신년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법회는 경찰 불자와 가족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법문과 신입법우소개, 축가, 발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 됐다.

경승단 사무총장 송묵 스님(조계종 포교부장)은 법문에서 "부처님 가르침 중 하나인 중생을 위한 보살핌을 실천하는 것이 경찰불자들의 역할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2월 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경찰불자 신년법회를 거행했다.

국회 정각회, 중국 선종 사찰 순례

3월 8~16일, 고우 스님 지도법사로 참석

국회 정각회(회장 정갑윤)는 3월 8일~16일 8박 9일간 중국 선종의 유적지를 순례하는 '국회 정각회 중국 선종 순례'를 진행한다.

이번 순례에는 원로의원 고우스님이 지도법사로 참석하며, 기획국장 남전 스님도 동행한다. 주호영(새누리당) 강창일(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정각회원과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과 이연택 동국대 총동창회장 등 3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순례단은 중국 3대 불교석굴의 하나인 용문석굴을 참배하고, 초조달마 대사가 세운 소림사와 이조 혜가 스님이 수행한 이조암, 승찬대사가 수행한 삼조동, 도신대사의 전법동과 비로탑, 홍인 대사의 오조사 대웅전, 육조 혜능 대사가 〈육조단경〉을 설한 대감사, 혜능 진신상이 모셔진 남화선사 등을 돌아볼 계획이다. 또 육조 혜능스님이 출가할 때 삭발한 머리털을 묻고 세운 유발탑이 있는 광효사와 초대 달마대사가 묵은 적이 있는 육용사 육조당도 참배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맑고 향기롭게 장학생 선발

3월 22일까지 서류 마감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가 2014년 장학생을 선발한다. '맑고 향기롭게 · 길상화 장학생' 선발 서류 마감은 3월 22일까지이며 각 학교별로 중 · 고교생 1명씩을 추천받는다.

제출서류는 장학생 지원신청서, 추천서 1부(홈페이지 clean94.or.kr 공지 참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부, 성적증명서(학교생활기록부) 1부 (1학년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3학년 성적증명서),학교 장학금 통장 사본 1부 등이다.

4월 4일(금) 개별 통지 및 학교로 공문으로 통지하며 장학증서 수여식은 4월 18일 길상사 소강당에서 개최된다.

지금까지 맑고 향기롭게는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총 483명의 중 · 고교생에게 약 6억 7천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한편,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이 주창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취지와 길상사를 무주상보시한 故김영한(길상화 보살)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의미로 '맑고 향기롭게 길상화 장학생'을 매년 선정 1년간 학비 전액을 전달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직장인 수행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 풀자

보리수선원 · 한국명상원 등 퇴근 시간 배려한 지도 점검

직장인들이 시간을 내어 수행을 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직장인 수행자들은 홀로 수행을 하거나 주말 또는 휴가를 이용해 수행처를 찾아 정진 프로그램에 동참한다.

이런 가운데 평일에도 업무를 마친 저녁 시간, 초급자를 위한 수행 지도에서부터 수행점검, 수행지도자의 법문이나 명상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 자애명상센터, 상좌불교 한국명상원, 보리수선원, 제따와나 선원 등이 직장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수행처다.

서울 자애명상센터는 3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자애명상과 마음챙김 명상에 근거한 자기치유 8주 과정' 20기를 모집한다. 이 과정은 자애명상과 마음챙김 명상 수련을 통한 자기 치유와 생활 속에서의 행복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주마다 명상 수련, 자애명상 및 마음챙김 명상의 체험나누기, 명상법에 대한 강의를 병행한다. 김재성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명상심리학 교수가 지도하며, 처음 4주간 내면의 행복을 경험하면서 분노를 다스리는 자애명상을 실습하고, 이후 4주간 자애명상에 근거한 마음챙김 명상인 위빠사나를 실시한다.

상좌불교 한국명상원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12연기강좌와 사념처 위빠사나 수행을 실시한다. 12연기에 대한 사야도 법문을 공부하고 이어서 위빠사나 수행을 진행한다. 강좌는 한 시간 법문, 30분 경행, 한 시간 좌선, 면담 순으로 진행된다. 수행 경험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해 위빠사나 수행센터를 비롯해 대구, 서울 등 사찰에서 '사띠' 수행을 대중화하고 있는 사단법인 **싸띠아라마(대표 붓다빠라)**는 김해에서는 매주 목요일, 서울 서초동에서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직장인 등을 위한 평일 수행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직장인들을 위해 저녁시간에 운영되는 수행 프로그램이 인기다. 사진은 위빠사나 붓다선원에서 진행한 위빠사나 수행. (현대불교 자료사진)

직장인을 위한 수행처

사 찰	주 소	일 시	전 화
(사)싸띠아라마	서울 서초구 서초 1동 1669-4 연주정육점 2층	매주 화요일 오후 7:30	(02)597-2841
제따와나선원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9길 52	매주 목요일 오후 7:30	(02)595-5115
부산 법미선원	부산 진구 연지동 198-6 국립부산국악원 옆 50m	매주 수~토요일 오후 7:00	(051)802-9666
붓다의길따라선원	부산 금정구 장전3동 422-25 6층 붓다의길따라 선원	매주 화요일 오후 7:00	(051)582-9988
보리수선원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370-7, 2층	3월 10~14일 오후 7:30	(02)517-2841
자애명상센터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11길 43(삼청동3-6)	3월 5일~4월 23일 수요일 오후 7:00	(070)8616-4837
(사)상좌불교 한국명상원	서울 강남구 논현동 98-12 청호불교문화원 나동 306호	매주 수요일 오후 7:00	(02)512-5258
위빠사나 붓다선원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우리함께빌딩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수행모임은 싸띠 수행에 관한 내용을 경전을 통해 확인하고 몸과 마음으로 익히는 과정이다. 주 1회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법당에서 대중과 함께 수행하며, 방식은 수행 100분, 수행점검 10분, 이론 20분으로 배우고 익히며 수행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서울 제따와나 선원(원장 일묵)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수행방법에 대한 기초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인반을 운영하고 있다. 수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일묵 스님과의 인터뷰 시간도 마련돼 있다.

위빠사나 붓다선원(선원장 김열권)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위빠사나와 상담심리, 티베트 수행을 병행하는 사마타기공삿띠명상과 순수위빠사나 수행을 진행한다.

부산 법미선원(원장 진명)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직장인 저녁수행을 진행하고 있다. 사띠 수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붓다의 길따라 선원(원장 진용)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오전 법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평일 저녁 수행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경행과 좌선 및 담마토크를 큰 틀로 자율적인 형태로 법회가 진행되고 있다.

과천 보리수선원은 3월 10~14일 저녁 7시 30분부터 붓다락키다 스님의 지도아래 179차 초보수행을 실시한다. 또한 보리수

동련 어린이포교 부산 서동에 새둥지

2월 25일 사무실 개소식 및 이전법회 열어

어린이 포교단체인 사단법인 '동련'이 조계종부산연합회 사무실을 마감하고 부산 금정구 서동에서 새롭게 출발했다.

동련(이사장 성행)은 2월 25일 사무실 개소식 및 이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사장 성행 스님(의왕 청계사 주지)을 비롯 부총재 운성 스님(진해 대광사 회주), 부총재 지광 스님(창원 자비사), 상임이사 정무 스님(용궁사), 이사 신공 스님(창원 구룡사), 도제 스님(광주 길상사), 감사 능후 스님(공덕원), 청소년법인 예그리나 이사 탄경 스님(진해 대광사), 대불어 부회장 현종 스님(김천 직지사), 이수 스님(동화사 포교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에서 이사장 성행 스님은 "'희망찬 어린이포교, 새로운 출발, 행복한 천진불 세상'을 목표로 지역아동센터, 해외자원봉사, 청소년 인성교육 명상지도사 양성을 통해 종교를 넘어 어린이, 청소년 인성교육에 앞장서는 단체로 발돋움 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총재 진해 대광사 회주 운성 스님은 축사에서 "미래의 등불이 될 어린이, 청소년 사업은 종단 차원에서 앞장서야 할 중차대한 원력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미선 국장은 "동련의 시급한 목표는 새건물 이전을 통해 365일 어린이들이 출입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지역포교차원을 넘어 어린이들을 위한 인성교육장을 만드는 일"이라며 "2014년도에는 재정적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동련은 2월 25일 부산 금정구 반송로 서동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이전법회를 개최했다.

부산 서동에 개소한 동련의 새 사무실은 1 · 2층 132㎡(각 층 40평)로 1층은 사무동, 2층은 포교자료실과 교육장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동련은 불교계의 대표적 어린이포교단체로 2005년 창립해 산하에 대한불교교사대학,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 동화구연회를 두고 있고, 2012년 11월 청소년법인 예그리나를 설립해 청소년 인성교육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진로 · 적성 · 상담 안내

진학상담 : C.A.C 분석서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예측
- 대학 진학하는 해! 세운 분석

◆ **상 담 료** : 20만원

- 상담 후 미 진학시 상담료 환불

◆ **학습진로상담사 학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73-2 (본부)

⇨ 지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98 (2층) 겸재 정비오 (010-5524-7053)

인 재 양 성



◇명리철학교육학 석사
◇미래예측학 박사
◇저서 : 규명 1.2.3권 (한솜미디어)
실전성명학 (상원문화사)
명리 진학정보론 (상원문화사)

- 동방대 문화교육원. 학습진로상담사 과정
매주 금 오후 2시~5시(봄학기 신입생 모집)
* 학력불문. 진학관심자. 철학원 운영자.
(접수처 : 문화교육원 02-3663-9860)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4개월 과정

◆ **수 업 일** : 매주 화 · 목요일
오전반 10시 부터 ~
오후반 6시 부터 ~

오시는길 1호선 수원역 하차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 규명철학연구소 1층 H·P 010-5418-5972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6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3월 14일까지

◆ 개강일시 : 2014년 3월 17일(월요일) 개강
매주 (월 ·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1년간 10만시간… '무주상 보시' 실천

조계종자원봉사단 25일 봉사자화합대회






조계종자원봉사단은 국내외 긴급재난 구호봉사는 물론 이미용 봉사, 호스피스 봉사 등을 하며 자비행을 펼치고 있다. 오른쪽 맨 밑 사진은 2월 25일 봉사자들을 위해 마련된 백수연.

지난해 활동시간 10만3천483시간 180곳에서 묵묵히 자비행 펼쳐

지난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봉사단원 812명이 활동한 시간은 총 10만3천483시간. 햇수로 따지면 11년이다.

분주히 움직인 덕분에 조계종자원봉사단은 2013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안정행정부장관 표창, 서울사회복지대회 서울특별시 복지상을 수상했다.

그 뒤에는 180여개 활동처에서 무주상 보시 보살행을 실천해온 이들이 있었다. 2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들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자원봉사단은 16명을 신임 봉사팀장에 임명하고 봉사자 어르신들이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9988백수연'을 개최했다.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 온 이들에게는 우수봉사자 인증배지가 수여됐다.

이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발급된 우수봉사 배지를 받은 이들은 각기 2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2000시간, 3000시간 이상 보살행을 실천해왔다.

3000시간 봉사의 주인공은 목욕봉사를 하는 수신회 소속 유인섭씨(73). 하루에 1시간씩 1년이면 360시간, 거의 10년에 달하는 시간을 그는 일주일에 두 번, 국립재활원과 보훈병원에 할애해왔다. 10여 년 전, 복지재단을 찾아가 무조건 힘든일을 시켜달라고 말했다는 그는 2인 1조가 되어 환자 1명을 30분씩 씻기다 보면 하루에 많게는 10명을 목욕시킨다. 체력소모는 둘째치고 몸이 굳은 환자들이 쏟아내는 배설물도 처리하는 등 궂은일을 도맡아야 한다. 수신회에 몇 년째 인력충원이 안 되고 있는 이유다.

"그래도 환자들만 생각하면 그만둘 수가 없더라구요. 일흔까지만 하자고 생각했는데 여든이 되어서도 계속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봉사는 이제 제 생활이 되었어요."

조계종자원봉사단의 화합을 도모했던 이날 행사에는 봉사단원들의 생일 축하연도 마련됐다. 회갑, 칠순, 팔순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해온 어르신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생일상을 받은 20여 명의 어르신들은 만수무강하시라며 복지재단직원들이 올린 큰절에 되레 고맙다고 말했다. 봉사단 구성원들은 6,70대가 대다수다. 최고령자는 82세다. 어르신들은 축하공연으로 쌍문3동 어린이집 원아들이 재롱잔치와 가수 야운의 노래를 들으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올해로 창립 19년을 맞는 조계종자원봉사단 자격은 3개월 가량의 교육과정 뒤에 주어진다. 자원봉사기본과정과 호스피스, 발마사지, 경락, 장례식에서의 염불봉사 등 전문교육이수를 받고 일정기간동안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그 후 팀별로 나뉘어 각기 사회복지시설, 병원, 공공기관, 군법당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 하게 된다. 현재 봉사단은 노인, 장애인, 노숙인, 환자 등을 대상으로 급식, 경락, 이미용, 간병, 업무보조, 청소 등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봉사단은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을 운영, 국내 · 외 재난 사태가 발생하면 긴급구호 전문가로 구성된 봉사대를 신속히 파견하는 등 구호활동까지 역량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는 13명의 봉사대가 현지에 가서 2억원 상당의 식량과 구호물자를 지원했다.

봉사단장 원경 스님은 "묵묵히 자비행을 펼쳐오신 분들 덕분에 한결 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었다"며 "봉사자의 자비로움을 통해 온 세상이 희망 꽃으로 피어나갈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앞장서 달라"고 봉사단원에게 부탁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복지관 분관 등 복지 인프라 확대

종로복지관 신년 사업발표… '외연 넓히기' 나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2월 24일 신년사업계획을 밝히고 복지 인프라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 감성문화대학을 설립해 어르신들의 예술문화감각을 한층 높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이 올해는 도서관과 복지관 분관 무악센터 개관을 통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노인 문화 중심 1번지'라는 역할을 부여하고 2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점 사업 계획을 밝혔다. 문화, 건강, 재가복지를 중심으로 노인들의 자긍심을 키우고 지역사회에 환영받는 복지관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정관 스님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환원 활동을 통해 핵심적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삼성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아 올 6월 개관할 한옥형 '별별별 도서관'은 노인 특성화 도서관으로 어르신들의 평생학습장으로 이용된다. 시청각실, 정보검색대를 운영하며 구비된 1000권은 도서대여도 가능하다. 관내 2층 공간을 개조해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추천도서 관련 퀴즈대회, 북아트 체험, 책따라 여행하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종로구 내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분관도 개관을 앞두고 있다. 4월에 문을 열 무악센터는 지역밀착형 소규모 분관으로 무악동, 교남동, 사직동 거주 어르신들이 이용대상이다. 총 5층에 357평 규모로 지어지며 상담, 사회교육, 급식, 컴퓨터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노인자원봉사 저변 확대 계획도 지난해와 같이 이어진다. 장금이봉사단은 메주담그기 등을 세대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아이들에게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담근 장을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나눔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골목길해설사, 낙산지킴이, 도시농부, 에너지절약봉사단 등 노인자원봉사대 150명을 운영한다.

정관 스님은 "어르신들이 봉사활동을 하며 느끼는 보람이 큰 것 같다"며 노인분들 스스로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라고 전했다. "군포교 봉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부터 나선다"며 "봉사기회를 자연스럽게 늘려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노인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장터를 개설해 저소득층 난방비를 지원하는 '복지기금마련 종로장터'와 홀몸 노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1대1로 친교를 맺는 '이웃사촌' 프로그램이 마련된 이유다.

어르신 특성화 한옥도서관 마련
종로 복지 사각지대 위해 분관 개관
작년 이어 감성문화대학·봉사단 운영
어르신 몸·심리 건강 챙기는 교실도

한편 지난 해 개강해 영상, 연극, 음악 등의 노인 문화 교육을 담당해온 감성문화대학도 올해 어김없이 어르신들의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총 60명의 '어르신 대학생'들은 전체 교양필수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수학여행, 발표회 후 졸업하게 된다.

이외에도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건강교실 '낙상 예방운동 -택견' '나트륨&당류 섭취 줄이기 캠페인' '기억력 향상 똑똑이 교실' 등을 운영하며 임종을 앞둔 가족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애도상담 집단 프로그램 '사노라면'을 진행한다. '사노라면'은 애도 감정 해소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의 불안감과 우울감 해소를 위해 올 8월 개설된다.

스마트폰 누가 가르쳐주지?

광진복지관,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강좌

스마트폰을 이리저리 활용하고 싶은데 도무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면?

스마트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에서 휴대폰 활용교육이 이루어 진다.

3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주 1회씩 운영되는 '세대공감! 행복한 모바일 세상'에서는 SK텔레콤 봉사단의 협조를 받아 1:1로 스마트폰 교육이 진행된다.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만 60세 이상 노인 6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내달부터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강좌를 연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측은 "어르신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세대간 교류 증진을 위해 1 · 3세대 통합형 프로그램인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활발한 상호교류를 이뤄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의 02)466-6242 **배현진기자**

저소득 어르신 한약 지원

강북복지관, 장애어르신 한방치료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조석영)이 지역내 보명한의원과 연계해 저소득 장애노인들에게 한방치료 및 한약지원을 실시했다. 2월 18일 복지관내에서 어르신 10분을 대상으로 개별 문진이 이루어졌다. 이어 건강상태, 병력, 병증을 고려한 한약처방도 뒤따랐다.



강북장애인복지관과 보명한의원은 2010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한방치료 및 보약지원을 하고 있다.

보명한의원 조석용 원장은 "약 잘 챙겨드시고 어르신들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나눔행에 동행하고 있는 보명한의원은 연2회 저소득 장애노인 20명에게 개별반춤진료와 한약을 지원해왔다. 하반기에도 10명을 선정해 진료를 할 예정이다.

배현진기자

어르신 무료 틀니 해 드립니다

무료 틀니 사업하는 은평복지관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승자)는 은평구 치과의사협회 소속 치과전문의와 연계해 무료 틀니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어르신으로 치아가 없어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에게 무료 틀니 시술이 이루어진다. 향후 사용시 불편하거나 노후된 틀니는 수선 작업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복지관 1층에서 진행된다.

의치제작이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은 은평노인종합복지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02)385-1351 **배현진기자**

전통식품교육사

전통식품교육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전통식품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전통식품교육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전통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

지부교육원

제기동 02-966-0020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사찰법당앰프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스님들께서 원하시던 꿈의 마이크 탄생!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불자님들께서 주지스님께 올리는 최고의 보시품
(구입하시는 불자님들께는 보시자의 이름을 하단에 넣어드림)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 멋진 모양의 마이크로 법당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가격 : 2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길거리 푸른버들 찡그린 눈썹 물들이네

봉은사 회주 추대 법회

덕민 스님(불국사 승가대학장)

봉은사(주지 원학)는 2월 16일 법왕루에서 회주 덕민 스님 추대법회 '불광보조, 환희와 행운을 창조하다'를 거행했다. 불국사 승가대학장인 덕민 스님은 이날 허응당 보우 스님의 상춘시인 '개창상춘(開窓賞春)-창문 열고 봄 구경' 이라는 선시를 강의했다. 덕민 스님은 선시를 통해 삼라만상의 현상은 우리의 마음으로 그려내는 것이며 상대적 현상세계를 부처님 절대적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 주객(主客)과 능소(能所)가 따로 없는 일원상(一圓相)이며 화엄의 세계라고 강조했다. **정리=이나은 기자**

조선시대는 이른바 숭유억불(崇儒抑佛)의 시대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불교가 극심한 수난을 겪었던 시기는 성종과 연산군 그리고 중종으로 이어진 3대의 70여 년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조선 불교 사상 최악의 암흑기였던 이 시기에 국가는 사찰과 종파를 통폐합했으며, 승적을 박탈하고 승려를 징집하는 등 불교에 대한 탄압과 배척을 정책적으로 지속했습니다.

조선 중기 명종대의 고승인 허응당(虛應堂) 보우(普雨: 1515~1565) 스님은 그러한 시대에 불교 중흥에 앞장서서, 이후 한국 불교의 명맥을 잇게 한 인물입니다.

특히 중종의 계비인 문정왕후(文定王后)의 명을 받아 봉은사 주지로 있는 8년 동안, 보우대사는 선·교 양종을 부활시키고 교단을 정비했으며, 승려 과거제도를 다시 실시하는 등 일련의 불교 부흥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 사후에 그는 유생들에 의해 '요승(妖僧)'으로 몰려 끝내 제주에 유배되어 순교하는 비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400여 년이 지나도록 그는 일방적인 자료로만 매도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허응당집〉을 비롯한 저술들이 다시 빛을 보게 되면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사명 스님은 〈허응당집〉 발문에서 "생각하건대 우리 대사께서는 동방의 외지고 좁은 땅에 태어나시어 백세 동안 전해지지 못했던 도의 실마리를 열어 오늘날 배우는 자들이 이에 힘입어 그 돌아갈 바를 얻게 하시고 이 도로 하여금 마침내 사라지고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니, 이 분이 아니었더라면 영산의 풍류와 소림의 가락이 거의 멈추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상고하여 논하건대, 천고에 홀로 오셨다가 홀로 가신 분이라 하겠다"라며 구구절절이 보우 스님에 대해 썼습니다.

영산의 풍류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님이 영산에서 설법을 하시는데 하늘에서 네 가지 꽃이 비 내리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였습니다. 이에 가섭이 빙그레 미소 지으니,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정법안장(正法眼藏)이 있는데 마하가섭에게 전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이 염화미소 속에는 일체중생이 다 원만한 진리를 구족하고 청정한 법신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가섭존자만이 정법안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만 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원만한 진리를 구족하고 청정한 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해준 것입니다.

불교는 생명이고, 광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면 세상이 바르지 못합니다. 마음이 탁하면 세상이 탁하고 마음이 바르면 천지가 바르게 됩니다. 전부 내 마음을 깨닫고 깨닫지 못하느냐 그 갈림길에서 선과 악이 벌어집니다. 지옥과 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섭존자는 염화미소를 통해 불교에서 최고의 진수를 통째로 드러냈기에 부처님은 가섭존자에게 대표로 정법안장을 준 것입니다.

그 가섭존자의 미소 속에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다 들어있고, 갖춰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과 나하고 2500년 시공 차이가 있지만. 그 염화미소나 그 정법안장 속에는 시공(時空)이 떨어진 자리이며, 삼라만상의 차별이 끊어진 절대적 진리의 세계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세계에서 절대적인 자리에 앉아있고, 설법할 땐 상대적인 차별의 모습으로 내려와 절대적인 진리를 보입니다. 삼라만상의 모습으로 하여금 차별이 끊어진 절대적인 세계를 열어놓고 쓰다듬고 다 들어오게 합니다. 그 영산의 풍류가 중국에 와서 선문염송이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시 강의를 들을 때는 염화미소 차원인 절대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이 몸뚱이 의식과 세속적인 지식 철학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창문열고 봄구경하다

春風吹颺竹房寒(춘풍취출죽방한)
轄開禪窓賞物歡(할개선창상물환)
氷泮喜聞深澗響(빙반희문심간향)
雪銷驚見遠山顔(설소경견원산안)
靑歸巷柳顦眉染(청귀항류빈미염)
紅入園桃笑額班(홍입원도소액반)
賞極醾然閑擧首(상극번연한거수)
烟中蒼翠數峰巒(연중창취수봉만)

봄바람 불어 대나무방 찬기운 몰아내거늘
선방 창문 활짝 열고 봄을 감상 한다
얼음 풀려 졸졸 시냇물소리 즐겁게 들으며
눈 녹으니 깜짝 놀라 먼 산 얼굴을 본다
길거리 푸른 버들 찡그린 눈썹 물들이고
뜨락에 붉은 빛 복사꽃에 붉은 반점 만드네
한껏 구경에 빠졌다가 다시 눈을 돌리니
어느새 푸른 산봉우리 저녁노을에 빠져드네

보우 스님이 봄나들이를 가서 청평사에서 지은 개창상춘(開窓賞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창(窓)을 열어놓고 봄을 감상(感想)한다는 것입니다.

겨우내 추위에 움츠려 문을 꼭꼭 닫아놓고 지내야 하는 인고의 세월에서 봄이 오자 문을 열어 봄을 맞이 합니다. 봄바람이 선방의 추위를 몰아내었다 함이 이 시의 도입입니다. 춘풍(春風)과 추위(寒) 맞대응의 글자가 한 공간에 있어 하나의 유입과 하나의 퇴출로 봄을 시작시킨 것입니다. 추운겨울에는 삼라만상의 모습이 웅크려 있지만 그 가운데는 삼라만상의 이치가 또한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선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을 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체(體)를 좇아서 용(用)을 일으키고 용을 포섭해서 체로 돌아가며, 본바탕 진리에 의해 현상적 차별의 세계를 비춰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캄캄한 밤에 달이 비추고 아침이면 동산에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으며 봄바람이 불어 차가움을 몰아내는 것은 자기 자신의 뜰에 봄바람을 의미합니다. 선에서는 내가 봄바람이다 하면 내가 봄바람이 되는 것이며 모든 상, 모든 사물의 모습을 하나로 찍어 보기 때문에 내 모습과 삼라만상, 주관과 객관, 능소의 관계를 좁힙니다.

선에서는 의식구조를 벗어버려야 큰 살림살이가 꽃힙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 우주에 충만해 있으며 내 것이라는 상대적 차별세계에 꽉 차 있으면 절대적 평등의 진리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우 스님의 상춘시는 우리의 마음이 청정한 진리의 세계에 안주해 있다가 한 생각 일으키니 세상사 진리를 똑바로 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내 소리가 커진 것을 알고 보니 얼음이 녹은 것을 알고, 먼 산의 얼굴이 드러나니 눈 녹은 것을 압니다. 얼음[氷]과 눈[雪]의 대칭은 겨울과 추위라는 동질적 속성이기에 이질감이 없지만 깊은 시내나 먼 산의 대칭은 상하의 위치가 극명한 대립이고, 듣다[聞] 보다[見]의 대칭도 청각 시각의 뚜렷한 맞물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과 긴장을 함축시키는 문학적 수사의 묘미입니다.

여기서 살필 것은, 얼음이 녹기 전에는 물소리가 안 들리지만 얼음이 녹으니 깊은 시냇물 소리가 들리고 심장 속에 맴돌고 흐르는 것입니다. 눈이 녹기 전에는 산과 눈이 똑같았는데 눈이 녹으니 눈 속에 갇혀 있던 산의 푸른 빛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청정한 진리에 안주해 있다가 한 생각 일으키니까 얼음이 녹고 계곡 물소리가 심장에 맴돌고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의 동(動)과 정(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문에 "임수지문수 이산지견산(任水之聞水 以山之見山)"이란 글이 있습니다. 내가 물을 보고 물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물이 제소리를 듣고 산이 산을 본다는 것은 자연과의 합일이며 능소 관계가 끊어지고 주관과 객관이 없는 자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서 깨닫고 확신하면 세상사 진리를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푸르름이 돌아오다[靑歸]와 진홍빛 들다[紅入]의 수사를 보면, 정적 색깔을 동적 움직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기 위해 유인해 온 것이 버들잎이요, 복사꽃입니다. 버들잎의 가느다란 모습을 상징하려 동원된 것이 찡그림[顰]이고 복사꽃의 환함을 상징하려 함이 웃음[笑]이다.

보우 스님의 '개창상춘' 시는 깨달음의 세계에서 읊은 시입니다. 봄바람이 불 때는 마음을 내서 삼라만상에 젖어보고 눈구경, 물구경, 길거리 버드나무 잎새, 뜨락의 복사꽃을 실컷 그림 그리고는 다시 본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저녁노을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부처님 절대 진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차별의 세계에 나와서 돌아갈 줄 모릅니다.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갈 줄 모르는 것이죠.

불교는 그냥 읽고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상상하고 깨닫고 접촉해서 화엄의 세계에서는 모두 같이 어우러져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을 보면 내 자신이 눈이 되고 산을 보면 산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하므로 선에서는 집필묵(執筆墨)이 필요치 않습니다.

동양의 선시 구절은 사계절 모습 하나하나가 전부 실상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입니다. 절대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없고 자식과 부모 국가 무리가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덕민 스님은 … 13살 때 우룡 스님을 은사로 동진 출가해 1965년 청암사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하고, 고봉 큰스님과 우룡, 고산 스님 문하에서 정진한 학승이다. 절집에서의 정진에만 머물지 않고 공부를 위해 1972년에는 태동고전연구원 15년간 사서삼경을 수학했으며, 1973~87년에는 추연 권용현 문하에서 한학을 사사했다. 1970년에 법주사 강사, 1988년 쌍계사 강주를 거쳐 범어사 강주를 지냈고, 현재는 불국사승가대학 학장으로 있다. (사진제공=봉은사)

의식구조 벗어버려야 큰 살림살이 가능
내 마음은 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 우주에 충만해 있어

상대적 차별 세계에 꽉 차 있으면
절대적 평등의 진리 볼 수 없어

보우 스님 상춘시는
내 마음이 청정한 진리에 안주하다
몰록 한 생각 일으켜 진리 있음 알려줘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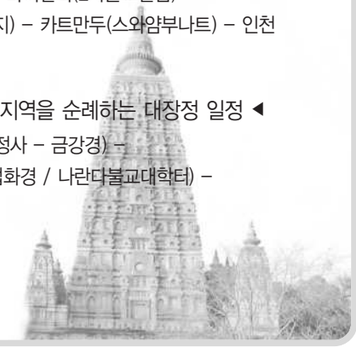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法·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능엄경/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종립대학, 아시아 불교대와 네트워크 활발

동국대 · 스리랑카, 금강대–파키스탄과 교류 협정

동국대와 금강대를 비롯한 종립대학들이 아시아 지역의 불교권 대학과 학술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금강대(총장 정병조)는 2월 13일 파키스탄을 방문해 콰이드이아잠(Quid-i-Azam)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권탄준)도 탁실라 아시아문명연구소와 교류협정을 맺었다.

금강대는 "이번 협정은 불교학 연구 및 아시아 문화교류사측 연구 및 교육역량 증대, 금강대 학생 교류, 간다라 지역 공동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콰이드이아잠 대학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소재하는 파키스탄 명문대 가운데 하나이다. 동서문화 교류의 중심지였던 간다라 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아시아 문화 교류 및 아시아 문명 연구에 강점을 갖고 있다. 탁실라박물관은 파키스탄 소재 라호르박물관, 페샤와르박물관과 많은 간다라 유적을 갖고 있다.

금강대 관계자는 "불교 유적지 및 고고학적 발굴을 담당하고 있는 탁실라 아시아문명연구소와의 협정은 관련지역 연구가 미비한 국내 학술계에 새로운 학술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문한국(HK)사업의 아젠다에 맞춘 연구성과물 출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강대는 2005년 중국 북경대 · 일본 대정대에 이어 대만 불광대 · 중국 불학원 · 일본 도요대학 등과 학술협정을 맺은 바 있다. 2006년 8월에는 파키스탄 펀자브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이 대학 도서관의 인도학 · 불교학 관련 사본을 국내 최초로 본격 입수하는 '울너(A. C. Woolner) 컬렉션 디지털화 사업' 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학술교류 움직임은 최근 동국대의 움직임에서 촉발됐다.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2월 3~5일 스리랑카 켈라니아(Kelaniya) 대학과 페라데니아(Peradeniya) 대학을 잇따라 방문해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동국대와 스리랑카 대학 간의 학술교류 협정은 남방불교 전통을 갖고 있는 스리랑카의 대표적 대학과 대승불교 전통의 대학 간의 핵심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동국대는 지난해 동북아시아 4개 대학



지난 5일 스리랑카 현지에서 학술교류 협정(MOU)를 체결한 김희옥 동국대 총장(왼쪽)과 페라데니아 대학 관계자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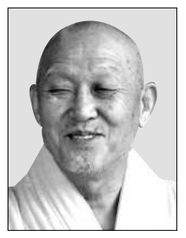
(동국대, 도쿄대, 베이징대, 대만 국립대) 학술 네트워크를 구축한데 이어, 향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태국 등의 남방불교권 주요 대학으로 관련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소위 아시아불교대학 네트워크(Asian University Network of Buddhist Studies)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교류협정을 체결한 페라데니아대학(Univ. of Peradeniya)은 1942년 설립된 스리랑카의 공립대학으로 8개 학부 2개의 대학원 연구소, 10개의 센터와 73개 학과를 거느린 스리랑카의 주요 대학중 하나다. 켈라니아대학(Univ. of Kelaniya)은 1857년 설립된 공립대학으로 과학과 의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경영학 등을 주요 학문분야로 하고 있으며 스리랑카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교류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종욱 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은 "불교가 중심이 되는 이러한 사업들은 불교학의 활성화 차원을 넘어 국가 간의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중앙승가대, 종림 스님·주영운 이사장 名博

한국불교발전과 인재양성 공로



종림 스님



주영운 이사장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과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이 2월 27일 김포 중앙승가대 본관 자비관에서 열린 2014 학위수여식에서 한국불교발전과 인재양성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종림 스님은 1996년 세계 최초로 고려재조대장경을 전산화했다. 2010년 초조대장경 복원간행위원회를 한일 공동으로 구성하고 초조대장경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주영운 이사장은 중앙승가대 교수들과 학인스님들에게 연구비,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인재불사에 큰 힘을 보태왔다. 1991년 서울시 교육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행원문화재단을 통해 불교사상을 토대로 문학이나 예술, 경전번역에 앞장선 불자들을 선정해 역경상, 문학상, 예술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호연 스님(제8호), 수암 스님(제9호), 보운 스님(제10호) 등 3명의 박사 학위자가 나왔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불교대학 8년 만에 교수 임용

김영진 교수, 경주캠퍼스에서 천태학 전공 담당



김영진 교수

동국대가 8년 만에 불교학과 신임교수를 충원했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2월 19일 이사회를 열고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 불교학과 교수로 김영진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45)를 임용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은 2006년 권기종 교수가 정년퇴임한 이래 7년간 11명의 교수가 정년퇴임했지만 교수 충원은 전무했다.

경주캠퍼스의 경우 2007년 천태학을 전공한 김영길 교수 퇴임 이후 8년 만이다. 김영진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근대 중국사를 전공한 김영진 교수는 '중국 근대불학의 사상기원', '중국근대 진화관념의 불교적 대응', '중국 근대 정토신앙의 세 가지 경향과 그 시대성' 등 연구를 진행했으며 '근대중국사상사약론', '근대중국의 고승' 등을 저술했다. 김 교수는 3월부터 대승불교개론과 천태학강좌 전공 6학점을 담당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한국의 사지〉 강원 · 경남 · 전북편 발간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안)와 함께 강원 · 울산 · 경남 · 전북 지역의 폐사지(廢寺址) 558개소에 관한 문헌조사, 정밀 현황조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집대성한 〈한국의 사지(강원 · 울산 · 경남 · 전북 편)〉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에는 강원 · 울산 · 경남 · 전북 지역의 폐사지에 관한 현장조사를 통해 사역(寺域), 식생(植生), 유구 · 유물 현황,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좌표 등 다양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수록됐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는 과거 해당 사지에 존재했으나 현재 다른 곳에 보관 중인 문화재의 사진을 수록하여 사지의 역사적 · 학술적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주요 석탑은 3D스캔을 시행하여 관련 자료를 수록했다. 또 지난해 처음으로 제작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사지 분포현황 지도' 를 올해에도 별책 부록으로 넣었다.

이 학술조사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에 산재한 폐사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물은 앞으로 사지의 체계적 보존 · 관리와 활용방안 마련 등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는 사업의 마지막으로 대전 · 충남 · 충북 지역의 사지 1,367개소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대학도서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 전문이 게재된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정화에 대한 새로운 조명 필요"

김광식 교수, 한일불교유학생協 세미나서 강조



"조계종 정화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정화 이념에 대한 정의나 이에 대한 연구에 대한 관심이 전무하다."

김광식 동국대 교수〈사진〉는 2월 20일 한일불교유학생협회가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개최한 동계세미나에서 '불교정화운동 연구, 회고와 전망' 발표에서 정화이념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조계종의 경우 개혁만 있지 정화이념에 대한 조명이 없다. 조계종 · 태고종 모두 정화운동사가 단 한권도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화운동 관련 연구가 미진한 이유는 근현대 한국불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적기 때문"이라며 "문도회에서 큰스님 선양을 중심으로 한 주문에 의해 조명이 이뤄지다 보니 전체적인 조명이 없고 연구자도 연구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화운동에 대한 연구가 현재 객관성과 비판성이 없이 긍정적으로 보는데 치우쳐있다"며 "정화운동 이념은 타당성을 갖췄지만 그 실행에 있어 폭력성이 개입됐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정화운동의 모순점에 대한 연구도 진행돼야 한다"며 "정화운동 과정에서 소외된 스님들과 재가자로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결국 정화운동은 대처승, 산중공의제와 원융살림의 파탄, 사찰공동체 파괴 등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진행된 개혁불교와의 연관성 · 차이점 등을 찾는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한편, 이에 앞서 한일불교유학생협회는 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홍선 스님(범어사 교수사)을 추대했다.

홍선 스님은 13세인 1953년 지효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5년 경남대 종교학과를 졸업했다. 일본 하나조노대, 붓쿄대 석박사 과정, 도쿄대 연구생 등으로 일본에서 13년간 공부했다. 1980년 도미해 시카고 불타사를 중창한 스님은 1992년 귀국해 중앙승가대 교수 등을 지냈다. 현재 범어사 교수사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현해 · 인환 · 월탄 스님을 비롯해 30여 회원들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문화강좌, 3월 19일부터 개강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덕문)은 3월 19일부터 총 10회에 걸쳐 서울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문화강좌를 개설한다. 강좌는 불교신도를 포함한 일반인과 승려연수교육(30점)을 필요로 하는 조계종 스님, 불교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 불교 스님 특강 △영화와 세계유산으로 본 불교 △불교회화 심화 연구 등 세 분야로 나눠 10개 강의로 진행된다.

불교중앙박물관은 "불교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일반대중의 이해를 돕고 저변 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 총5회에 걸쳐 불교문화강좌를 열어왔다"며 "이번에는 불교문화와 한국불교, 문화재에 대한 안목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강좌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학 제65집' 원고 모집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학회지 〈한국불교학 제70집〉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한다.

원고 모집 분야는 불교교학과 불교사학, 응용불교 등 3개 분야이며 원고 마감일은 4월 15일 오후 5시까지이다.

원고는 심사비와 연회비 납부 회원에 한해 주어지며 학회지는 내년 6월 30일 발행될 예정이이다. (02)2260-3835

노덕현 기자

제 3기
영남범음범패 학인모집

▣ 개 강 일 : 2014년 3월 4일 화요일 오후2시
▣ 기본과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사물다루는 법
▣ 중급과정 : 시다림,49재의식, 천도재의식, 점안의식
▣ 고급과정 : 오공양무,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교육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6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음
▣ 강 주 : 상일 스님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향 운 교육부장 상 일 합장

◈ 장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 2리 376~3 (고왕사)
◈ 전화 : (총무원) 052) 262-6857 010-9707-8850

웰빙 힐링 빌리빙
깨달은 108배
표정+자세+동작+호흡법+동작알아차림+염불대입+깨달은 절
700만배 청견스님 깨달은 절수행 완전공개
완벽하게 절하면!
만병통치유
깨달은 절수행 배우시고
부 처 님 가 피 100%
건강소원성취 100%
♣ 스트레스 0 불면증 100% 피로즉석 우울증 냉병 화병 상기병은 같은병
절교육 절수행 점검 상담 ☎010.3487.0035
www.법왕정사.net
• 주 소 : 대구 수성구 매호동 1344-23 다비치 5층
• 오시는길 : 지하철 2호선 신매역 1번출구 1분 수성 I.C 5분, 경산 I.C 10분

新 영성(정신성) 향상법
수련회원 모집 (제3기)
회원대상 영성(정신성)의 수준을 높여 生死一如와 무주처 열반의 경지에 살면서 더욱 높은 과학적 포교에 힘쓰려는 스님, 재가자 특히 재발을 두려워하는 암환자 분들 환영
수련기간 2014년 3월 6일(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하루 3시간씩 (오후 2 ~ 5시) 2개월. 회비 30만원. 수료증 수여. 인원제한 있음.
수련학습 내용 영성의 중심기둥 세우기 수련
브라이언 박사의 스트레스 힐링(듣기명상) 수련
프랭크 킨슬러 박사의 순수자각과 유필링(행복감) 수련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과 초월적 성장론
윤회전생과 카르마 (자기동일성)의 영속성
영적 존재 화이트 이글과 실버버치의 영적 가르침
운명을 개척하는 유전자 활성화법
뇌에서 스트레스를 지우는 종합기법
아리타 히데호 교수의 세로토닌 신경 활성화 걷기법 등
감동뇌, 공감뇌를 활성화하는 매일매일의 생활법 등
「레이키(氣치료법)」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레이키교육 단체
현 대 생 활 레 이 키 연 구 회
02)720-5682. 010-8392-2557
www.reiki.co.kr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새 불교운동 전개

전북불교계, 힘모아 2월 22일 전북생명평화센터 개소

전북불교시민연대 등 단체 입주
사찰음식·명상체험 운동 전개
무료급식소 마련 나눔 활동도

'천천히 함께 생명평화' 라는 슬로건아래 전북지역에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전북불교시민연대(공동대표 곽인순, 오종근, 유지원, 김진병)가 전주시 금암동에 전북생명평화센터를 마련하고 2월 22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 전북불교대학 학장 도원 스님, 보륭 스님,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송하진 전주시장, 유성엽 국회의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300여 대중이 참석해 전북생명평화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도영 스님은 축사를 통해 "마음이 평화로워야 세상이 평화롭다"며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이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종근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전북생명평화센터를 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불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대중불교운동의 실험을 통해 더불어 사는 생명평화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금암동 두산아파트 상가에 300평 규모로 마련된 전북생명평화센터에는 전북불교시민연대, 자연음식문화원, 전북불교연합대책위, 전주 우리는 선우, 생명나눔실천전북본부(준), 붓다로살자 전북모임, 생명평화생협(준), 식생활교육전주네트워크등의 단체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전북생명평화센터에서는 사찰음식강좌를 위한 음식체험관과 실습실, 학생식생활교육실, 대강당, 소회의실, 생명평화법당, 명상 ‧ 다도체험관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생명평화센터는 무료급식소를 마련해 이를 통한 나눔 운동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센터 대관과 사찰음식을 위주로 하는 수익사업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센터 개소식에 이어 2월 22~23일 양일간 개최된 바자회에서는 회원들이 직접 만든 조청, 유자청, 오미자차, 연잎차등 자연사찰음식에서부터 천연염색 스카프, 천연효소비누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건강한 음식위주의 먹거리장터도 진행되어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전북생명평화센터에 입주한 자연음식문화원은 불교시민연대와 함께 장애아동 체험학습, 주말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요리교실, 이주민여성과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전통음식교육, 무료급식지원활동, 학교영양사대상 채식교육, 대학생 채식요리 경연대회 등을 개최해 왔다.

자연음식문화원은 향후 사찰음식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적응해나갈 것에 대한 꾸준한 고민과 실험을 전개하는 한편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강좌를 통해 자연음식 연구와 친환경급식운동 등 식생활개선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생명평화센터의 개관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불교생명평화운동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생명평화센터 개소식에서 불교NGO단체 대표들이 활발한 생명평화 · 나눔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송광사 2월 27일 '전등율맥 전계법회'



승보종찰 송광사(주지 무상)는 지난 27일 대웅전에서 '전등율맥 전계법회'를 개최하고,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 율주 지현스님에게 이어진 율맥을 성원스님, 연광스님을 비롯해 9명의 전법제자에게 법을 전달했다.

이날 율맥을 전달받은 성원스님(제주 약천사 주지), 연광스님(광주 증심사 주지), 오산스님(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 율감), 여운스님(진관사 주지), 동일스님(광명 금강정사 주지), 법등스님(서암정사 주지), 화진스님(김포 반야정사 주지), 석두스님(광주 광제사 주지), 덕우스님(무안 목우암 주지) 등 전법제자들은 계율을 근본으로 삼아 수행정진에 매진할 것을 서원했다.

행사는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인사말, 헌향, 고불문(전계사), 약력소개, 헌다·헌화(전법제자), 청법게, 전법계 수여, 서원문, 축사, 전법제자 대표인사, 사홍서원으로 진행됐다.

송광사 주지 무상스님은 인사말에서 "요즈음 한국불교는 승가의 본연의 모습이 흐트러지고 가풍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번 전수식을 통해 앞으로 송광사의 승풍이 살아있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율맥을 전한 지현스님은 법문을 통해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은 수없는 생을 통해 선근을 심은 사람이다. 계율은 마음이 근본이며,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이다"라고 말하며, "깨달음을 위해서는 계율이 기본이 되어 삼학(계·정·혜)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현스님은 지난 2005년 보성스님으로부터 율맥을 전수받아, 송광사 율주, 조계종 고시위원, 조계종 계단위원, 단일계단 교수사 및 존증사, 부산 관음사 주지를 역임했다.

이날 전계법회에는 해인사 지행스님, 만일스님, 스리랑카 난다스님을 비롯해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전법제자를 대표해서 성원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전승을 한다는 것은 앞선 좋은 것을 잘 받아 후대에 넘겨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며, "서로를 견책하며 보다 나은 부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여수 청암사, 전주소년원 교정교화활동


지암 스님이 소년원원생들과함께 식사하며 이들을 격려하고 있다.

해동불교임제종 여수 청암사 지암 스님과 청암사 신도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해오던 방생법회를 전주 송천정보통신학교(전주 소년원) 보호소년들을 위한 교화활동으로 대신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암 스님과 청암사 불자들은 2월 23일 전주소년원(원장 장인기)에서 보호소년의 교화활동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도우미로 나서기로 하고 청소년의 보호 지원을 통한 비행 예방활동을 펼쳤다.

지암 스님과 법무부 청소년보호협회 나용수 회장, 청암봉사 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청암사 불자 50여명이 동참한 이날 행사에는 120여 명의 보호소년들에게 집에서 준비해간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자매결연 한 청소년들의 고민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수 청암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봉행해오던 물고기와 날짐승을 살려주는 방생법회에서 벗어나 사회에 그늘진 곳을 찾아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펼치는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소년원이나 교도소를 찾아 재소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기로 했다.

지암 스님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청소년들은 가족과 주변의 무관심속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며 "정에 굶주린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불교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암봉사협의회는 광주 소년원, 대전 소년원 등 전국 소년원을 찾아 멘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곡성 성륜사. 금타스님 열반다례재 봉행


금타 스님 열반다례재에는 문도회 회장 용타스님을 비롯해 300여명의 대중이 동참했다.

근대불교의 큰 어른이셨던 벽산당 금타스님(1898~1948)의 66주기 열반다례재가 봉행됐다.

곡성 성륜사(주지 광전)는 지난 5일 경내 법성당에서 벽산 문도회 의장인 용타스님, 벽봉 스님, 무상 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들과 신도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다례재는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행장소개, 보리방편문 봉독, 종사영반, 헌다, 헌화, 문도대표 인사가 진행되었다. 용타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큰스님의 수행정진과 깨달음의 내용은 많은 후학들이 배워 정진하자"는 인사말을 말했다.

이날 주지로 취임한 광전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성륜사는 마음의 고향같은 곳이다. 모든 분들에게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스님은 이어 "산내에 있는 출가자, 재가자 선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례재가 끝난 후 정운당에서는 벽산문도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 1년예결산과 사업안에 대한 결의가 진행됐다.

한편 금타 스님은 1919년 장성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교학과 참선을 두루 공부했다. 지난 1936년 백양사 운문암 동안 거 수행시절 '원각경 삼정관의 이십오 청정법륜으로 용맹 정진했다. 부안 내소사 월명암에서 지낸 한차례 안거를 제외하고는 10여 년간 내장사 벽련선원과 백양사 운문선원에서 정진했다.

전북불교대학 불기 2558년도 졸업식



전북불교대학(학장 도원)이 2월 23일 완산불교회관 4층 큰 법당에서 불기 2558년도 졸업식을 개최했다. 불교학과 25명, 법사과 15명의 불자가 졸업한 이날 졸업식에는 천상호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동문들과 졸업생가족 100여명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했다.

학장 도원 스님은 졸업사를 통해 "불교대학을 졸업하는 이 시간이 부처로 살 수 있는 용기를 다지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며 "모든 사람들이 중생을 벗어나 부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전법과 포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불교학과 박상태, 법사과 이충호를 비롯한 학업성적이 우수한 졸업생들에게 표창장이 수여 됐다. 한편, 1988년 설립돼 3,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전북불교대학은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문호를 개방하고 부처님의 교리와 불교역사 등 1년간의 교과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물처럼…〉 부산불교 100년사 발간

故 정금강행 보살의 유지 받들어 편찬 간행

부산불교 100년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출간되어 눈길을 끈다. 부산불교100년사 간행위원회(법주 정관 대종사, 편집위원장 현익채 전 금정중학교 교장)는 2월 26일 협성뷔페에서 '부산불교100년의 발자취 물처럼 살거래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영주암 회주 정관 대종사를 증명 법주로,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스님을 비롯 대한불교조계종연합회 회장 수진 스님, 국청사 계전스님,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김법혜 스님, 원효불원 김용태 스님, 법륜사 선래스님, 태고종 부산종무원 경담 스님 등 스님들과 류진수 , 안성이, 박만탁, 왕선자, 하정선, 김윤화, 임채수 등 부산불교를 이끌어 온 대표적 재가불자들, 편집부위원장이자 고 정금강행보살의 유가족 박익민 부산대학교 교수, 노봉호 동명대학교 교수가 참여 했으며, 김석조 부산시의회 의장, 임혜경 부산시교육감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해 출간의 의미를 함께 했다.

부산불교 100년사 편찬사업은 지난해 고인이 된 전 관음선행장학회 이사장 정금강행 보살의 업적을 추모하고 그의 평소 유지를 받들기 위해 아들 박익민 부산대 교수, 손녀사위 노봉호 동명대학교 교수 등 가족들의 발원으로 시작되어 8개월의 기간에 걸쳐 출간을 맞이했다.

간행을 위해 법주에 정관 대종사, 편집위원장에 현익채, 부위원장에 박익민, 주영배, 노봉호 교수가 참여 했으며, 부산지역의 대표적 신행단체와 사찰들이 자료를 협조했다. 정관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역사를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다는 신채호 선생의 말처럼 부산불교100년사의 출간은 미래불교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야 한다"며 "한 평생 부산불교 발전에 헌신한 고 정금강행 보살의 유지가 후학들에게 쉼 없는 정진과 한결같은 발원으로 물러서지 않는 강한 신심을 일깨워 줬다"고 말했다.



부산불교100년사 간행위원회는 2월 26일 협성뷔페에서 부산불교100년의 발자취 〈물처럼 살거래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현익채 前 금정중 교장
편집위원장으로 발행
불교 발전에 기여 기대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은 축사에서 "부산불교의 탄탄한 힘은 개미군단의 불교단체들에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산 재가불교계의 산증인인 故 정금강행 보살님은 신행과 자비행의 모범 불자였다"며 "오늘 발간한 100년의 발자취는 복덕과 원력이 충만했던 정금강행 보살의 문자사리로 향후 부산불교의 발전과 공덕이 널리 회향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故 정금강행 보살의 손녀사위 노봉호 동명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삼귀의례, 묵념, 경과보고, 발간사, 법어, 축시, 축사, 서평, 학교 박익민 교수는 발간사를 통해 "〈물처럼 살거래이〉는 어머니께서 평소 좋아하시던 경봉 스님의 말씀으로 '사람과 만물을 살려주는' , '갈 길을 찾아 쉬지 않고 나아가라' 는 가르침을 담은 것이다"며 "어머님의 평소 좌우명이었던 가까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라는 부처님의 자비실천의 정신이 후세대에도 영원히 지속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부산 강서구불교사암연합회 창립

2월 26일 강서구 청량사

부산 강서구불교사암연합회 창립법회 및 회장 취임식이 2월 26일 강서구 명지동 청량사 대웅전에서 개최됐다. 신임회장에는 강서구 청량사 주지 운암 스님이 취임했다.

이날 법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을 비롯해 사무총장 심산 스님, 기장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을 비롯 김도읍 국회의원 등 지역 기관장과 사부대중 2백 여명이 동참했다.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청량사 주지 운암 스님은 "오늘 창립을 계기로 화합된 승가를 이루고 재가불자는 삼보외호로서 강서불교와 지역사회 발전의 사표를 이룰 것"이라며 "존경받는 승가, 실천하는 재가, 발전하는 불교가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자비와 나눔, 그리고 자성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은 격려사에서 "강서불교사암연합회가 강서구의 복지사업과 낙동강 환경정비 사업 등 공익적 활동은 물론 사회적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부산불교계를 선도하는 모범적인 연합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강서구불교사암연합회 창립법회 및 회장 취임식

신임집행부는 회장 운암 스님(청량사), 수석부회장 황원 스님(보광선원), 수석부회장 청원 스님(강서예술원), 상임부회장 연담 스님(용화사), 부회장 정과 스님(문수암), 부회장 혜법 스님(법장사), 부회장 진종 스님(대성암), 사무총장 평산 스님(산양사), 기획실장 자인 스님(길상사)이 각각 내정됐다.

한편, 부산 강서지역에는 42개의 사찰이 있으며 이 가운데 26개 사찰이 사암연합회에 가입했고 나머지 사찰도 추후 가입의사를 밝힌 상태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부산 영도구불교연합신도회 창립

2월 25일 영도 발원사

부산 영도구 불교연합신도회가 2월 25일 영도 발원사에서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신임회장에는 영도 백련사 전 신도회장 김희윤씨가 취임했다. 창립법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스님과 영도구 사암연합회 수석 고문 정각 스님, 발원사 주지 호법 스님을 비롯해 영도구 불교연합신도회 김희윤 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희윤 초대 신도회장은 "신도뿐 아니라 영도 주민들에게 불교 정신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자비와 봉사에 앞장서는 신도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임 포부를 밝혔다.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은 법어를 통해 "착하게 사는 것이야 말로 부처님의 공덕이다. 새로창립한 신도회가 영도지역민들을 위한 선한 인연의 씨앗을 뿌리며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도구불교연합신도회는 이번 창립을 기념해 영도구청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3백만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영도 사계절산타 지원사업을 통해 영도구 관내 저소득 주민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부산 영도구 불교연합신도회가 2월 25일 영도 발원사에서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대구 보현사신협 정기총회

2월 26일 대구향교 강당서

대구 보현사신용협동조합(이사장 지성)은 2월 26일 대구향교 대강당에서 제2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보현사신협 서일영 전무이사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와 내빈소개와 함께 영덕 일도사 주지 원각 스님은 '조합연혁보고' 발표를 진행했다.

대구 보현사신협은 지역불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1987년 '대한불교 승가신용협동조합' 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현재 제8대 전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이 이사장에 이르기까지 총자산 500억을 달성하고 있는 우수조합으로 성장했다.

조합은 그동안 우수조합원들을 선발 '그곳에 가고 싶다' 의 해외성지순례(4차)와 전국가족찬불가 경연대회, 불자장학금전달 등 지역불자들에게 이익금을 회향하고 있다.


대구 보현사신협 정기총회

이사장 지성 스님은 기념사로 "보현사신협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도덕적 규범에 맞게 사물을 올바르게 보고 생각을 바르게 가져 불자님들은 물론 대구시민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념과 사상이 분명한 보현신협이 되길 위해 임직원 모두는 더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회장의 격려사 후 우수조합원들의 표창장 수여가 이어졌다. 제2부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심의가 통과 되었다. 이어 행운권 추첨을 하고 사홍서원으로 폐회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은해사, 법전 대종사 추모다례재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2월 25일 고경당 법전 대종사 68주기 추모다례재를 지냈다.

이 자리에는 문도대표 혜인 스님, 법타 스님, 혜국 스님, 돈명 스님, 돈관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문도대표 혜인 스님은 "동안거 해제가 10일이 지난 오늘, 문도스님들이 함께하여 조사전에서 재를 모시게 되어 기쁘다"며 "문도들도 화합하여,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양보하여 만족하며 수행에 원력을 세워 가지"며 법전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법전 대종사 추모다례재

삼광한글학교, 초등학력인정 기관 선정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 부속 삼광한글학교가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2014년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학교' 로 지정됐다.

삼광한글학교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1단계 지정' 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삼광한글학교는 2단계와 3단계까지 지정받아 초등학교 졸업 인정교육기관으로 거듭나 만학도들의 품에 졸업장을 안겨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광한글학교는 1993년 2월 19일 남대충 종정예하의 증명으로 1기생 290명의 학생이 입학했다. 개교 이래 2013학년도 제 22회 졸업식까지 총 1,529명의 학생들을 졸업시켰다.

삼광한글학교는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한글학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관심과 신심고취와 학습능률 향상을 위해 봄, 가을에는 성지순례와 시화전, 백일장 등을 해마다 실시해 왔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부산연등축제조직위 봉축결성법회

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는 2월 27일 부산코모도호텔에서 봉축결성법회를 개최하고 2014부산연등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스님(금정총림 범어사 주지)은 대회사를 통해 "부산연등축제가 부산문화관광의 아름답고 장엄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내외국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합심 노력하자" 고 강조했다.


코모도호텔 봉축결성법회 장면

박경수 부산지사장

고려 민초들의 간절함이 깃든 '산중포교당'

마애불이 있는 사찰 - ① 북한산 삼천사

서울 삼각산 삼천사 마애불님 태어나서
코가 뭉개지도록 수행만 했을 텐데
아직 닦아야 할 무엇이 있다는 건지
반쯤 눈감고 무량무궁한 명상에 잠겨 계시다

– 시인 홍사성 '염화미소를 읽다' 중에서

갸름한 얼굴에다 도톰한 눈두덩과 가는 눈. '다 똑같이 생긴' 다른 불상과는 사뭇 달랐다. 1000년이 훨씬 넘는 세월에 그 앞에선 중생들의 간절한 기도를 저렇듯 자애로운 표정으로 받아냈으리라.

북한산에는 다양한 마애불이 있다. 그 중 은평구 진관외동에 위치한 삼천사의 마애불은 북한산에서도 몇 안 되는 고려시대 초기 마애불이다. 북한산에서 고려시대 마애불은 이 곳 삼천사마애불, 승가사 마애불, 옥천암마애불, 보타사마애불 단 네 곳밖에 없는데 이중 삼천사 마애불이 가장 오래됐다.

보물 제657호인 삼천사 마애불은 서울 근교에 있는 마애불 중에서도 가장 균형 잡힌 마애불로 꼽힌다. 늘씬하게 균형이 잡힌 마애불 입상의 몸매는 단정하고도 우아하다. 오른손은 자연스레 내리고 왼손은 배 앞에서 받쳐 든 모습인데, 석가모니의 성도(成道)를 상징하는 수인이다. 태양의 각도에 따라 비쳐지는 모습이 다르니 옛 선조들의 조각기법이 얼마나 뛰어난지 탄복이 쏟아진다. 마애불 앞에서면 저절로 공경심이 든다. 등산을 하던 등산객들도 마애불 앞에서는 공손히 손을 모은다.

이 마애불의 가치가 드러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1970년대 현재 삼천사의 주지를 맡고 있는 평산 성운 스님이 부임하며 경내에 위치한 마애여래입상이 천년 고불(古佛)임을 입증해 1979년 보물로 지정받았다.

성운 스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30여 년의 중흥불사를 통해 마애불 주변에 삼천사를 재건했다. 사실 삼천사의 역사는 오래됐다. 〈동국여지승람〉과 〈북한지〉에 따르면 신라 문무왕 때 원효와 진관 스님에 의해 창건되어, 고려시대에는 상당한 규모였다. 임진왜란 때는 서울지역 승병들이 운집했던 장소이고, 그때 절이 타버린 비운을 안고 있다.

이후 이 지역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군사보호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됐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지금도 수영장 등 훈련시설과 휴양시설들이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도 삼천사는 경내가 비좁다. 간신히 계곡에 붙어 절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까닭에 등산로는 협소하고 시멘트 포장이 돼 있으며 옆에는 군사훈련지역이 자리하고 있다. 고려 때 삼천사 자리가 아니라 원래는 마애불을 모신, 삼천사에 속하는 작은 암자 터로 추정된다.

삼천사에서 2km 위쪽에 위치한 옛 삼천사 터에는 대형 석조(石槽)와 동종(銅鐘), 연화대좌(蓮花臺座), 석탑기단석(石塔基壇石), 석종형부도(石鐘形浮屠), 대지국사(大智國師) 법경(法鏡)의 비명(碑銘)이 남아 있는데, 그 중 동종은 보물로 지정받아 현재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삼천사의 앞에서 길손을 맞는 것은 대웅전 앞 세존사리탑(世尊舍利塔)과 세존진신사리비(世尊眞身舍利碑)다. 이 곳 삼천사에 봉안된 부처님 진신사리는 1988년 성운 스님이 미얀마 마하시사사나 사원에서 모셔 온 것이다.

고려시대 승군활동 대규모 사찰
'고려초 마애불' 입증 보물 지정
진신사리석탑 등 도심 속 '보궁'
'인덕원' 운영 등 복지불사 산실

삼천사는 사회복지법인 인덕원과 은평노인복지관 등 복지불사의 모체다. 세존진신사리4사자9층석탑은 마애불과 함께 자비 · 복지실천의 선두주자인 삼천사의 상징이다. 아쇼카왕의 복지사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주지 성운 스님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쇼카 석주 4사자상탑을 조성했다. 종형 사리탑과 함께 진신사리를 모신 4사자상탑이 있는 삼천사는 마애부처님이 계신 '보궁'으로 기도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산의 수많은 마애불은 우리 선조와 현재 우리들의 간절함을 대변한다. 오랜 세월 풍파에 닳고 닳았지만 민초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삼천사 마애불(보물 제657호)에 기도하는 등산객들. 삼천사 마애불은 햇빛의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으로 보이는 것이 특징으로 심심 미묘한 미소를 보여주신다.


삼천사 대웅보전 모습


종형사리탑. 1988년 미얀마 마하시사사나 사원에서 아판디타 대승정으로부터 전수받은 사리 3과가 봉안됐다.


세존진신사리불탑은 월정사 8각9층탑과 아쇼카 석주사자상을 접목했다. 진신사리 7과와 금강경 600부 등이 봉안됐다.

"시민 선방 등 열린공간 발돋움"

주지 성운 스님



30여 년 동안 불사를 통해 삼천사를 재건한 성운 스님은 삼천사 마애불은 당시 일대 주민들의 신앙처임을 부각시켜 사찰을 열린 수행공간으로 구성할 것을 밝혔다.

삼천사는 성운 스님이 대웅보전, 산령각, 천태각, 연수원, 요사채 등의 건물과 세존진신사리탑, 지장보살입상, 종형사리탑, 관음보살상, 5층 석탑, 중창비 등을 하나씩 조성해 현재 문화재 전통사찰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수많은 참배객들의 기도도량, 참회도량, 수행도량으로서 확고히 자리하게 되었다.

스님은 "삼천사는 서울시이면서 산에 위치한 포교당이기에 도시 속의 산중 포교당으로 시민선방을 꾸려 단기출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애불은 그 시대 서민들의 신앙생활을 담은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어 도심과 산중 포교당으로서 열린 공간으로 사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행수첩

▲삼천사 가는 길

대중교통=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에서 하차하여 2번 출구로 나오면 삼천사 ·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셔틀버스 정류장이 나온다. 하루에 4번 셔틀버스가 있으며 법회가 있는 날은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자가용=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은평경찰서를 지나 하나고등학교 앞에서 좌회전을 하면 삼천사 초입이 나온다.

▲주변 맛집

삼천사에서 계곡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왼쪽으로 근처 군부대에서 제방을 쌓아 계곡을 막은 곳이 있다. 여러 음식점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집이 청솔산장이다.(02-381-3005) 도토리묵과 해물전 등이 별미다.

▲주변 둘레길

삼천사 뒤편에는 사모바위까지의 2.5km 구간의 탐방로가 개설돼 있다. 들머리에서 응봉능선을 이어 사모바위로 가거나 절을 지나 계곡 깊숙이 들어선 후 부암동 암문이나 비봉능선으로 길이 닿아 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넘쳐나는 기도 영험도량 현지사 부산분원!!



현지사 부산분원

부부가 불화하여 헤어질려고 한다거나 자식이 불효해서 가정이 시끄럽거나 아기도 갖지 못하고 각종 시험에 시달리는 등 가정사 잘 되지 않을 때 관세음보살님 공부를 해라.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읽고 다라니를 21번씩 하든지 108번씩 하든지 하고 칭염염불하고 참회발원하면서 '나는 어디 사는 누군데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라.

– 2011년 7월 광명 만덕 큰스님 소참법문 중에서

관세음보살님 가피로 3중추돌사고에서 살아나다

저는 현지사 부산분원에서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2007년 아들 전규호 이름으로 관세음보살님 100일 기도를 올려놓고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10월 26일 강서구 서부산 삼거리에서 아들이 새벽 출근길에 큰 3중 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들 차의 타이어가 날아가고 뒷문 유리는 다 깨졌고 이미 폐차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에 타박상 하나 없이 멀쩡했고 후유증을 걱정해서 병원에 입원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만 아무런 이상도 없고 시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게 기적이겠지요. 그리고 아들은 100일 기도에서 발원했던 좋은 인연의 배우자를 만나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가랑비에 옷이 젖듯 저의 기도에 대한 관세음보살님의 명훈가피임을 확신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산시 북구 만덕동 박문자)

– 현지사 홈페이지 '신행담' 중에서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3월 대전분원 정기법회 : 3월 2일(일) 오전 9시 30분

육도윤회와 지옥과 극락의 실재, 인간의 본체인 영혼체를 부정하는 잘못된 무아설에 대한 비판, 인간과 우주의 탄생에 대한 미증유의 법문 등 21세기를 열어가는 현지사 큰스님의 사자후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 만현 큰스님 동영상 법문(235회 째)을 현지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음재일 행사 :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 재일 : 매월 음력 초하루 오전 10시 30분

16부처님 재일 :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30분

부산분원 100일기도 안내 : 관세음보살님, 산왕부처님, 치성광부처님, 화엄성중님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 / 영산불교 현지사 부산분원 관음성전 전화 051)554-5150 팩스 051)243-4371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新 사찰 건축
4. 인제 만해마을

말없이 서있는 또 다른 '님의 침묵'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한 때 우리 민족의 독백이었던 그 슬픈 곡조. 그 독백의 선창이었던 시인은 일제에 빼앗긴 조국의 독립을 갈망했던 만해 스님이다. 그토록 조국의 독립을 그리던 스님은 1944년 6월 29일,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그렇다. 한국불교를 걱정했고, 조국의 현실과 민족의 미래를 걱정했던 시대의 스승 만해 스님을 우리는 그의 곡조처럼 그렇게 쓸쓸히 보낼 수 없다. 조국의 독립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떠난 그 님을 그래서 우리는 보내지 아니하였다. 제 곡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랑의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돌듯이 님을 보내지 못하는 후손의 마음이 이제는 들을 수 없는 님의 침묵을 기리고 또 기리는 곳이 있다. 2003년 8월 9일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136-5에 지은 '만해마을' 이다.



만해마을의 절정 만해사 서원보전. 허공에 일획의 글씨를 쓴다는 생각으로 설계했다. 스님의 직선의 삶을 일획의 글씨로 표현했다.

숙박하는 기념관, 만해문학박물관

"만해 스님을 어떻게 기릴까, 그것이 문제였죠." 만해마을의 설계를 맡은 건축가 김개천 교수(국민대 조형대학)는 '만해' 라는 그 간단치 않은 이름 앞에서 건축가 이전에 후손으로서 고민했다. 만해마을의 설계는 '스님을 기리는 일' 에서 시작된다. '만해' 라는 이름을 제대로 기리는 일은 스님의 생애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충분히 알리는 것이었다.

우선 스님을 기리는 기념관인 '만해문학박물관' 은 흔치 않은 '숙박하는 기념관' 이다. '숙박' 에 포커스를 두었다. 별채의 숙박동(문인의 집)을 두었다. 지나가듯 보고 가는 기념관이 아니라 하루든 이틀이든 묵으면서 스님을 느끼라는 취지다. 위대한 한 인물의 지나간 삶을 쳐다보는 일은 단순히 진열된 자료를 들추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진열된 자료도 보아야 한다. 자료를 통해 읽어낸 그의 삶을 오랫동안 생각하며 가슴 속에 '간직'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다.

"스님도 '인간' 이었죠. 우리에게 그토록 거룩한 스님이지만 스님도 밤이면 번뇌하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자신과 수없이 많은 다짐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우리와 다른 것이죠. 위대한 것이죠."

박물관 안쪽에서 유리벽을 통해 밖을 바라보면 스님의 동상이 보인다. 스님의 동상은 박물관 밖에 있다. 스님의 눈은 바라보는 이의 눈높이에 있다. 그리고 스님은 그저 어디론가 걷고 있다. 스님의 동상을 박물관 밖에 세우고 높고 크게 만들지 않은 이유는 스님을 살아있는 듯 다가오게 하고 싶어서다. 우러러 보아야 하는 존재이기보다는 우리 곁에 있었던 우리와 똑같은 가슴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한 인간의 모습이 먼저라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그리고 스님의 동상은 박물관 입구에서도 볼 수 있는데, 스님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70평 규모의 만해문학박물관은 만해 스님의 저서와 유품 등 그의 일대기를 볼 수 있는 3층으로 된 전시공간이다. 콘크리트를 사용한 무채색의 외관은 전통의 건축 재료인 전벽돌을 연상케 한다. 내부의 나뭇살을 댄 창을 보는 듯한 콘크리트 벽과 기둥과


70평 규모의 만해문학박물관은 만해 스님의 저서와 유품 등 그의 일대기를 볼 수 있는 3층으로 된 전시공간이다.

스님 직선의 삶, 직선의 길로 표현
허공에 쓴 '일획' 만해사 서원보전
창살을 이용해 자연을 후불탱화로
숙박하는 기념관 '만해문학박물관'
2003년 8월 준공 · 설계 김개천 교수

처마, 벽돌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프레임들로 '전통' 을 재해석 하려했다. 빈 프레임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안팎의 경계를 허물고 싶었던 설계자의 의도다. 이렇게 빈 프레임에 자연을 담아내는 모습은 우리나라 전통의 기법 중 하나인 '차경(借景)' 을 활용한 것이다. 내부 마감재는 주로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했는데 민족의 지조를 지키고 서릿발 같은 절개와 칼날 같은 의기를 보인 스님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다.

직선의 삶, 직선의 길

"스님의 삶은 '직선의 삶'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타협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았던 스님의 삶은 그 누구의 삶보다도 분명한 '직선의 삶' 이다. 김개천 교수는 만해마을의 시작을 그 '직선의 삶' 에서 시작했다. 만해마을의 입구인 경절문(經截門) 앞에서면 건물들 사이로 너무도 분명한 직선의 길이 나있다. 스님이 걸어간 그 분명한 직선의 '삶' 을 직선의 '길' 로 표현했다. '삶' 이 '길' 로 표현되는 것은 언어의 영역만이 아니었다. 건축에서도 '삶' 이란 글자는 '길' 이란 글자로 대신할 수 있었다.

만해마을은 이 길이 중심이다. 만해마을에 들어오면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모든 건물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알고 걷든 모르고 걷든 만해마을을 찾은 사람은 스님이 걸어간 길을 걷게 되어있는 것이다. 만해마을의 존재 이유를 실천적으로 옮긴 드라마틱한 도입이다. '만해마을' 이란 건축에는 '길' 이 포함되어 있다.


창살을 이용해 자연을 후불탱화로 이용한 서원보전


직선의 삶을 표현한 직선의 길과 일주문 격인 경절문

그 길의 시작에 서있는 경절문은 선종의 대표적인 수행을 상징하는 문이다. 이심전심으로 전하는 교외별전, 참선을 통한 수행 방법을 말한다. 불교에서 수선(修禪)할 때 단계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진제(眞諦)를 터득하여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수행의 지름을 뜻하는 수행문이다. 경절문은 두 장의 큰 돌판을 'ㄱ' 자로 이어붙인 듯한, 단순하면서도 현대적 공간감각을 살린 문이다. 만해마을의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을 넘어서면 마음의 번뇌를 씻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만해마을의 절정 만해사 서원보전

만해마을의 '절정' 은 만해사 서원보전(誓願寶殿)이다.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한 현대적 감각의 법당은 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 을 계승하고 반야경의 무소유 정신을 기리기 위한 취지의 건물이다.

만해사 서원보전은 땅위에 지은 건물이 아니다. 허공에 세운 건물이다. 의도가 그랬다. 건물을 허공에 지을 순 없지만 허공에 지었다.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된다. 선사의 선문답처럼 서원보전은 그렇게 지어졌다. 기둥을 이용해 멀리서 바라보면 허공에 떠있는 '일획' 처럼 보인다. 허공에 세웠다기 보다는 허공에 쓴 글씨다. 역시 건축가의 의도다. 일획의 글씨를 쓰고 싶었다고 한다. 스님의 분명했던 '직선' 의 삶을 이번엔 '일획' 의 삶으로 표현했다.

스님은 시인이고 독립운동가 이기 이전에 부처님께 귀의한 부처님의 제자다. 연곡선사의 법을 받은 선사다. 만해사 서원보전은 다른 건물과는 조금 다른 의미다. 오롯이 '불제자 만해' 의 투영이다. 외관의 모습 '일획' 의 의미는 문자로 설명할 수 없는 문자 밖의, 생각 밖의 이미지다. 선사의 마음과 일언이 일상의 문자와 논리로 해결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서원보전은 그런 건물이다.

서원보전은 전통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인 누마루 진입의 형태를 하고 있다. 누마루를 지나 건물 내부로 들어오면 건물이 사라진다. 분명히 내부로 들어왔지만 건물은 보이지 않는다. 눈앞엔 산이 보일 뿐이다. 건물(법당)은 뒤에 놓이게 되므로 한 번에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다. 건축가의 의도다. 건축가는 입정의 과정 같은 것이라 설명했다.

법당에 들어서면 불상 뒤로 탱화가 없고 창살만으로 만들어진 창문이 후불을 대신한다. 한지를 바르지 않은 촘촘한 창살 사이로 초록의 소나무 그림자가 들어온다. 밤엔 달빛이 창살을 메운다. 건축가는 우주의 한 부분인 자연을 후불탱화로 쓰고 싶었다. 그림자로 지어진 건축, 서원보전의 클라이맥스다.

법당의 사방은 모두 한지 없는 유리(창)문이다. 법당 한 가운데 앉아 있으면 건물의 내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보인다. 투명한 창살이 자연스러운 띠를 형성하고 산의 전경이 건물의 진짜 벽이 되는 것이다. 건축가는 자연의 중심, 우주의 중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싶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건축을 하고 싶었다.

'만해마을' 은 특별한 불사다. 안타깝게 떠나간 님을 보내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해 스님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만해마을은 고단한 민족의 위로가 되어준 '님의 침묵' 처럼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모두를 위해 말없이 서 있는, 또 다른 '님의 침묵' 이다.

2004년 '올해의 건축상' 만해마을

만해마을은 대지면적 17,450㎡, 건축면적 9,000㎡으로 만해 스님의 자유사상, 진보사상, 민족사상을 기리고 실천하기 위해 지어졌다. 만해문학박물관, 만해사 서원보전, 만해평화지종 등 10개 시설로 이루어진 문화, 교육, 휴식의 복합문화공간이다.

건축가 김개천 교수는 '만해마을' 로 2004년 한국건축상 중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올해의 건축상' 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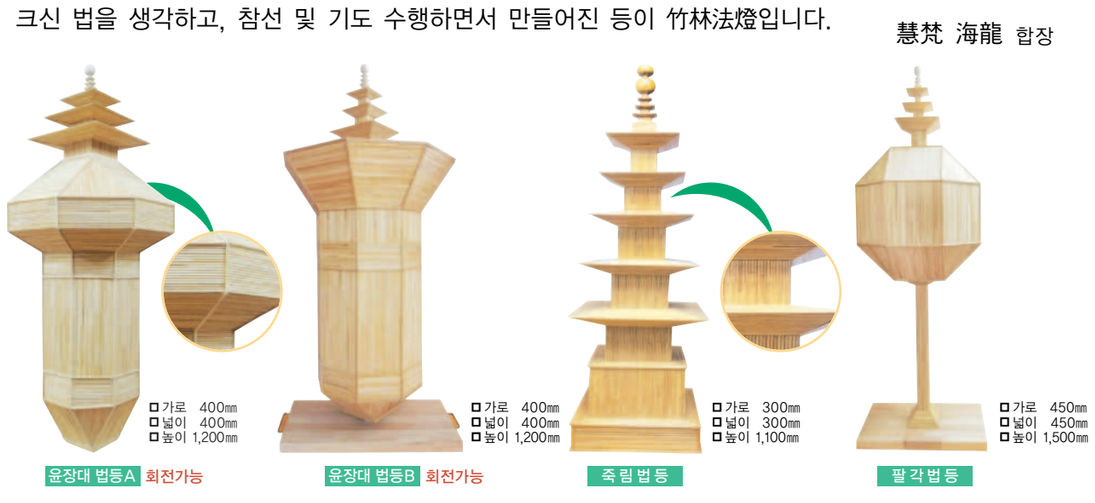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수행으로 탄생한 竹林法燈

세계유일의 신제품!! 특허출원중

죽림정사는 부처님께서 생존해 계실때 자주 머무르시면서 설법하신 곳이며 기원정사와 함께 불교 최초의 2대가람(二大伽藍)으로 불리웠습니다. 죽림정사에서 사생자부이신 부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법을 생각하고, 참선 및 기도 수행하면서 만들어진 등이 竹林法燈입니다.

慧梵 海龍 합장



제품 특징

❶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세상 유일의 수공예 대나무 法燈(법등)입니다.
❷ 12가지색의 파노라마 LED전구가 내장되어 있어 법당 장엄용으로 최고입니다. (LED전구 내장으로 전기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❸ 특히 윤장대 법등은 업장소멸에 많은 기도를 드릴수 있어 포교원에 적합한 法燈(법등)입니다.
❹ 법등이므로 불안심리, 가위 등이 눌리는 경우가 많은 경우 소멸에 많은 도움을 주며, 취침燈(등) 대용으로도 최상입니다.
❺ 천연(자연) 그대로의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보존기간이 길며, 인테리어燈(등)으로써도 최상의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수공예 작품이므로 크기는 주문 사양에 맞추어 드리며, 제작 기간은 1달 소요 됩니다. 문의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大韓佛敎曹溪宗 참선.약사기도 도량
舞鶴山 藥師禪院
敎法師 慧梵 海龍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77(회원 2동)
TEL : 010-6561-3277 / 055-244-3277
FAX : (055)244-3277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한국의 구법승

5. 세속오계의 원광법사

신라 백성의 생활규범 행동강령을 만들다

불교를 숭상한 신라는 삼국시절 한반도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 중국과 소통이 힘들었다. 고립돼 자칫 나라가 어려워 질 수 있을 때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이은 스님이 있었다.

바로 세속오계로 유명한 원광법사다. 스님은 원래 신라 중기 진골 출신으로 스물다섯 살에 출가해 경주 삼기산에서 수도를 하다 중국에서 불교를 배워오기로 결심한다.

원광법사에 관해서는 당나라 〈속고승전〉에 전해진다.

'신라 황룡사의 승려 원광의 속세 성은 박 씨로 본래 삼한에 살았는데 원광은 진한 사람이다. 집안 대대로 이 땅에 살았으며 조상의 풍습이 면면히 이어져 왔다. 또한 원광의 비범한 기량은 넓고 컸으며, 글을 매우 좋아하여 노장학과 유학을 두루 섭렵하고 여러 학자들의 역사책을 검토하고 비교 연구하였다. 그의 글은 매우 뛰어나 삼한에 떨쳤으나 지식의 해박함과 풍부함에 있어서는 중국에 비하여 오히려 부끄러웠다. 드디어 친척과 벗을 떠나 해외로 나가기로 마음을 먹고 나이 25살에 금릉으로 갔다.'

당시 중국은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었다. 원광법사는 진나라 금릉(남경)으로 가 장엄사의 승만 대사 밑에서 〈성실론〉 〈열반경〉 등을 공부한 뒤 소주 호구사에 들어가 〈구사론〉을 비롯한 여러 경전을 연구하고 불경을 강의해 명성을 떨쳤다.

〈속고승전〉을 보면 '처음에는 전에 의심스러웠던 것을 묻고 생각하여 해답을 얻고 도를 물어서 뜻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장엄사 민공의 제자에게 강의를 들었으나 그는 본래 속세의 서책을 익히 배웠으므로 신비를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는 것만을 이치라 여겼는데, 불교의 교리를 듣고는 오히려 그것을 썩은 지푸라기처럼 여겼다. 헛되이 성인의 교훈을 찾는다는 것이 실제는 인생의 근심거리로 만들므로, 이에 진나라 임금에게 글을 올려 불교에 귀의할 것을 청하였더니 칙명으로 허락하였다. 이리하여 그가 처음으로 승려가 되어 곧 구족계(비구와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율)를 받고 불경을 강의하는 곳을 두루 찾아다니며 좋은 방도를 다하여 미묘한 글들을 이해하는데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고 전해진다.

원광법사는 장안에서 달천 대사의 〈섭대승론〉 강의를 듣고 혜원, 영유 대사에게 〈열반경〉과 〈반야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을 배웠다. 스님은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이후 수나라 수도에서 지내며 법회를 열고 섭론종을 일으켰다. 그 명성이 높아지자, 고국 신라의 진평왕은 원광법사를 돌려보내 줄 것을 수나라에 여러 번 청했다.

'내가 갈고 닦은 학문을 내 조국, 신라를 위해 써야 하지 않겠는가!' 하며 신라로 들어온 스님은 외교 문서를 도맡아 쓰고 왕에게 올리는 글 등의 국서를 도맡아 했다.

원광법사가 몇 십 년 만에 신라로 돌아오자, 왕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국민이 그를 성인이라 공경했다. 그때에 '귀산' 이라는 화랑은 한 동네에 사는 취항과 서로 친구가 되어 항상 어진 이를 찾으며 도를 배울 것을 원하였다.

귀산과 취향은 원광법사가 머물고 있던 가슬갑사(지금의 운문사)로 찾아갔다.

"저희들은 세속에 살면서 몹시 어리석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평생 교훈으로 삼을 말씀을 알려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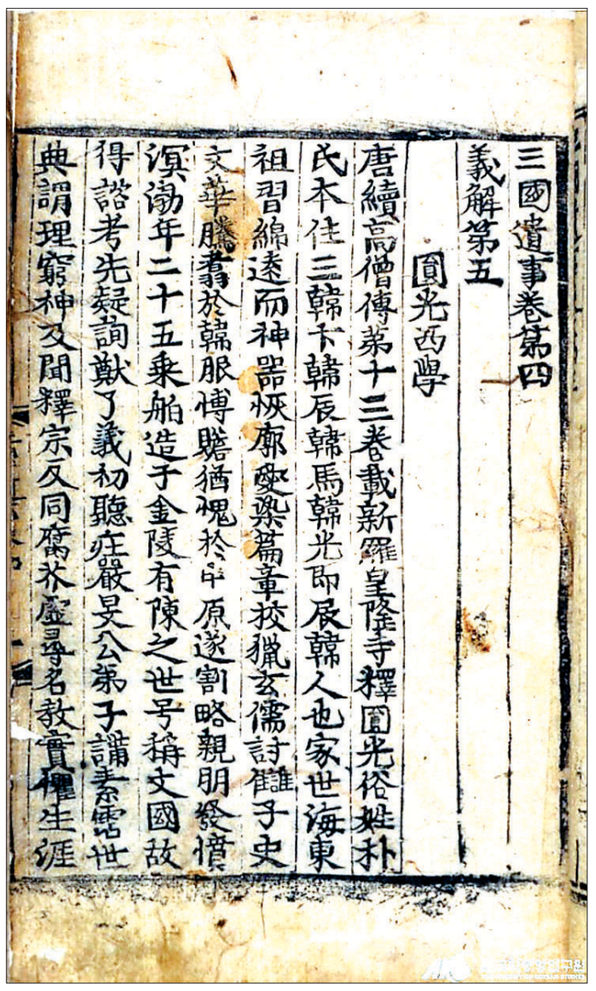
"불교에서 보살계가 있어 크게 열 가지이지만, 그대들은 남의 신하가 되고 아들이 된 몸으로 능히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제 세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의 계를 전할 터이니 잘 듣고 행하라. "

원광법사는 이렇게 말하고는 이어서 다섯 가지의 계를 일러 주었다.

"첫째는 사군이충(事君以忠)이니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길 것이며, 둘째는 사친이효(事親以孝)이니 효로써 부모님을 받들며, 셋째는 교우이신(交友以信)이니 믿음으로 벗을 사귀며, 넷째는 임전무퇴(臨戰無退)이니 전쟁에서 물러서지 말 것이며, 다섯째는 살생유택(殺生有擇)이니 살아 있는 목숨을 함부로 이지 말고 가려서 하라."

삼기산에서 유·불·도 수행
25세에 중국 금릉으로 유학
명성높자 진평왕 귀국 간청
돌아와 국서 제작 도맡아





원광법사가 창건한 경주 삼기산 금곡사에 남아 있는 원광법사부도탑(사진 왼쪽)과 〈삼국유사〉의 원광서편. 〈삼국유사〉에서 원광법사는 '의해(義解)' 편의 첫머리에 나오는데 '의해' 란 불법의 의리(義理)를 깨달아서 안다는 뜻으로 이는 원광법사가 바로 신라에서 최초로 불법의 요체를 터득한 승려였음을 의미한다.(사진 오른쪽)

귀산과 취향은 다른 것은 흔히 들어온 이야기이므로 쉽게 이해하였으나, 다섯 번째의 '살생유택' 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불살생의 가르침은 불교에서 으뜸가는 계율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것은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계의 뜻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광법사는 살생에 있어 때를 가리는 경우와 대상을 가리는 경우, 두 가지를 설명했다.

"육재일(사천왕이 천하를 순행하며 사람의 선악을 살펴 제석천에 보고하는 날)에는 살생하지 않는 시기를 가리는 것이요, 작은 목숨이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는 것이니, 이는 대상을 가리는 것이다. 또한 죽일 경우라 할지라도 쓸 만큼만 죽이고 함부로 많이 죽이지 말라는 것이니, 이것이 곧 세속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길이다."

귀산과 추항은 스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받들어 전쟁에 나가 큰 공을 세우고, 602년에 백제와의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했다. 뒷날 세속 5계는 귀산과 추항 뿐만 아니라 신라의 모든 청년의 생활규범, 또 화랑도의 근본 사상이 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는데 지주가 됐다.

원광법사는 613년 신라 황룡사에서 고승들을 모아 놓고 불교 경전을 강의하게 하는 인왕백고좌회에서 가장 윗자리에서 주관하는 등 당시 신라 불교계에서 가장 뛰어난 고승으로 꼽혔다. 원광법사는 왕의 극진한 존경을 받았는데, 나이 든 원광법사가 궁궐에 들어가자 왕은 친히 스님의 옷과 약과 음식을 준비했으며, 다른 사람이 돕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스님은 638년 84세의 나이로 입적했는데, 그때 왕이 원광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속고승전〉에는 스님의 마지막 모습이 전해진다.

'건복 58년(640)에 그의 몸이 좋지 않은 것을 조금씩 느끼다가 7일이 지나 간절한 계를 남기고 그가 머무르던 황룡사 안에서 단정히 앉은 채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99세였다. 당시 절의 동북쪽 허공중에 음악소리가 가득 차고 신이한 향기가 절 안에 가득하니 승려들과 속인들이 슬퍼하면서도 그의 감응으로 알고 좋은 일로 여겼다. 마침내 교외에서 장사를 지냈는데, 나라에서 의장과 모든 장례용 도구를 내려 왕의 장례와 같이 했다. 그 후 속세 사람 가운데 죽은 태아를 낳은 사람이 있었는데, 세속에서 말하기를 "복이 있는 사람의 무덤에 그것을 묻으면 후손이 끊이지 않는다." 하여 몰래 그의 묘 옆에 묻었더니, 바로 그날 죽은 태아에게 벼락이 쳐서 무덤 밖으로 내쳐졌다. 이 일로 불경스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도 모두 그를 우러러 숭배하게 되었다.'

일연 스님은 원광법사의 입적에 대하여 고본수이전, 당속고승전 그리고 삼국사 열전을 인용하여 삼국유사에 적었는데 부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이 여든네 살에 세상을 떠나니 명활성(明活城) 서쪽에 장사하였다.' 〈고본수이전(古本殊異傳)〉

'이레 만에 절실한 훈계로 유언을 남기고 거처하던 황룡사(皇隆寺)에서 단정히 앉아 죽으니 나이가 아흔아홉이요 당나라 정관 4년이다. 죽을 당시에 절 동북쪽 하늘에서 음악소리가 공중에 가득 차고 이상한 향기가 절에 충만하였으니 승려와 속인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한편 그의 영감을 알고 경사로 여겼다. 마침내 교외에 장사지내니 나라에서는 장사하는 예절을 임금의 장례와 같게 하여 치러 주었다.' 〈당속고승전(唐續高僧傳)〉

'나이 80여 살이 되어 전관 연간에 죽으니 부도(浮圖)는 삼기산 금곡사(金谷寺)에 있다. 지금의 안강 서남쪽 골짜기로서 명활의 서쪽이다.' 〈삼국사 열전〉

안강에서 영천으로 이어지는 28번 국도에서 삼기산에는 금곡사라는 작은 절이 있고 이곳에 원광법사의 부도가 있다.

이 부도탑과 삼기산에는 원광법사와 얽혀있는 재미있는 설화가 전해진다. 원광법사가 삼기산 깊은 골짜기에서 용맹 정진할 때였다. 여우 한 마리 가 다가와서 신의 목소리로 말했다. 그 근처에 다른 스님도 수도하는 모양인데, 지나다니는데 방해가 되니 다른 데로 옮겨가라고 가서 전하라고 했다. 원광법사가 그 스님에게 가서 말하니 그는 어찌 수행이 지극한 사람도 여우 말에 미혹되느냐고 오히려 법사를 나무랐다. 그날 밤 여우는 산을 무너뜨려 그 비구의 절을 덮어버렸다.

그 여우는 스스로 3,000살이라고 하면서 천하의 일에 통달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했다. 그 여우는 법사에게 그곳에서 수행을 하면 법사 자신에게만 이로울 뿐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로울 것이 없으므로 중국으로 건너가 불법을 가져와 이 나라의 미혹한 무리들을 인도하라고 했다. 그러더니 중국에 갈 수 있는 계책을 알려주었다. 법사는 11년 중국에 머물면서 삼장(三藏)에 널리 통달하고 유학도 공부하였다.

법사가 다시 삼기산에 돌아왔더니 여우가 그 유학길이 어떠했느냐고 물었다. 법사는 여우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와 이 윤회하는 세상에 서로 구제해 주자고 약속을 했다. 법사는 그 여우의 실체를 보고 싶어 했더니 여우는 동쪽 하늘에 팔뚝이 구름을 뚫고 하늘 끝에 닿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여우는 자신이 비록 그런 몸을 가졌지만 무상에서 오는 고통을 벗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한탄하면서, 어느 날 자신이 그 동쪽 하늘의 고개에서 자신을 벗을 테니 와서 자기 혼을 송별해 달라고 했다. 법사가 그 날에 가서 보니 옻칠한 것 같이 까만 여우 한 마리가 숨을 모두고 있었다. 일연 스님이 〈수이전〉에 있다고 소개한 내용이다.

법사는 여우의 말일지언정 그 속에서 보살의 목소리를 들었던 게 분명한다. 그리고 그 영물과 소통하여 그것의 생멸에서 오는 무상의 고통을 자비심으로 보듬어 주었다. 원광법사는 비구와는 달리, 자기에게 오는 것이 여우이든, 부처이든,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이러한 무차정신이 신라를 통일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현운문사에 주석하며 불법펼쳐
세속오계 등 백성 교훈 만들어
신라 으뜸 승려로 추앙받아
삼기산 금곡사에 부도탑 남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전통 '조왕탱화' '반야용선'

조왕탱화

부엌의 신인 조왕신(부엌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 竈王大神(나무조왕대신)' 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 크기 : 가로 61cm × 세로 91.5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조왕탱화



반야용선

반야용선

어지러운 세상을 넘어 피안의 극락정토에 갈 때 탄다는 배를 말한다. 반야(般若)란 모든 미혹(迷惑)을 끊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이나 모든 법을 통달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뜻한다. 반야용선도는 망자를 위해 걸었던 그림으로, 그림에는 보통 좌로부터 극락의 주인인 아미타부처, 극락으로 인도하는 깃발을 든 인로왕보살, 반야용선과 망자가 표현되며 슬픔에 젖은 유가족이 그려지기도 한다. 즉 반야용선이 그려진 것은 망자가 아미타부처가 계시는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往生)하기를 염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크기 : 가로 90cm × 세로 130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한 탱화 수강 신청안내

불모의 도움을 받아 한 탱화 조성 과정(1.출초 2.배접 3.아교포수 4.도채 5.바림 6.문양 7.금니 및 황선쫓침 8.금박붙이기 9.상호 10.틀 싣기 11.발미)을 통해 탱화의 기초와 기능을 함께 배우면서 완성도 높은 예배용 탱화의 완성이 목표

– 모집분야 : 한 탱화과, 기초기반(도안)과, 교육 민화(단청)과
– 모집인원 : 서울 (한 탱화과 20명 / 교육 민화 단청과 20명).
경주 (한 탱화과 10명 / 기초기반 도안과 10명). 부산 (한 탱화과 10명)
– 교육장소 : 서울 –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전통채색학교
경주 –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008-16 한국전통채색학교
부산 – 진구 연지도 부산시민공원 인근 한국전통채색학교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교육일정 : 2013년 10월 16일 – 2014년 3월 16일 (5개월)

성유불화원 금어 조성철 합장
문의 051)332-0045 / 010-9216-0988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우리는 '절대성 자리'를 갖고 있다

철야정진법문 ⑧

여러분 늙지 말라면 그것이 안 늙던가요? 여기 저 뭣이고 나 부회(화)나서 말이죠. 나 이발 자주 해야 되거든요. 머리가 이래 서거든요. 이래 서요. 그래서 자주 해야 돼. 귀찮아서. 이거 빌어먹을 놈의 머리, 내 소유물 같으면 말이지 이거 내 말 들어야 되는데 이거 내 말 안 듣거든. 하하하. 내 말 안 들어.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뚱어리 여러분의 마음대로 한다는 것, 되긴 돼. 어떨 때는 그대로 흉내는 내요. 흉내낼 수 있지만은 참말로 여러분의 몸뚱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럼 뭣고? 여러분들 지니고 있어.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외우세요. 이거, 물론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본래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말 안 합니다만도 좌우간 요번 철야정진 때 내 목적이 이걸 갖다 여러분에게 확실히 가르쳐 드리는 것이 내 의무입니다. 이거 재미도 없을 겁니다. 자꾸 잔소리 같아서 재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도 재미없어도 나는 억지로 이걸 할 작정입니다. 그러하니 여러분의 몸뚱이는 여러분의 관리물은 돼. 관리는 하고 있어. 옷도 입혀 주고 세수도 하고 밥도 먹여 주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소유물은 아니다. 이거 조금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뭣고? 마음이지. 마음이라 해도 좋아요. 성품이라 해도 좋아요. 절대성이라 해도 좋아요. 도대체 그러면 마음 좋아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생겨 먹었노 말이지. 여러분, 마음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어떻게 생겨 먹었노 말이여. 있긴 있어.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긴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그건 모르거든요. 그리고 찾을라면 못 찾아. 여러분의 마음 찾아본 일 있습니까? 그러하니 있긴 있어.

그러하기 때문에 이전 선사들, 어른들이 말씀을 하기를 유무, 있고 없는 것을 뛰어넘은 자리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허공,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있어요. 잘 나고 못난 것, 똑똑하고 똑똑치 못한 것. 이건 업연 관계입니다. 업연도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 그건 다른 날, 내일 쯤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하니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면은 벌써 말이 틀려버려. 내 말을 들을 줄 알아. 내 얼굴을 여러분이 볼 줄 알아. 그거 없는가요? 틀림없이 있어. 있다 하면 찾아내지 못해. 허공과 한가지라. 큰 건가 적은 건가? 생각해 봅시다. 큰 건가 적은 건가?

우리가 가까운 걸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여러분 은하수 보죠? 벌써 여러분들은 은하수를 여러분들은 볼 줄 알아. 다른 건 여러분들이 안 본다 할지라도. 모습에만 주저앉은 분들은 꼭 모습만 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허공 볼 줄 모르거든. 그러나 그건 어쩔 도리가 없어. 인자부터 여러분이 허공을 볼 줄 알 겁니다. 크다면 무한히 큰 겁니다. 크다면 온 누리를 덮은 겁니다. 참말로 여러분 그렇게

> **마음이 어떻게 생겨 먹었노?**
> **있긴 있는데**
>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
> **마음은 있고 없는 자리를**
> **뛰어 넘은 자리다**

훌륭한 분들인가요? 하하하. 이거 과학적입니다. 작다 이래 하면 말이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말이죠. 바늘귀라도 꿰. 희한한 겁니다. 희한한 겁니다. 참 희한한 겁니다. 크다 하면 온 누리를 덮고 있어. 작다 하면 바늘귀도 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 자리는 시작이 없습니다. 시작이 없어. 누가 만들어 낸 것도 아닙니다. 시작이 없어.

왜 그러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시작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것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없기 때문에 종말이 없어요. 그 자리, 그 절대성 자리. 그 마음자리. 시작이 없으니 끝이 없거든요. 이거 빤한 것 아니에요? 이것쯤은 여러분이 알아들을 겁니다. 몸은 시작이 있어. 끝이 있어. 생사, 이것이 실다운 거든지 실답지 않든지 그건 별문제로 하고 시작이 없어. 생사,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 그러나 이 절대성자리, 이 몸을 맘대로 끌고 다니는 이 자리, 공부도 할라 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있는 이 자리, 시작이 없습니다. 그걸 다만 우리가 모를 따름이지 실은 시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 있는 겁니다.

그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이 도리 모르면 원통합니다. 원통해. 나 이런 말 했습니다. 꼭 그리 하고 싶어요. 이것 전부 내 같으면은 이건 죽는 것이거든요. 모습이니까. 시작이 있어. 몇십 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 주셨어. 그러면 시작이 있다 말이여. 그러면 끝이 있을 거라 말이여. 나중에 화장터로 가나 묘를 쓰나 있단 말이여. 그런데 사실로 이 몸뚱이가 나 같으면 나 자살하겠어요. 그 뭐하려고 괴롭게 더욱 지금 머리가 허얘서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거 귀찮지 않아요? 죽는 건 뭣이냐. 죽으면 모른다 이리 되는데 참말로 모를 수만 있다면은 참 좋겠어요. 나는 아는 걸 택하지 않겠어요. 모른 걸 택하겠어요. 천지가 뭉개지든지 나 죽든지 살든지 내가 알 필요 뭐 있어요? 내 하나 마음 편하면 그만이지. 편한 것도 없이 모른다 말이죠.

이 몸뚱어리는 원래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의 소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배를 인연 삼아서 우리 몸뚱어리 나온 것 아니에요? 이 자리는 말이죠 죽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 것도 없으니까 뭣을 죽는다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김진옥 선생 딸 말해 봐라. 죽는 것 있겠나? 프랑스까지 갔다 오면서. 하하하. 죽는 것 없지? 죽는 것 없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없어요 하는 그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죽을래야 죽을 것이 없어. 그렇다고 있을래야 있을 것도 없어. 우리는 도둑놈이 몇 천 명 와서 가져 갈래야 그건 못 가져가요. 참 우리는 절대의 자리를 우리는 간수하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이것만이 아이고 내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다 내 얼마 없으면 죽는다. 아, 그거야 그렇지. 이건 모습이니까 시작이 있어. 시작이 있어.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어.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확고한 신념' 중도에 드는 선행조건

4-7 귀경례

물론 부처님 외에 많은 대종사(大宗師), 큰 스님네와 큰 보살(菩薩)들 즉, 마명보살(馬鳴菩薩) · 용수보살(龍樹菩薩) · 무착보살(無着菩薩) · 세친보살(世親菩薩) 또는 달마대사(達磨大師) · 천태대사(天台大師) 등 위대한 스님네들이 많이 나시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또 인도나 중국에서 그 밖에 여러 나라에서 대성자(大聖者)들이 많이 나셨지만 그 성자들 가운데 원효보살은 가장 뛰어나시고 어느 불 보다도 부처님의 전체적 부분을 종횡무진으로 남김없이 설명하시고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인간 생활에 있어서 탁월한 체득을 하셨다. 그러므로 8백년 전에 우리들의 대선배인 고려 대각국사(大覺國師) 같은 어른이 이미 해동교주 원효보살(海東敎主 元曉菩薩)하고 보살 칭호를 바쳤던 것이어서 우리들도 지금 그분 말씀을 따라 이렇게 원효보살 하고 부르는 것이다.

그럼 원효보살은 어떤 분인가? 이분은 니르바나를 잘 아신 분이고 또 이를 잘 실천 궁행하신 분이다. 다시 원효보살 자신의 말씀을 빌려서 얘기한다면, 만일에 사람이 이 대사회성(大社會性)이라는 것, 우주의 공정성(公正性)을 잘 알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크나큰 신근(信根)을 일으켜야만 된다.

그렇다면 믿음의 뿌리가 되는 이 신근의 양상은 어떤 것인가? 믿음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알뜰한 데 있다. 알뜰한 믿음은 애써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 신(信)을 닦아서 얻었을 때 이에는 무궁한 공덕(功德)이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하셨다.

신리(信理)는 실유(實有)하다. '믿음의 원리는 무엇보담도 알뜰한 데 있다' 하는 것은 신의 체(體)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신(信)은 일체법(一切法)을 가히 얻을 수가 있다. 또 신은 알뜰하기 때문에 아주 평범하고, 그리고 신은 애쓰고 노력하면 얻어진다 하는 것은 신의 상(相)을 설명하신 것이다. 신이 이러한 체와 상을 갖추면, 또 이는 중생에게 많은 이익을 끼친다 하는 것은 신의 용(用)을 말한 것이다.

즉 신리실유 신수가득 신수득시 유무량공덕(信理實有 信修可得 信修得時 有無量功德)이라고 한 것이 이런 뜻이다. 해동교주 원효보살께서는 이렇듯 신의 체 · 상 · 용에 걸쳐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분의 가르침인 대사회성을 위하여는 이를 어떻게 건설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두 가지 극단을 여의어야 하고, 내노라 하는 아집(我執)과 내가 아는 이데올로기, 법집(法執) 따위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하며, 그러한 해탈(解脫)을 얻는데는 중도(中道)의 지경에 들어가야 한다. 중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주의 본체인 열반(涅槃), 니르바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를 정확히 아는데는 확고 부동한 신념이 선행조건이다. 그 확고부동한 신념은 알뜰한 것이어야 하고, 알뜰한 신념은 노력하면 가히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노력하여 가히 얻어진 신념에는 무량한 공덕이 있다고 하였다.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얼마나 간곡하고 꿰뚫어진 설명일까

> **진리를 의심하게 되면**
> **발심에 장애가 되고**
> **망설이다 아무것도 못한다**
>
> **문(門)을 의심하면**
> **수행에 장애가 되어**
> **갈팡질팡하게 된다**

보냐. 원효보살은 이렇게 설명하시고 또 자신께서도 이렇듯이 실천 궁행하셨다.

두 가지 극단을 여의어야 한다는데는 또 이런 중요한 얘기가 있다. 믿음에 반대되는 의혹(疑惑)이라든지 의문이라든지, 의심나는 일은 밝히어 끝내는 아주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져야 된다. 의심은 완전히 버려야 된다. 그런데 공리(公理)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자체를 의심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다.

첫째 진리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진리 자체를 의심하게 되면 발심(發心)에 장애가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늘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만다. 의혹의 철학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데카르트도 밝히어진 진리, 수학의 원리인 공리(公理)같은 것을 의심한다면 과학적 연구에 진전을 볼 수 없다고 말하였다. 진리가 존재한다는 그것을 의심한다는 것은 과학의 성립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아무리 의혹을 지성(知性)의 무기로 존중하는 사람이라도 일단 학문에 들어간 이상 그러한 부질없는 망설임은 버려야 되는 것이다. 원효보살의 말씀은 이를 명확히 지적해 놓으신 탁월한 견해이시다.

둘째, 문(門)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문을 의심하면 수행에 장애가 되어,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게 된다. 문이란 진리에 이르도록 부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방법론이다. 이것은 틀림없는 길이므로 안심하고 믿어도 좋은 것이다. 우리는 믿고 수행을 해 나가므로서, 그 도상에서 한 가지씩 결정을 보고 매듭을 지어 나가게 된다.

의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풀이한다면 가령 대승(大乘)이라는 진리를 의심하는 경우에 이를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많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나라고 본다면 다른 진리가 있을 수 없을 것이고 다시 진리를 많은 것이라고 한다면 대승의 진리도 하나로서 완전한 진리는 아닐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구체적인 문제로 중생의 구제에 이론(異論)이 제기되는 것이다. 우리가 구제하고 교화한 중생은 한 사람이냐, 많은 종류의 인간들이냐? 하나이냐 여러 가지냐? 많은 중생을 교화해야 하는 것이라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분별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느냐? 동체의식(同體意識)은 어디서 나오느냐? 대자대비로 보아 중생과 나와 똑 같다고 하는 생각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나의 살이 떨어질 경우에 모든 중생의 살이 떨어지고 모든 중생이 악도(惡途)에 걸리어 신음할 때 과연 나도 똑같은 고통을 받게 되느냐? 이런 의심을 위한 의심이 자꾸만 생겨난다. 이렇듯이 의심한 경우에는 그만「아이쿠, 이러니 저러니 복잡한 생각할 필요 있나! 그냥 아는 듯 모르는 듯 지내버리고 말지」하고, 드디어는 방일(放逸) · 태만(怠慢)해져 버린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 (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식 및 수업일시
■ 개 강 식 : 2014년 3월 6일 (목요일)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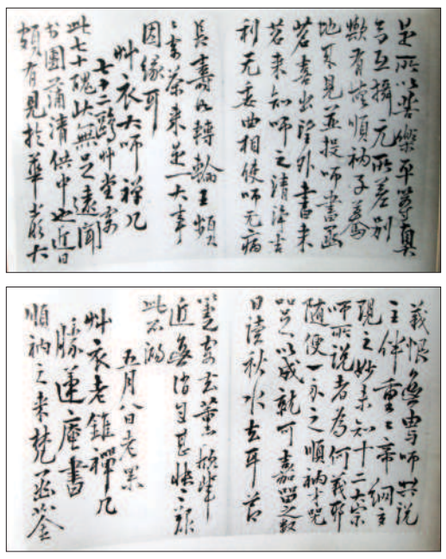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 처명)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화엄의 묘리 못 밝혀 안타깝습니다"

오월 단오절이 지난 후, 추사는 초의에게 부채를 보낸다. 이 부채엔 담담한 선미를 드러낸 추사의 시 한 수가 적혀 있었을 터이다. 귀향길에 오른 순 스님은 편지와 함께 단오 부채를 초의에게 전해 주었다. 단오절엔 임금이 신하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친한 벗 사이에 부채를 선물하는 아름다운 풍속이 있었다. 이 단오 부채엔 무더운 여름, 더위를 식혀 주려는 속 깊은 사랑이 묻어있다. 지금이야 이런 풍속이 거의 사라졌지만 다시 회복해야할 아름다운 풍속이기도 하다. 한편 수일을 추사 댁에 머물다 돌아간 순 스님은 '가을 물을 계산하여 돌아갈 겁니다' 라고 하였다. 그는 추사와는 오래 전부터 교유했던 인물인 듯하다. 특히 추사는 순 스님을 '사람 됨됨이와 기량은 빈틈이 없어서 도를 이루기에 족하니 칭찬할 만하다고 극찬하였다. 그리고 편지의 하단에 5월 8일이라는 것과 '칠십 못난이가 보냅니다' 라는 언구는이 편지가 1855년 5월 8일에 쓴 것임을 나타낸다. 이 편지는 다음과 같다.



추사친필 도판

초의대사선궤(禪几)에 칠십이구초당에서 이 칠십 못난이가 보냅니다.

(그대가)단표와 맑고 깨끗한 공양 중에 있음을 멀리서 듣기에는 부족합니다. 요즈음 〈화엄경〉을 읽고 있는데, (화엄의)큰 뜻을 그대와 함께 말하며, (화엄의)주체와 주체에 종속되는 이치와 겹겹이 이어지는 인다라망(因陀羅網), 교차되어 나타나는 묘리가 (그렇게 된) 연유를 밝히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십 이대종사가 말한 바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방편대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순 스님의 사람 됨됨이와 기량은 빈틈이 없어서 도를 이루기에 족하니 칭찬할 만합니다. 수일동안 머물다가 가을 물을 계산하여 돌아갈 겁니다. (순 스님 편에)단오절 부채를 보냅니다. 향훈과 자흔들은 근래 소식을 듣지 못해 매우 섭섭하고 섭섭합니다. 간신히 여기에서 줄입니다. 5월8일 노과(艸衣大師禪几 七十二鷗艸堂寄此七十醜狀 無足遠聞於團蒲淸供中也 近日頗有見於華嚴 大義恨無由與師共說主伴 重重帝網 交現之妙 未知十二大宗師所說者爲何義耶 隨便一示之 順衲才器嚴足以成就 可嘉留之數日 讀秋水去耳 節ª 寄去 薰欣輩近無消息甚 ㄷ甚 ㄷ艱此不宣 五月八日 老果)

당시 추사는 '화엄경을 읽고 있다'. 하지만 교학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 화엄경의 심오한 경지는 조선 후기 대학자였던 추사라도 초의와의 담론이 필요했던 셈이다. 추사는 초의와 이런 내용을 토론 할 수 없는 것이 한스럽다고 하였다. 특히 화엄의 큰 뜻인 '주체와 주체에 종속되는 이치와 겹겹이 이어지는 인다라망(因陀羅網), 교차되어 나타나는 묘리가 (그렇게 된) 연유를 밝히지 못하는 것' 이 못내 아쉬웠던 그였기에 초의의 안목은 그를 교리의 피안으로 이끌어 주는 도반이었다. 추사가 말한 12대 종사의 뜻은 무엇인가. 화엄의 교리에 대한 추사의 의문은 끝없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화엄의 본지가 무엇인지도 더욱 그를 심문(審問)으로 이끈 화두였다.

따라서 그가 초의에게 '십 이대종사가 말한 바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라고 거듭 물었던 터이다. 더구나 멀리 있는 벗의 수행은 그에게도 커다란 관심사요, 궁금함이었다. 추사는 초의의 소식이 못내 궁금했던지, '맑고 깨끗한 공양 중에 있음을 멀리서 듣기에는 부족' 하다고 했다. 아울러 자신에게 차를 보내주던 자흔과 향훈의 근황도 궁금하던 그였기에 이들의 '소식을 듣지 못해 매우 섭섭하' 단다. 늘 자신에게 차를 보냈던 이들에 대한 추사의 사랑은 식지 않았다. 당시 추사는 칠십이구초당(七十二鷗艸堂)이란 호를 사용하였는데, 도교의 〈〈선경〉〉에도 칠십이는 신선이 사는 선경을 의미한단다. 이러한 사실은 최준호의 연구로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70이 된 추사는 이미 선경에 사는 노인으로, 마음 가는 대로 하여도 걸림이 없었던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慾不踰矩)' 의 경계를 노닐던 도학자요, 신선이었음이 분명하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평생 포교 조연… 불법 있어 행복해요"

전천후 포교사 이옥천 씨

1944년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소학교가 싫었던 소년은 종종 학교를 빠졌다. 시장 골목을 전전하며 각설이 타령을 구경했고 세상 이곳 저곳을 둘러보며 하루를 보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 소년은 결국 집안의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들켜버리게 된다. 걱정을 하는 어머니와 할머니에 반해 서당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학교에 가지 말고 서당에 나오라고 했다. 한학을 배웠고 남는 시간에는 할머니가 세운 절에 가서 시간을 보내며 사찰 문화를 체험했다. 이듬해 해방이 되고 다시 학교를 다닐 때까지 소년은 유교와 불교 문화를 두루 두루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용화 이옥천 포교사는 전주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부터 불교문화를 몸으로 익히면서 자랐다. 그는 이후 대학공부를 위해 상경, 서울에 자리를 잡으면서 한국불교 현장에서 40년 전천후 포교사로 활동하며 불교계 안팎에서 전법을 이어오고 있다.

불교는 늘 내 삶과 함께였다

"〈법륜〉 잡지 창간에 동참한 것이 최초의 불교계 일이었어요. 이후 불교 출판업에 꾸준히 종사해 왔고 포교사 일을 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불교 포교에 매진해 왔죠. 뭐 그렇다고 제가 얼굴을 내놓고 무슨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어디 어디 수장이다 이렇게 내세울 직함은 없어요. 뭐 그럴 기회를 만들면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제 앞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죠. 그러다 보니 평생 불교계의 조연으로 살았네요. 허허.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세상에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에요. 추호도 후회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행복한 사람입니다."

50년 불교계 일을 돌보며 살았다는 그는 겸손했다. 하지만 그의 포교 이력은 화려하다. 조계종 전국신도회 조직과 조계종 서울 포교사단 창단운영 등에 기여한 것을 시작으로 군법당과 교도소 포교, 인덕원 서울노인복지관 도우미 봉사 등을 이어오면서 불자로서 나누는 삶을 살아왔다. 특히 그는 불교종합 교양 잡지 월간 〈법륜〉 창간 멤버로 문서포교사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왔다. 또한 한일불교친선교류법회를 결성해 10여 회에 걸쳐 태평양 전쟁 한인 희생자 위령천도재에 동참해 오고 있기도 했다.

이렇게 불교계의 일을 꾸준히 이어온데에는 그의 집안 배경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어린시절 전주에서 보냈다. 전주 이씨 집안의 후손으로 할아버지는 비단장사를 해서 성공한 큰 부자였고 할머니는 시집을 때 가져온 지참금으로 전주에 대승사라는 절을 지을 만큼 재력가 집안의 딸이었다.

"당시 할머니가 세운 절은 당호가 10채가 되는 큰 절이었어요. 스님을 모셔 수륙재를 열기도 했고 저는 부처님오신날 즈음에는 염색한 연꽃을 보살님들과 함께 만들기도 했어요. 어산범패 인간문화재 일응 스님도 저희 절에 자주 오셨는데 어린 저를 업어주기도 하셨죠. 이후 막내고모가 출가를 하셨는데, 할머니는 고모를 위해 관음선원이라는 절을 세워주기도 하셨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모두 절에 쏟아부을 만큼 불심이 깊으셨죠"

이처럼 그는 늘 불교 가까이 있었고 불교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불교로 인해서 고달프기도 했다고. "일제 통치하에서 할아버지는 8년 동안 일제와 재산 싸움을 했고, 아버지는 독립운동 자금을 대주기도 했고 서당을 차려 한국역사를 가르치기도 하셨죠. 그러면서 집안 가세가 점점 기울었어요.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고 오로지 모든 재산을 불사에 쏟아 부으셨어요. 제가 대학을 갈 즈음에는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책 몇 권만 가방에 넣어 상경을 했죠."

원망도 컸다. 특히, 유산을 한푼도 물려주지 않고 불사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할머니에 대한 원망이 상당했다. 그는 대학시절에는 친구들을 따라 원불교학생회를 들어가 교리를 공부하기도 했다. "제가 살던 전주가 원불교가 성한 곳이라 친구들을 따라 원불교학생회를 들어갔어요. 현재는 형태가 많이 변했지만 당시는 불교 색깔이 많이 남아 있던 곳이 원불교에요. 그때 반야심경 등을 공부하면서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오고간다는 진리를 알았어요. 그렇게 공부가 되니 가족 문제를 인정하게 됐죠"

문서 포교의 초석을 다지다

대학 졸업 후 그는 전국불교신도회 기관지 〈법륜〉지의 창단 멤버로 입사하면서 불교 포교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 전국신도회의 기관지였던 〈법륜〉은 당시 불교계 최초의 월간지라고 말할 수 있다. 1970년도 이 씨는 〈법륜〉의 기자로 입사해 취재 편집 등의 일을 맡게 된다.

"지금이야 메일이 있어 원고를 받기 좋지만 이 절 저 절 이 단체 저 단체 원고를 받으러 쫓아다녔어요. 당시 18개 종단이 있었는데 〈법륜〉은 전 종단을 아우르는 잡지였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는 삼성의 故이병철 회장을 취재 간 일이에요. 당시 이 회장이 사카린 밀수 사건 때문에 사회에 지탄을 받았는데 이후 참회의 뜻으로 사회에 큰돈을 환원해 화재가 됐어요. 취재 당시 저는 사회 초년병이라 많이 긴장했죠. 그런데 당시 편집위원 중 한분이었던 스님이 당황하지 말고 보시와 회향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써보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무사히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법륜〉은 이후 후원자의 운영비 단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폐간을 맞는다. 1972년 그는 친구가 자본을 투자하고 본인이 편집주간을 맡아 '창진사' 라는 출판사를 열고 불교교양 서적을 출판하게 된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초등학생용으로 푼 원로시인이자 불교학자 박희선 씨의 〈석가모니부처님〉, 서경보 스님의 〈불교사상 교양전집〉 등을 펼쳐냈다.

월간 〈법륜〉지 창간 멤버로
도서출판 학수림 운영하며
불교서적 등 문서포교 매진

젊은층에게 불교정신 알리고자
28사단 연화사 지도법사 나서
금천종합사회복지관서 12년째
사회교육 불교강사로 포교 활동

이후 이 씨는 1988년 출판사를 자신이 인수하면서 학수림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현재까지 꾸준히 불교서적을 발간해 왔다. 학수림은 지금까지 126권의 책을 발간했고 그는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현재까지도 꾸준히 출판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서경보 스님의 출판사 일붕삼장원의 편집주간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다. "스님께는 보시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드렸어요. 스님의 원고를 교정교열하고 출판까지 도와드렸죠. 한 400권 스님과 책을 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불교성전〉 출판, 조계사보 〈가피〉 창간 등에 꾸준히 간여하면서 불교계 크고 작은 출판일에 일익을 담당해왔다. 이처럼 불교계 언론과 출판계에 꾸준히 종사해온 그는 그 기록물이 얼마나 소중한 지를 안다.

그는 불교 언론지 수집가라는 특이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현대불교는 창간호부터 2002년까지의 신문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아놓았다. 불교신문은 80년 이후부터 모두 간직하고 있으며, 주간불교 법보신문은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으고 있다.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마다 나오는 신문 4종을 수십년 모았다고 하니 보관할 공간이 있는지 어떤지도 그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그가 이렇게 불교 언론지를 모으는 이유는 뭘까?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잖아요. 절 집안 자료가 제대로 남아있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



이옥천 씨는 92년부터 육군 제 28사단 전차대대 연화사 지도법사로 활동하며 전법에 매진했다.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 동아매일신문사 사장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 종정실 의전실장 황정재)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겸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만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장 석윤오
재무부장 석법담
정보부장 석보각
행사부장 석지혜
사무총장 석초오
부 원 장 석용암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혜주
동원부장 석법원
의전부장 석근홍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강원원장 석법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제 14기 영남(통도소리)범음범패 교육생모집"

범음(홋소리,짙소리) 범패(강쇠, 북, 태징)

- **기초 2개월 _** 도량석, 종성, 각단 예불, 불공, 시다림,
- **고 등 1년 _** 중노릇 잘 하는법, 상주권공, 구병시식등, 천도재,
- **전 문 2년 _** 시왕각배,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기초의식부터 ~ 전통전문분야등 범패의 모든 것)
개강일 : 2014년 3월 첫째주 금요일부터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옥천 포교사는 … 1938년생으로 조계종 전국 신도회와 서울포교사단 창단 및 운영에 참여했으며 육군 제 28사단 전차대대 연화군법당 지도법사를 역임했다. 1970년 종합 불교 교양지 〈법륜〉의 창간 멤버로 활동했으며 도서출판 학수림의 대표로 문서포교에 매진해왔다. 현재는 금천종합복지관에서 매주 불교교리프로그램 지도를 맡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죠. 현대불교도 창간 이후부터 잘 모아 왔는데 2002년부터 조금씩 흐트러져서 조금씩 빠져 버렸어요. 그래도 틈틈이 그 중간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안 공간 한 켠을 신문으로 채우고 있으니 가족들의 불만이 너무 심했죠. 타박도 많이 받았어요. 저 때문에 이사도 못 간다고요. 그래도 어떡해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는 그렇게 너털웃음을 짓는다.

이웃과 나누는 일의 소중함

그는 2002년부터 금천종합복지관에서 사회교육프로그램 중 불교반을 운영하고 있다. 불교교리강좌와 역사 탐방을 12년째 이어오며 금천종합복지관 불교반 지도법사로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의뢰가 들어 왔을 때 거절하고 싶었어요. 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 하루만 가서 대충 수업해주고 퇴짜 맞으려고 했죠. 그래서 그냥 농담하면서 시간 때우고 왔는데 그쪽 불교반 회원들이 저를 꼭 법사로 데려와달라고 담당자들에게 부탁을 했대요. 이것도 인연이다 싶어서 그렇게 매주 1회씩 나가서 기초교리 등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꾸준히 활동을 하다 보니 불교반을 통해서 새로운 법열을 느끼게 됐어요. 좀더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인터넷 유머도 찾아보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육군 제 28사단 전차대대 연화사 지도법사로 시작한 군포교 역시 그에게는 매우 특별한 활동 중 하나였다. 특히 초코파이를 박스 채로 가져가 병사들에게 나눠주면 최고의 간식거리로 칭송 받으며 법회를 이끌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 좋은 법문을 통해 그들에게 법을 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절에 와서 법문도 들으면서 군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불교가 기복 불교에서 벗어나 젊은이들에게 불교의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발원했습니다."

특히, 한 사병은 탈영을 할만큼 심각한 상태였는데 포교를 통해 무사히 군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한 사병이 우연히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제가 군법당 나와 보라고 권유를 했죠. 그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불자로 성실하게 군생활을 하게 됐어요. 주변에도 놀랄만큼 모범적인 사람이 됐죠."

물론 그가 불교 포교 일선에 매진하는 동안 아내 조인경 씨는 마음 고생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 "제가 이렇게 불교일에 매진하고 있으니 아내가 사업을 하다가 집 한 채 값 만큼의 빚을 졌어요. 이혼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때 제가 돌이켰어요. 남들은 아내를 위해 빌딩도 사주고 호강을 시켜주는데 나는 고생만 시켰구나. 이제와서 빚을 졌다고 이혼을 하면 되겠나 하고요. 이후 대필을 해서 그 빚을 3년만에 다 갚을 수 있었어요. 불법 만난 지혜가 여기서 발휘가 됐어요. 정말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나 자신은 못 보고 아내 빚만 볼 뻔 했죠. 제 아내는 그 존재 자체로 저에게 너무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감사하고 아내한테 항상 감사해요."

40년 전천후 포교사로 활동해온 이옥천 포교사에게 불교란 무엇일까? 그는 불교는 자신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존재라고 말한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삶에서 부딪히면 나를 돌아보게 돼요.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잖아요. 세상의 진리가 불교에 다 녹아 있어요. 마음 하나만 잘 쓰면 모든 것들이 달라지죠. 물론 저는 늘 부족하고 아직도 무명을 못 벗은 중생이지만 부처님 말씀은 이 모든 진리를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불법의 세계 속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늘 감사할 뿐입니다."

이 씨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아직 해보고 싶은 일이 많다. 자신에게 가르침을 준 108명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엮고 싶기도 하고 한권의 책으로 방대한 불교 가르침을 쉽게 풀어서 내고 싶기도 하다. 그는 이처럼 늘 불교 가까이 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불교를 알리고 불교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스스로 조연의 삶을 자처했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그가 늘 그 자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불교는 늘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그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1991년 조계종 서울포교사단 여의도 봉축 행사 사진

전법일기

'원리전도몽상' 전쟁공포심도 안녕!

군대에서는 요즘 혹한기 훈련이 한창이다. 대게 12월부터 2월까지 각 부대에서는 혹한기 훈련을 한다. 필자는 사단 예하 연대나 직할대가 훈련을 할 때마다 출정기도나 야전종교의식 및 위문활동을 하곤 한다. 혹한기 훈련은 전시를 가정한 훈련이기 때문에 항상 무사히 훈련을 마치기 위한 기도와 더불어 적을 이길 수 있다는 용기와 전쟁의 공포심 극복을 위한 부처님 말씀을 들려준다. 오늘은 군에서 실시하는 훈련 시 장병들에게 하는 법문을 요약해서 실어본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공포와 몽상을 여의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시다. '고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故無有恐怖 遠離顚倒夢想 究竟涅槃) 바로 이 구절이다. "마음에 어떤 두려움과 의심된 마음도 없이 거꾸로 된 꿈같은 허망함을 멀리한 까닭에 마침내 열반의 참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

그렇다. 부처님 마음에 그 어떤 두려움과 의심된 마음이 없는 까닭에 깨달음을 성취 할 수 있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그 어떤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의 승리를 조금도 의심하는 마음이 없는 까닭에 우리가 바라는 그 결과를 성취 할 것이다. 나의 마음에서, 나의 한 생각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이루어진다.

우리는 적을 압도 하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은 그 어떤 두려움과, 우리의 승리를 조금도 의심하는 마음이 없는 까닭에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성취 할 것이다. 우리는 적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으며 아군이 적을 압도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적을 압도하는 아군의 용맹함은 필승을 가져다 줄 것이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슨은 "두려움은 언제나 무지에서 샘솟는다"고 했다. 스스로의 힘을, 스스로를 모르기 때문에 겁이 난다는 것. 지레 겁을 먹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나를 알고 적을 아는, 무지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에게 두려움이란 필요 없는 단어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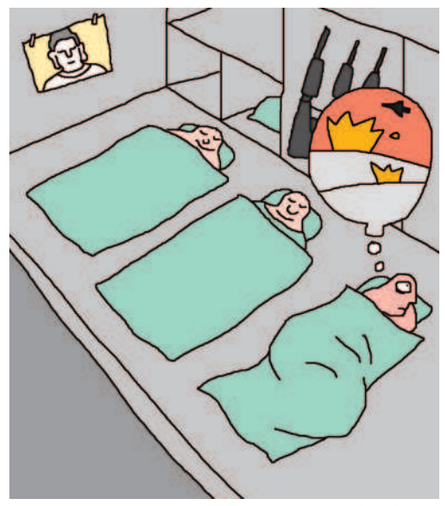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넓은 들판을 홀로 가다가 혹 두려움이 생기거든 여래, 부처를 떠올려라" 고 말씀하셨다. 부처가 누구인가? 부처님은 복덕과 지혜, 용맹, 용기 모두를 원만구족 하신 분이다. 또한 부처님은 언제나 자비광명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분이다.

'여래는 깨달으신 부처, 세존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곧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도 느낄 필요가 없고 승리한다는 자신감만 갖고 있으면 된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향하여 수많은 고행과 고난을 겪으시던 중의 일이다. 보리수 아래서 수행정진 하던 시간, 부처님의 눈앞에 깨달음의 성취를 방해하려는 마왕 파순의 80만 대군이 펼쳐진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모든 적의 유혹과 회유, 맹렬한 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어 여래가 되시었다.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마왕 파순에게 전한 음성이 남아있다.

"나는 이미 세 가지 큰 두려움의 근본을 버리었나니,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악마 군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체의 모든 어둠을 버리고 지극히 깊은 깨달음을 증득했나니 너는 마땅히 스스로 사라져 가라!" 라고 강력히 말씀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부처님과 같이 굳은 심지로 바로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몸과 마음을 오롯이 집중하여 임한다면 적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은 저 마왕의 80만 대군처럼 사라져 갈 것이다. 아직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남아있는 사람은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을 항상 마음속으로 되뇌어라.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나에게는 어떤 두려움과 의심된 마음도 없으며 허망한 망상을 멀리하였다."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대자대비로 무장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이라고 해보라.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부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기를.



여정 군승 법사(5사단 사령부 광복통일사)

불교국 각나라 승가회 대표들의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로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 추대 의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전에 부끄럽지 않는 불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실
각 종단 종정예하 총무원장님들을
법왕청 중앙정부에 모시고자 초대합니다

[2월 18일 화요일 11시 임시 각료회의 개최]

10월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의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 추대위원회 출범식을 성대하고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동참해주신 대덕 큰스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정각회 국회의원님들과 불교국가 대사님, 미얀마 연방 정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축하사절로 종교성 부장관의 참석,연방 승가회 회장스님의 축사, 120여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의 동참 그리고 연합뉴스에서까지의 보도 등 전례가 없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세계불교법왕청은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여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 추대 하고자 극비밀로 은밀하게 움직여 놀라운 큰 성과를 거두어 출범 일주년 무렵에는 장엄한 국제 추대의식 행사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社團法人 世界 佛教 法王廳
세계불교 고승 및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 1080인 委員會
법왕청산하 소속 350여 종단 및 단체 총연합 협의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위원장 대승정 목 탁 – 혜 은 합장
02-733-5665. 011-229-6061



〈2014년 (불기2558년) 주요 행사〉
1. 각료 임명식 : 임명식 행사의 건 의견 청취
2. 출범핵심 각료 선정 (특명대사) : 중국.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일본 등
3. 대외 활동 홍보 및 고유 의식으로 중국 지장도량 및 관음도량 성지순례 및 단합대회
2014년 5월 9일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성지순례 및 임원진 단합대회 개최. 세계불교법왕, 이 회의에서 승왕 추대 명단 확정하고 취임식 준비에 따른 의견 청취. 세계불교 법왕청과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이름으로 고승단 및 임원진 高僧. 대종사 품수 추대의식 봉행. (경비 없음) 선착순 108명 접수
4. 법왕추대의식 및 장소, 법왕청 준비.
5. 1080인 고승단 및 세계불교지도자 인명 대사전 발간 (경비없음)

『세계불교법왕청』이란 명칭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정식 등록 허가된 곳은 목탁스님이 주관하는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뿐입니다.



미스탁후로오만 이슬람 기숙학교(Mistakhurrohman Islamic boarding school)의 재학생 50여 명이 2월 23일 켈루드 분화로 화산재 피해를 입은 보로부드르 사원의 '청소 캠페인' 에 동참했다.



인도네이사 중앙 자바 주의 켈루드(Kelud) 산이 지난 13일 분화해 주변 17㎞에 화산재 피해를 입혔다.

무슬림 학생들, 보로부드르 화산재 청소

2월 13일 분화한 켈루드 산의 화산재로 피해를 입은 보로부드르 사원이 인도네시아 종교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온이슬람(onislam) 지는 2월 23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주의 미스탁후로오만 이슬람 기숙학교(Mistakhurrohman Islamic boarding school) 학생 50여 명이 보로부드르 사원 청소에 자원 봉사자로 나서, 종교 화합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Onislam〉 지는 무하마드 딤야디(Muhammad Dimyadi) 씨(이슬람 기숙학교 교사)의 말을 인용, "50명의 학생들이 휴일이었던 금요일을 스스로 반납하고 수백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보로부드르 사원 화산재 청소 봉사' 에 나섰다"며 "학생들에게 보로부드르 사원은 종교를 떠나 젊은 세대들이 지켜가야 할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역사이자 문화"라고 말했다.

이슬람 기숙학교 학생들은 지난 2010년 메리피(Meripi) 산의 분화 때에도 화산재 피해를 입은 재해 지역 불교 사원을 방문, 화산재 청소를 했다.

또한 "학생들은 금요일 정오마다 진행되는 '무슬림 기도 의식' 을 제외하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원 청소에 매달렸다"고 전한 〈Onislam〉 지는 "중앙 자바 주정부 역시 이번 '청소 캠페인' 을 지원하기 위해 '무슬림인의 불교사원 방문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보로부드르 사원의 '청소 캠페인은 종교를 초월해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2,000여 명이 자원 봉사에 나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중부 자바의 여러 도시에서 온 승려를 포함한 불교도 700명도 포함돼 있다.

보요라리(Boyolali) 시의 암펠(Ampel) 사원에서 보로부드르 사원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왔다는 우타마치토(Uttamacitto) 스님은 "암펠 사원의 대중 스님들은 5일간 보로부드르 사원에서 켈루드 화산재를 닦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우리 외에도 테마난궁(Temanggung), 암브라와(Ambrawa), 반자르네가라(Banjarnegara), 워노기리(Wonogiri), 워노소보(Wonosobo) 등지에서의 스님들도 이곳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로부드르 사원의 판까 아르디안시야(Pangga Ardiansya) 스님은 "우리는 무슬림 학생들의 봉사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참여한 모든 자원 봉사자들에게도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분화 직후부터 이어진 자원 봉사자들의 노력으로 보로부드르 사원을 덮었던 화산재 80% 가량 청소됐다"고 밝힌 아르디안시야 스님은 "2월 말경이면 사원 청소 작업은 거의 마무리 될 것 같다"며 "이때가 되면 사중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분화한 켈루드 산, 주변 17km 화산재 피해
이슬람 기숙학교 학생들 사원 청소 봉사자 동참
약 2000여 인도네시아인 참여… 종교 초월 화합

인도네이사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85%가 이슬람교도이고 불교도, 개신교도, 천주교도 등은 12%에 불과하다.

보로부두르(Borobudur)사원은 인도네시아 자바 섬 중부의 조크자카르타 북서 약40㎞에 있는 불교의 대 건조물로, 824년 샤일렌드라 왕조가 건설했다. 대지진과 멜라우 화산의 폭발로 오랜 세월 동안 그 존재가 잊혀져 있다가, 1814년 네덜란드로부터 한시적으로 자바 통치권을 인계받은 영국의 토머스 스탠포드 라플즈 경이 섬의 각지를 시찰하면서 보로부두르 유적에 대한 조사를 벌이면서 발견됐다.

보로부두르는 각층마다 테라스가 있는 10층 구조물로, 정상에는 종 모양의 스투파라 불리는 불교 건축물이 우뚝 솟아 있고, 독특한 건축형태와 풍부하고 우수한 조각으로 유명하다.

오종욱 편집위원

美 메간 폭스 둘째 출산…아기 이름은 '보리'

미국 헐리웃 스타 메간 폭스(28)와 브라이언 오스틴 그린(41) 부부의 아이 이름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의 연예매체 등은 메간 폭스가 2월 12일 남편 브라이언 오스틴 그린과의 사이에 둘째 아들을 출산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태어난 폭스 부부의 둘째 아이 이름은 보디 랜섬 그린(Bodhi Ransom Green). 짐작하다시피 불교 색채가 물씬 묻어난다. 'Bohdi' 는 깨달음을 지칭하는 '보리' 의 영어식 표현이다.

폭스 부부가 아기에게 불교식 이름을 지어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지난 2월 12일 출산해 아직 언론과 인터뷰를 가지지 않은 탓이다.

메간 폭스와 브라이언 오스틴은 지난 2010년에 결혼해 두 살난 아들 노아 섀넌을 두었다.

메간 폭스는 보디를 임신했을 때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노아에게 동생이 생길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며 어른스런 형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해준다고 했다.

영화 '트랜스포머' 를 통해 세계적 스타가 된 메간 폭스는 건강한 몸매로 세계인들에게 인기를 얻어왔다. 브라이언 오스틴 그린은 영화 '도미노' (Domino) '어전시' (Urgency), 미국 FOX 드라마 '터미네이터-사라코너연대기' 에 출연했다.

두 사람은 2010년 6월 24일 미국 하와이의 포 시즌 리조트(Four Seasons Resort)에서 가까운 지인 6명만 모여 간소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에는 그린과 전 부인 배우 바네사 마실(Vanessa Marcil) 아들 카시우스(Cassius)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와 그린은 2004년 영화 '호프 앤 페이스' (Hope & Faith)에서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했으며 2006년 약혼과 파혼을 거듭하다 결혼에 성공했다.



메간 폭스와 브라이언 오스틴 그린 부부.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티베트 수드겐 수행자들, 美서 시위

달라이 라마에게 '종교 자유' 요구… 티베트에 소외된 탓



티베트 불교의 한 계파인 수드겐(Shudgen) 수행자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라이 라마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군의 티베트 수행자들이 달라이 라마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22일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티베트 불교의 한 계파인 수드겐(Shudgen) 수행자들이 미국 히말라야 재단(American Himalayan Foundation)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중인 달라이 라마에게 '종교의 자유' 를 요구하는 집회를 미국 현지에서 전개한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노르뎬 켈상(Norden Kelsang) 스님의 말을 인용,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망명 사회에서 수드겐 수행자 수천여 명을 파문했다"고 전하고, "이번 항의 시위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드겐 스님들이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로이터 통신은 "티베트 망명 사회에서 수드겐 수행자들은 망명 정부의 의료、복지、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수드겐 수행자들은 서구로 발길을 돌리거나 환속해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달라이 라마는 2월 21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중국의 대(對) 티베트 인권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한편 '중국 내 티베트 자치구' 에 대해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가 표방하는 소위 '티베트 자치구' 는 중국 영토의 4분의 1에다 역사상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을 건립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실질적으로 변형된 독립으로 중국 정부와 인민들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 티베트(중국명:시짱〈西藏〉)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티베트 문제 해결은 중국 민주화 개혁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는 중국 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는 2월 24일(현지시각) 중국 사회과학원 학자 출신으로 미국 컬럼비아대학 정치학과 객좌교수인 장보수(張博樹)가 "중국이 민주화 개혁에 성공하면 티베트를 비롯한 중국 소수민족 문제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크고 민주화 개혁에 실패하면 소수민족들은 밝은 미래를 바라보기 어렵다"고 예측했다 보도했다.

티베트 문제 전문가인 장 교수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강압 통치를 피해 해외로 망명한 티베트인들의 독립 염원이 이해되지만 중국의 현실에서 이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중국 민주화 체제전환 과정 속의 티베트 문제' 라는 저서 출간을 앞둔 장 교수는 티베트 독립 요구를 포기하고 중국 헌법 틀내에서 고도 자치를 요구하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중도 노선' 은 현실에 맞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에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따라서 달라이 라마의 '중도 노선' 요구는 중국 당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행동이 구체적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티베트 사태의 근본 원인은 중국 당국이 티베트 자치를 허용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고 진단하고 따라서 중국 정치 체제의 민주화 전환이 이뤄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각 계에서 당국의 민주화 개혁을 오랜 시간 기대해 왔는데도 시진핑(習近平) 체제들어 오히려 사상과 언론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시인했다.

장 교수는 그러나 중국이 내부에 모순이 많고 위기로 가득 차 있으며 민주화 개혁에 장애물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우뚝 일어나는 굴기의 기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동사섭 행복마을 용타 스님의 50년 수행의 결정체

공을 깨닫는 27가지 길

"이 책의 공리空理를 정립하기 시작한 것은 색즉시공色卽是空을 파지把持하였던 대학 시절부터였습니다. 그러하니 이 책자는 50여 년 동안 만들어져 온 셈입니다. 참으로 긴 세월 동안 묵은 책입니다. (중략) 27개의 공리를 음미할 때마다 그 하나하나에서 타-ㄱ 트인 해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의 초기에는 공리를 관행할 때만 걸림 없는 해탈감을 느끼겠지만 그 관행의 횟수가 늘어나다보면 삶 전반이 해탈감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머리말 중에서



지고한 행복으로 이끄는 동사섭 고급과정의 교재

용타 스님이 창시한 동사섭은 정체正體, 대원大願, 수심修心, 화합和合, 작선作善이라는 삶의 5대 원리를 바탕으로 한 마음수련프로그램이다. 이 책은 동사섭 고급과정의 교재로서 독자들에게 공空을 깨닫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

■ 용타 지음 | 120쪽 | 10,000원 | 변형4·6판 양장, 작은 책 부록

민족사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민족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여래장사상의 완결서인 『대승기신론』
여래장사상에 천착한 이평래 교수가 평생을 바친 역작
『대승기신론 강설』!

大乘起信論 講說

이평래 교수의

대승기신론 강설

이 책의 특징
1.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의역意譯하였다.
2. 친절한 용어 해설로 내용 이해를 도왔다.
3. 도표를 통해 대승기신론의 세계를 알기 쉽게 열어놓았다.
4. 인간의 내면세계를 긍정적으로 서술하여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준다.
5. 중요 개념은 산스크리트어를 대입해 의미를 확실하게 표현했다.
6. 법신설은 여래장사상의 정수, 법신설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강설했다.
7. 마음이 곧 '여래장如來藏' · '불성佛性', 중생이 곧 여래임을 일깨워준다.

『대승기신론』의 '대승'이란, 소승에 대한 대승이 아니라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마음의 본성이 진여라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헤매고 있다. 탐貪 · 진瞋 · 치癡 3독三毒의 번뇌에 더럽혀져 추한 존재로 있는 것이다. 대승의 실체가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 추한 마음이 깨닫는다. 오뉴월 푸른 땡감이 잘 익어서 동지섣달의 빨간 홍시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마음 밖에 깨달음의 주체가 없다는 말이다. 중생심에는 미망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힘을 갖추고 있다.
-머리말 중에서



■ 이평래 강설 | 624쪽 | 29,500원 | 신국판 양장

민족사 Tel. 02)732-2403~4

연등시공전문기업 BORYEON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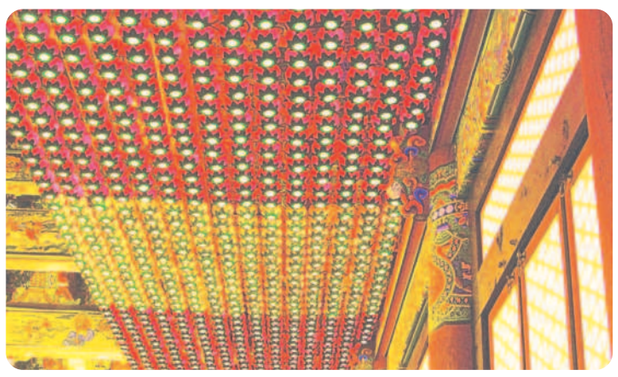
특가행사 진행중

보련기획은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품전선과 LED전구를 사용하여 직접 시공 관리합니다.

사찰명 인쇄 접수중 마감임박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팔각주름등



연꽃만월등



공 단 등



팔각접등



연화연등



정품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인등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 화 031)526-2201 / 031)526-2202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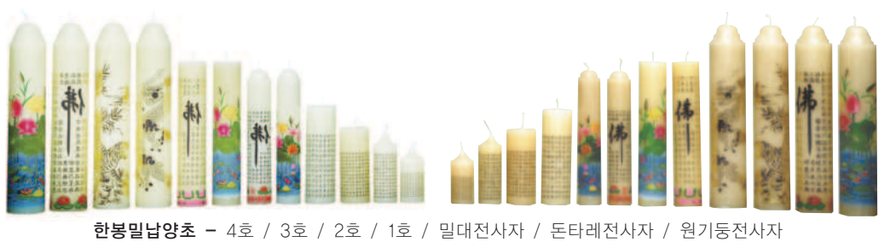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ϕ×29㎝)



한봉밀납양초 – 4호 / 3호 / 2호 / 1호 / 밀대전사자 / 돈타레전사자 / 원기둥전사자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3×6사군자 (7.4ϕ×14.5㎝) 3×6식물성사군자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ϕ×29㎝)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 / 약쑥야광연봉연꽃양초 / 약쑥1호예술연꽃양초 / 야광 연꽃초

100% 핸드메이드 자수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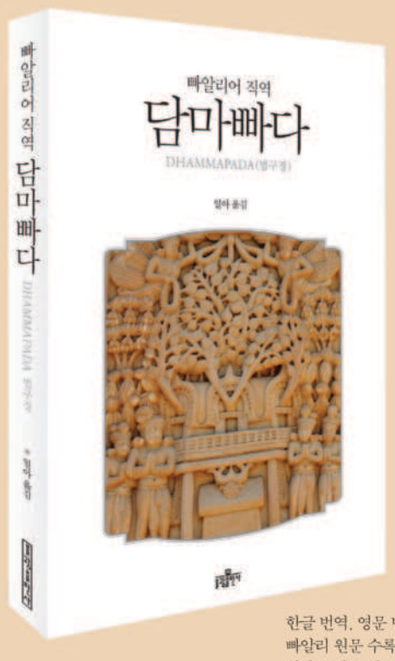
사이즈 및 소재 맞춤으로 작업가능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상품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수공에 전화상담 : H/P 010-3766-0242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정확한 번역, 간결한 문장, 손에 꼭 맞는 판형으로 만나는
빠알리 원전 번역 담마빠다(법구경)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의 일아 스님이
수년에 걸쳐 공들여 작업한 담마빠다 번역의 정본!

빠알리어 직역
담마빠다 DHAMMAPADA(법구경)

최신간

옥스퍼드 대학교, 펭귄 출판사에서 선정한 인류의 영원한 고전 담마빠다 번역 출간!

『법구경』 또는 법정 스님이 번역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불교 경전 담마빠다! 이 책은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으로 빠알리 경전의 대중화에 초석을 놓은 일아 스님의 담마빠다 번역본이다. 담마빠다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교 경전으로, 부처님의 순수한 가르침이 오롯이 잘 담겨 있다. 또 영어 번역본만 해도 100종이 넘을 정도로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번역되고 전 세계에서 두루 읽혀 고전의 반열에 오른 책이다. 종교를 초월해 보편타당한 가르침을 담고 있기에 종교, 직업, 학식을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감명을 주는 담마빠다. 빠알리 경전 연구의 권위자인 일아 스님의 정확하고 간결한 번역을 통해 불교 가르침의 정수를 만나본다.

한글 번역, 영문 번역
빠알리 원문 수록
일아 스님 옮김
224쪽 | 12,000원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번쩍이는 깨달음이 있는 이야기 속에
삶을 대하는 선사들의 빛나는 통찰력이 있다'

최신간



눈치 보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내공에 대하여

어른의 공식

장엔 지음
정이립 옮김
320쪽 | 15,000원

『어른의 공식』은 인생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선사들의 이야기 77편을 담았다. '고정된 틀을 깨부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 준다.

삶에서 깨어난다는 건 나 자신을 믿는다는 것.
나를 믿고 산다는건 얼마나 큰 축복인가!

2013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길들여진 삶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로

삶에서 깨어나기 True Refuge

타라 브랙 지음
윤서인 옮김
480쪽 | 20,000원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 흔들리는 인간관계,
위중한 질병,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 외로움과
좌절 앞에 휘청거리는 당신에게 전하는 치유 메시지.

꽃으로 그리는 깨달음의 세계

고승희 제 2회 개인전 '산화'



"불화를 그리는 일은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신비로움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여 완성했을 때의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천 번, 만 번 이상의 손길이 지나가야 완성 되는 절대적 시간 예술인 불화를 그리는 동안, 그 어느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 무한한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고승희(동국대 교수) 작가의 제2회 개인전 '산화(散華)'가 3월 26일~4월 1일 갤러리 라메르 1층 제2전시실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산화' '무엇을 말해 줄까' 등 20여 점의 불화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을 표현해낸다.

"육법공양 의식 중에 꽃 공양이 항상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 의식을 제 작품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번 전시 주제를 산화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법도 등의 내용에 보상화와 연화 등 불화에 자주 등장하는 꽃을 배경 이미지로 넣어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동국대 미술학부 교수이기도 한 고 씨는 순수 미술과는 차별화되는 종교화는 경전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 그림은 고려불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도상의 변화를 추구하죠. 이번 작품에는 석굴암 부처님을 테마로 좌우 측면, 뒷모습을 보여주는 시도도 해봤어요."

고 씨는 측면 사진을 통해 감성적인 부분의 접근을 시도했다. "여권 사진은 정면을 보여줌으로써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하지만 측면이나 뒷모습에의 사진에서는 그 사람의 감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굴암 부처님의 옆모습과 뒷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 부처님의 심오한 세계를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고승희 작가의 제2회 개인전 '산화(散華)'가 3월 26일~4월 1일 갤러리 라메르에서 열린다. 작품은 '산화'

부처님의 옆모습과 뒷모습 통해
감성적 부처님 모습 표현
보상화 연화 등으로 배경장식
3월 26일부터 갤러리 라메르서

평생 불화를 자신의 업으로 삼겠다는 고승희 작가. 불교 집안에서 자라 어린시절부터 어린이법회를 다니며 사찰문화에 익숙했던 고 작가가 불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미대 입시를 준비하던 재수생 시절이다. "미대입시 관련 잡지에서 불교미술학과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죠. 그때 불교미술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물론 대학에 들어가서는 생각했던 것과 달라 많이 헤맸어요. 하지만 3학년 때부터 재미를 붙였고 불화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불교공부를 충실히 해야만 불화를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불화를 그리는 일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22년 동안 불화를 그려왔지만 아직도 불화는 여전히 어렵다고 말하는 고 씨. 하지만 그녀는 오늘도 불화를 통해 부처님의 세계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세계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을 그린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참되고 정직한 예술이죠. 저는 제 작품을 통해 대중들이 불심을 키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승희 작가는 동국대학 대학원 미술학과 불교미술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동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동국대 불교미술문화재조형연구소 학술연구팀장과 대전광역시 문화재전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2012년 제 1회 개인전 외 1995년부터 현재까지 100여회 단체전을 가진 바 있다. (02)730-5454 **정혜숙 기자**

만해 민족정신 '옥중 한시'로 기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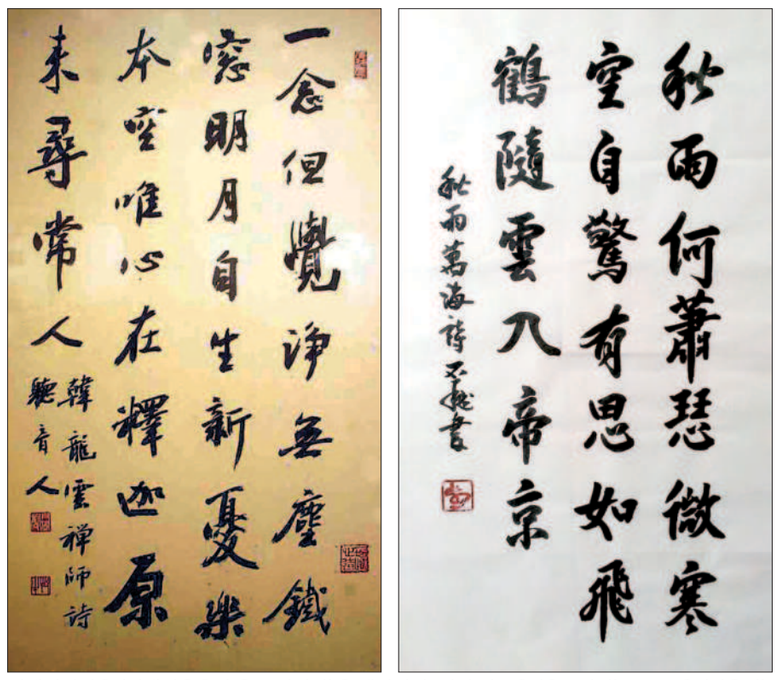
만해기념관 특별기획전
3월 31일까지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은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가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1926년 시집 〈님의 침묵〉을 출판해 저항문학에 앞장섰으며 1937년 불교관계 항일단체인 만당사건(卍黨事件)의 배후자로 검거되기도 했다.

스님은 평생 동안 불교의 혁신과 작품활동에 매진하다가 서울 성북동 심우장에서 입적하셨다. 심우장은 조선총독부와 마주보기 싫다는 이유로 북향으로 지어졌을 만큼 스님의 저항정신이 투철히 배여 있는 한옥 건물이기도 하다. 또한 스님은 문학사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불교적인 '님'을 자연(自然)으로 형상화했으며, 고도의 은유법을 통해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정신과 중생제도를 노래하며 한국 근대문학의 큰 획을 그었다.

남한산성 만해기념관(관장 전보삼)이 3·1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만해 한용운 스님의 민족독립운동 정신과 역사의식을 기리는 전시를 갖는다. 3·1절 95주년을 맞아 만해기념관은 3월 30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만해 한용운의 옥중 한시'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민족독립을 위해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민족 자존심을 지킨 한용운 스님의 옥중 한시 서예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만해기념관은 전시에서 스님의 옥중 한시 15점과 한글시 '무궁화 심으과저' 등 총 16점과 3·1운동 관련 자료를 전시한다. 또한 한용운 스님의 시를 석주 스님과 현담 조수현 교수, 청음인, 비월 오정교의 서예 작품으로 만날 수 있다. 만해기념관은 "이번에 전시되는 자료와 시는 대부분이 3.1운동 이후 옥중에서 쓴 시"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옥중에서 느끼는 스님의 감회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다.



만해기념관은 '만해한용운의 옥중 한시전'을 개최한다. 사진 왼쪽은 '옥중감회' 오른쪽은 '가을비'

옥중감회·농산의 앵무새 등
스님의 옥중 한시 15점과
3·1운동 관련 자료 전시

물처럼 맑은 심경 티끌 하나 없는 밤
철창으로 새로 돋는 달빛 고와라.
우락(憂樂)이 공이요 마음만이 있거니
석가도 원래는 예사 사람일 뿐.

獄中感懷 (한용운 시, 청음인 씀)

옥중에서도 달빛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맑히는 스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다. 우락(憂樂)이 공이라고 했으니 달빛의 아름다움 속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스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근심과 즐거움을 뛰어넘어 부처의 세계에 닿고자 하는 스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한시이기도 하다.

만해기념관은 "민족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만해 한용운 스님의 옥중 한시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재조명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정신과 독립의지는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데 정신적인 지표로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한다. (031)744-310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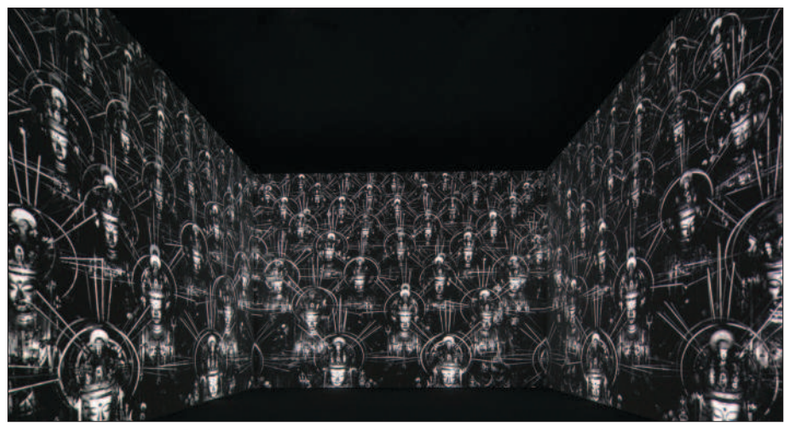
소멸을 향해가는 현대문명 성찰한다

히로시 스기모토 '사유하는 사진' 전
3월 23일까지 리움 미술관에서

현대사진의 거장 히로시 스기모토(1948~)의 '사유하는 사진' 전이 3월 23일까지 삼성 리움 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작가의 대표적 사진 연작 및 최근의 조각설치, 영상을 포함하는 49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한 19세기 대형 카메라와 전통적 인화방식의 명맥을 유지하는 장인적 기술의 사진을 감상하는 동시에,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인간 삶과 의식의 기원을 탐구하고 정신성의 회복을 촉구하는 스기모토의 예술 세계를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가속하는 불상'(1995-2013) 연작은 사진으로 이루어진 '부처의 바다'(1995), 3채널 영상인 '가속하는 불상'(1997/2013), 17점의 조각 설치 '5 원소(Five Elements)'를 아우르는 총체적 작업이다. 이 연작을 통해 스기모토는 소멸을 향해 가속해 가는 현대문명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의식의 기원을 찾아 정신적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하는 염원을 시각화한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미지들은 시선을 멈추게 하고 새로운 사고를 유발한다. 시간을 거슬러 보이지 않은 기억을 더듬는 스기모토의 작품은 속도를 경주하는데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느리고 깊게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이밖에도 미국의 1920~30년대 아르데코 극장들과 1950~60년대 씨네마 홀, 자동차 극장들을 장노출 기법을 사용해 찍은 연작 작가의 초기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극장(1975~)'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시간성과 장소성을 상실한 몽환적인 분위기를 담아낸 '바다풍경(Seascapes)'(1980~)' 등도 감상할 수 있다.



히로시 스기모토의 사유하는 사진전이 3월 23일까지 열린다. '가속하는 불상'

히로시 스기모토는 일본 도쿄의 세이트폴 대학교과 릿쿄대학에서 정치학과 사회학을 공부하고 미국 LA의 아트센터 디자인 컬리지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2001년 사진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핫셀블라드상' 수상, 2009년 영국 더타임스의 '1900년 이후 활동한 가장 위대한 예술가 200명' 선정 등 세계 미술계의 존경을 받고 있는 거장이다.

그는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간결한 형식, 깊이 있는 개념, 장인적 기술로 무장한 심도 있는 연작들을 발표했다. 1995년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을 비롯해 2000년 독일 구겐하임미술관, 2006년 워싱턴 스미소니안 아서 M. 새클러 갤러리, 2005년 도쿄 모리미술관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다. (02)2014-6900 **정혜숙 기자**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인천 직항 & 부산 출발】 부처님오신날 특가

* 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고/시리암 5일 요금문의
양곤/바간/헤호 5일 요금문의
* 백두산 5일, 6일 요금문의
*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7일 요금문의
(지장도량, 관음도량) 요금문의
* 구화산 (지장도량) / 황산 5일 요금문의
* 은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불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 양곤 바간 헤호 5일 ..... 요금문의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 ..... 요금문의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짜익티오 7일 ..... 요금문의

【중국 정통 4대 불산 성지순례】
• 지장도량 (구화산) 5일 ..... 요금문의
• 관음도량(보타.낙가산) 5일 ..... 요금문의
•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 ..... 요금문의
•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조주 관음원 6일 ..... 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대불,구채구 황룡 6일 ..... 요금문의

【품격 성지순례】
• 스리랑카 정통 성지순례(직항) 7일 ..... 요금문의
• 은둔의나라라오스성지순례(직항) 5일 ..... 요금문의
• 인도8대 성지순례 10일 .....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요금문의
•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성지순례 5일 ..... 요금문의

중국·태국 라오스 현지 직영 사무실 OPEN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기사, 각국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 2억원 여행자보험가입

문화人

"세상을 수행처 삼아, 노래를 화두 삼아 재즈의 길을…"

불자 재즈가수 웅산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관음정근을 하고 반야심경을 외웠던 소녀는 고등학생이 될 무렵 학교를 가는 대신 출가를 선택했다. 번다한 속세보다 조용한 산사가 좋았던 그녀는 그렇게 스님이 되었다. 법명은 웅산이었다. 수행자로 2년 동안 산사에서 참선을 하고 관음정진을 하며 세속의 물을 벗어갈 즈음 그녀는 자신 안에 버릴 수 없는 꿈이 요동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끊임없이 염불이 노래가 되어 자신의 내면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온 마음이 온 몸이 간절히 음악을 원하고 있었다. 그녀는 산사를 떠났다. 환속이었다. 예술가와 수행자는 같은 운명이라고 했던가? 그녀는 세상을 수행처 삼아 노래를 화두 삼아 새로운 구도의 길을 선택했다.

한국 최고의 재즈 디바이자 불자가수 웅산은 이렇게 탄생했다. 웅산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일본 재즈 마니아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500회가 넘는 공연과 1년에 4차례 전국 투어를 가질 만큼 그 인기는 대단하다.

그녀는 지난 2월 5일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되면서 또한번 불자 가수임을 증명했다. 이는 음악으로 세상과 나누는 길을 찾아보겠다던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택이기도 했다. "제가 가진 신체의 일부를 다른 생명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이죠. 생명나눔 홍보대사는 그래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의 보시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웅산은 개그맨 이동우 씨에게 2년 전부터 재즈 보컬 트레이닝을 해주고 있다. 이 씨는 2004년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진행성 난치병 진단을 받고 시각장애인이 됐다. 이런 그에게 웅산은 2년전부터 재능보시로



최근 7집 앨범을 낸 불자가수 웅산은 일본 투어 콘서트에 나섰다.

시각장애인 개그맨 이동우에게
재즈 가르치며 재능보시
최근 생명나눔 홍보대사 위촉
7집 발매 기념 일본 콘서트도

재즈 트레이닝을 해주었고 지난해 이 씨는 재즈음반 '스마일'을 내면서 콘서트까지 여는 기적을 일으켰다.

"2년 동안 일주일에 한두번씩 만나서 트레이닝을 시켰죠. 한번 만날 때마다 기본 세 시간 정도는 트레이닝을 해줬어요. 이동우 씨가 틴틴파이브로 데뷔한 가수이기도 한데 재즈를 배우면서 음악인으로서 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죠. 스스로 힐링이 됐다고 해요. 지금도 꾸준히 트레이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알았어요. 세상과 나누는 일이 얼마나 가슴 뜨겁고 보람된 일인지요."

지난해 연말 7집 앨범을 낸 웅산은 2월 말부터 일본 6개 도시를 돌며 일본의 기타리스트 지로 요시다와 듀오공연을 한다. 웅산은 98년부터 일년에 세 번 정도 일본 공연을 이어왔다. 그녀의 이번 7집 앨범에서는 타이틀곡이자 애절한 발라드곡인 'I Love You'를 비롯해 블루스 'Mr.Blues', 보사노바 'Asi Que', 탱고 'Mi Tango Triste' 등 송라이터로서 다채로운 장르에 도전한 웅산스타일의 음악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이번 앨범에서는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재즈보컬리스트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도전했다. 그 중 어린시절부터 들어왔고 그녀의 음악적 뿌리라 할 수 있는 록과 블루스 장르 뿐 아니라, 탱고와 보사노바 같은 라틴뮤직, 그리고 재즈화하기 힘들었던 오페라 명곡까지 소화해낸다.

재즈는 또다른 수행과도 같다고 말하는 웅산. 그래서 그녀는 음악을 통해 무한한 자유를 얻고 깨달음을 얻는다. "노래를 시작하면서 알았어요. 참선을 했던 게 큰 자산이었다는 것을. 이미 정진을 하면서 복식 호흡을 저절로 체득했고 이것이 현재 노래하고 있는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재즈는 가장 큰 자유를 이야기하는 음악입니다. 한없는 자유를 얻기 위해 노래하죠. 불교 역시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자유를 구한다는 점에서 둘은 통하는 부분이 많아요."

매번 공연 때마다 무대 위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울컥하는 마음을 애써 감추느라 입가에 미소를 가득 머금는다는 웅산. 자신의 음악을 듣기 위해 와준 관중들을 보면 늘 감동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라고. 그녀가 무대에서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단 한가지다. 록을 하던 자신이 빌리홀리데이 음악에 반해 재즈를 시작했듯이 다른 누군가의 가슴에 그 가슴 떨리는 재즈의 울림을 전해주고 싶다는 웅산. 그래서 그녀는 오늘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며 재즈 수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웅산은 관중들에게 재즈의 감동을 전하기 위해 늘 최선의 무대를 펼친다.



웅산 7집 앨범 'I Love You' 표지

배를 돌려 신선 세상 찾아가 보세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⑩ 삼당(三唐)시인과 봉은사 下





봉은사 일주문인 진여문 옆에 세워진 각종 공덕비와 송덕비가 절의 역사를 말해준다

하룻밤 절집에 함께 자면서

일찍부터 시재(詩才)를 드러내 주목 받았던 백광훈은 진사나 참봉쯤의 벼슬을 살기는 했지만, 출세의 길에 들지 않고 강호로 몸을 피해 자오(自娛)의 삶을 누렸다. 당대의 명유(名儒) 문객과 두루 교유하기도 하며 문장을 떨쳐 8문장의 하나로 꼽히기도 했고, 글씨를 잘 써 영화체(永和體)에 일가를 이루기도 했다.

1578년 8월 11일 삼당시인이 봉은사에 모여 하룻밤을 함께 지냈다. 북쪽으로 떠나는 이달을 전송하는 송별모임이었다. 세 시인은 시풍을 함께 나누는 글벗이기도 했고 맑은 기상과 가난이라는 재산도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봉은사를 자주 찾았고 동호 인근의 한강 풍경을 함께 감상하기도 했다. 세상에서 그들을 삼당시인이라 불러주지 않아도 이미 그들은 지음(知音)의 자리에서 깊은 교유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심추수사(重尋秋水寺)
연수광릉서(煙樹廣陵西)
문경로비원(聞磬路非遠)
망운행역미(望雲行亦迷)
야심승입정(夜深僧入定)
월출조경서(月出鳥驚棲)
공취중료숙(共就中寮宿)
한산벽전제(寒山碧殿齊)

다시 가을 든 봉은사를 찾으니
광릉의 서쪽 안개 낀 나무숲.
경쇠소리 들리니 길은 멀지 않은 듯
구름을 바라보니 갈 길이 어지럽다.
밤 깊어 스님은 입정하였는데
달이 떠 새는 둥지에서 놀란다.
요사채에 나아가 자노라니
차가운 산 푸른 전각 가지런하구나.
–백광훈 '8월 11일 밤…' 〈옥봉집〉

이 시의 갖추어진 제목은 '8월 10일 밤에 가운(嘉運) 익지(益之)와 함께 봉은사에 자면서(八月十一夜與嘉運益之同宿奉恩寺)' 이다. 가운은 최경창이고 익지는 이달이다. 그러니까 8월 10일 밤에 최경창 이달과 더불어 봉은사에 자면서 쓴 작품이라는 얘기다.

삼당시인들이 추구했던 당시풍이란 구구한 설명조의 시가 아니다. 담박하게 풍경을 보여주고 감성적으로 경물(景物)을 묘사하여 서정을 공감하게 하는 창작법이다. 이를 두고 '말하는 송시' 와 '보여주는 당시' 로 비교하기도 한다.

아무튼 이달이 관북지방으로 떠나기 직전에 모여 시를 얘기하고 인생을 토론했을 청빈한 세 시인의 하룻밤 풍경이 백광훈의 오언율시로 잘 그려져 있다.

시의 도입부는 안개가 덮인 강변 나무숲 속의 봉은사로 찾아가는 장면이다. 봉은사는 동호 건너에 있었기 때문에 '호사(湖寺)' 혹은 '수사(水寺)' 라 불렸다. 숲 속의 절이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경쇠소리를 통해 절이 가까이 있음을 짐작하겠다. 거기에 하늘의 구름도 어지럽게 흩어진다고 했으니 저녁을 맞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윽고 밤은 깊어 스님은 입정에 들었고 달이 떠 둥지의 새들이 깃을 친다. 그렇게 적적한 산사의 밤이 깊어간다. 적요 속에 놓여 있는 봉은사.

한산(寒山)은 봉은사가 위치한 수도산이고 벽전(碧殿)은 새로 지어 말쑥하게 단청된 전각이니, 마지막 구절은 산과 절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세 시인이 나란히 절 방에 누워 열려진 문을 통해 절의 추녀와 산의 마루금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풍경이 그려지지 않는가?

귀거래의 열망

이제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나이 들어 봉은사를 찾은 백광훈의 마음이 그려진 시를 보자.

우인휴완도운문(偶因休浣到雲門)
파주제시승사존(把酒題詩勝事存)
홍우일지풍만원(紅藕一池風滿院)
만선천수우귀촌(晩蟬千樹雨歸村)
심참호수종기환(深慙皓首從羈宦)
유희청산사고원(猶喜靑山似故園)
문설금호연경이(聞說錦湖煙景異)
회용고도문진원(會容孤棹問眞源)

우연히 휴가 받아 절에 이르러
술잔 들고 시를 지으니 좋던 일 남아 있네.
온 못의 붉은 연꽃 바람 뜰에 가득하고
천 그루 나무 저녁매미 우는 마을로
돌아간다.
흰 머리에 벼슬살이 하는 신세
부끄럽지만
푸른 산이 고향 같아 그래도 다행이네.
비단 같은 강물 안개 낀 경치 좋다하니
배를 돌려 선경을 찾아감이 좋으리라.
–백광훈 '봉은사 연정에서…' 〈옥봉집〉

백광훈의 대표 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 작품의 제목은 '봉은사 연정(蓮亭)에서 교리 이백생이 지어 보인 시에 차운하다(奉恩寺蓮亭 次李校理伯生見示之作)' 이다. 시의 내용으로 볼 때 백광훈이 어느 정도 나이 들어 봉은사를 찾아와 글벗들과 어울려 수창(酬唱) 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쓴 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의 절정은 미련에서 새로운 이상향의 세계를 찾아가고자 하는 동경심을 그려낸 대목이라 하겠다. '배를 돌려 선경을 찾아감' 은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 곧 귀거래(歸去來)의 열망이다.

봉은사는 능침사찰로서 관료들의 발길도 잦았지만, 독서당이 있는 동호와 가까워 많은 선비들이 답사하며 시를 짓는 문화공간이었다. 자연 속의 봉은사는 시인묵객들에게 자연이면서 근원이어서 무량한 시심을 길어 올리며 삶을 풍성하게 하는 자양의 공간이었다. 그 중심에 삼당시인의 흥취가 채색되어 있다.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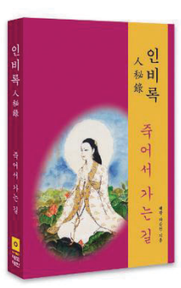
값 15,000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天 秘 錄!"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도서구입문의 : ☎ 063)643-7285(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철도문고/
불광문고/대한서림/대동문고/중앙출판/세원출판/홍지서림/
영광도서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인 비 록 (죽어서 가는 길)



값 15,000원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웹진 인비록 : http://www.ddblog.co.kr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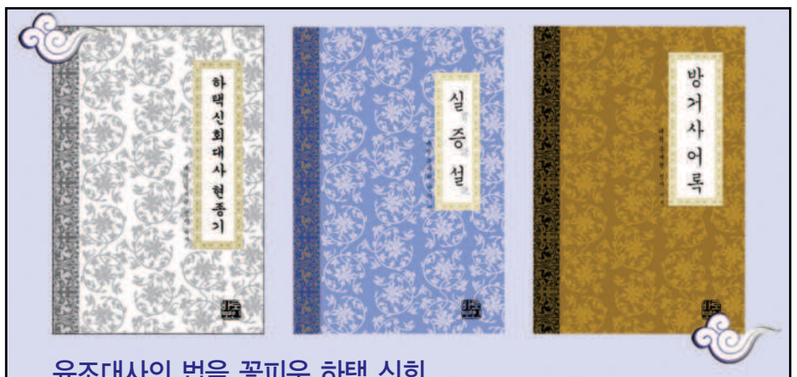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육조대사의 법을 꽃피운 하택 신회 대사의 깨달음의 경지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실증하지 않고는 설파할 수 없는 실증의 법문 실증설(實證說)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말 밖의 말 방거사 어록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대한불교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현재 32종 64권의 저서 출간 !
031-534-3373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19 ~ 2/2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알고 보면 괜찮은	마가	불광출판사
3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4	공 – 공을 깨닫는 27가지 길	용타	민족사
5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6	화내지 않는 43가지 습관	마스노 순묘	담앤북스
7	능가경 강의	남회근	부키
8	어느 불교무신론자의 고백	스티븐 배철러	궁리
9	삶에서 깨어나기	타라 브랙	불광출판사
10	치유하는 유식 읽기	서광	공간



카툰으로 만나는 일상의 행복



행복한 명상카툰
글·그림 배종훈
담앤북스 펴냄
13800원



일상을 명쾌한 그림으로 표현
짧고 담백한 글로 깨달음 전해

"우리 삶에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파란불이 켜져 거칠 것 없이 달릴 때도 있지만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 멈춰야 하지요. 그러다보니 누구든 자신의 삶에는 파란불만 켜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신호등이 파란색이면 누군가는 빨간불이라 갈 수가 없지요"

고락(苦樂)이 동반되는 중생의 세계에서 파란불과 빨간불은 공존할 수밖에 없는 법. 하지만 매일 파란불만 켜지기를 바라는 중생이 빨간불의 존재를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늘 거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신호등이 삶의 단순명료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음에도 말이다.

카투니스트 배종훈 작가는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과 에피소드를 통해 짧은 법문을 전해준다. 그의 작품은 간결한 깨달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파고든다. 〈행복한 명상카툰〉에 담긴 153컷의 카툰은 질주하는 우리네 일상에 쉼표를 던져준다. 그래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한다.

이 책은 '하루하루' '행복하기, 사랑하기' '성공하기, 비워내기' '마음수행' 등 총 네 개의 장으로 나뉘어 일상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낸다. 작가는 일상의 순간을 정지시켜 카툰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생각을 담은 짧고 담백한 글을 담아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비우며 살아가는 방법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지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스스로에게 관대해지지 마세요."

혹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나태해지지 않나? 혼자만의 시간에서 철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타인과 함께 쓰는 시간도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가장 두려운 시간'은 구름을 걸친 푸른색 산에 소박하게 자리한 산사를 통해 자신의 시간에 떳떳할 수 있다면 세상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울 일이 없음을 말해준다.

작가는 신호등, 컵라면, 거울, 술병 등 주변의 사물들을 통해 일상을 돌아본다. 그렇다면 작가가 말하는 행복이란 뭘까? 그 답은 '최고의 라면 맛'에서 찾을 수 있다. "제 기억에 가장 맛있었던 라면은 군대에서 겨울 혹한기 훈련 마지막날 행군을 마치고 쓰러져가는 비닐하우스에서 서서 먹었던 라면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잊고 라면 맛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앉으면서 일어설 것을 생각하고 잠들기 전 내일을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은 잊고, 올지 모를 내일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 우습지 않나요?"

그렇다. 우리의 행복은 지나 버린 과거에도 또 다가올 미래에도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 행복하기' 그것이 선이고 곧 도다. 하지만 우리 속에 망상이라는 도둑이 들어오면 과거와 미래를 헤매다가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게 되지 않는가? 한 그릇의 컵라면은 이처럼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따끈한 충고를 해주고 있다.

이처럼 작가의 그림에는 '익숙함', '따뜻함' 그리고 '비움'이라는 코드가 담겨 있다. 그는 선이나 명상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도 흔히 범할 수 있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현직 국어교사(성보중학교)인 작가는 일상 곳곳을 수행처 삼아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해준다. 그래서 밥을 먹다가, 등산을 하다가, 편지를 쓰다가 문득 문득 느껴지는 것들을 주제로 찾아낸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익숙하다.

또 그의 그림은 따듯하다. 그림 속에는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미운 사람에게 마저 보내는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의 그림에는 여유와 비움이 있다. 장황한 설명보다는 마음에 여유가 느껴질 만큼 많은 공간과 단순함이 그의 그림 속에는 있다.

작가는 말한다. "깨달음, 행복, 사랑 만족…이 모든 것을 밖에서 찾고 계시지 않나요? 자신이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말입니다. 마음의 주인 되세요. 그리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었는가? 〈행복한 명상카툰〉을 읽으며 밖으로 향했던 마음을 안으로 모아보자. 그래서 하루하루를 되새기고 돌아보며 지금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보자.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중국판 〈담마빠다〉 아닌 부처님 〈담마빠다〉

담마빠다(법구경)

일아 옮김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2천원



"진리란 더 말할 것도 없이 간단명료한 가르침이다. 따라서 그 표현도 더없이 단순하고 소박하다. 짧은 글 속에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이 경전의 원 이름 〈담마빠다〉가 곧 '진리의 말씀'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법정 스님.

〈법구경〉 또는 법정 스님이 번역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불교 경전 〈담마빠다〉이다. 이 책은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으로 한국에 초기불교 대중화의 초석을 놓은 일아 스님의 〈담마빠다〉 번역본이다. 〈담마빠다〉는 부처님 직제자들에 의해 집성된 초기경전인 빠알리 경전 중에서도 그 성립 연대가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423개의 게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수하고 소박한 글 속에 번득이는 지혜를 담고 있는 〈담마빠다〉는 영어 번역본만도 100종이 넘을 만큼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번역되고 전 세계에서 두루 읽혀 고전의 반열에 오른 책이다.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르침을 담고 있기에 국적과 신분과 종교를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깊은 감명을 주는 〈담마빠다〉이다. 빠알리 경전 연구의 권위자인 일아 스님의 정확하고 간결한 번역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도 이미 다양한 판본의 〈담마빠다〉가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담아낸 〈담마빠다〉가 아니라, 중국을 통하면서 중국적인 사유가 첨가된 '중국판 담마빠다', 즉 〈법구경〉이 주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다. 실제로 빠알리 원문은 26장 423개 게송으로 되어 있는데, 한역본은 39장 752개 게송으로 된 것과 33장 950개 게송으로 된 판본이 있다.

〈담마빠다〉가 아닌 〈법구경〉이 주로 읽히는 현 상황이 아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법구경〉에는 중국 고유의 사유와 부처님 가르침이 혼재하고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롯이 알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배우고자 하는 이들은 오래전부터 빠알리 경전을 탐독하고 있었고, 이런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빠알리 원문을 번역한 몇몇의 〈담마빠다〉가 국내에도 출시되었지만 불교를 전문으로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부합되는 면이 있으나 일반인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다.

이번 책의 특징은 첫째, 직역을 하듯이 단어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 원문의 뜻에 충실했다. 둘째, 빠알리 원문을 함께 실어 초기불교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다. 셋째, 영어 번역을 함께 실었다. 넷째, 가지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도록 작게 만들었다. 다섯째, 어려운 불교 용어의 이해를 돕는 주석을 달았다. 여섯째, 〈담마빠다〉의 폭넓은 이해를 위하여 자세한 정보를 부록으로 실었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새롭게 배우는 오륜삼강의 지혜

공자가 들려주는 관계의 미학

김지수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5천원



유교의 오륜을 중심으로 세간의 인간관계에 대해 살표본 책이다. 저자는 말한다. 하늘과 땅사이에 인간이 가장 존귀하다고. 그래서 사람간 평화는 어느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관계를 운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관계가 행복한 삶의 기반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누군가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이 세워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성을 저자는 소아(小我)와 대아(大我)의 조화로 표현한다.

"각자 다양한 소아(小我)간에 서로 개성을 존중하면서 자연스런 조화를 이룰 때, 하나의 대아(大我)에 녹아들어 궁극의 '대동(大同)'에 이른다."

불교의 오계에 충실히 살아온 저자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인간의 근본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한다. 화(和)를 중심으로 인간관계와 사회관계, 나아가 나라 사이의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대동사회를 제시하며 이를 이루는 길로써 전통적 오륜과 삼강의 재조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책은 단순히 과거 전통을 답습하거나 재발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오륜과 삼강의 정신을 토대로 둘 때만이 인간관계의 아름다운 조화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열린다고 저자는 보고 있다.

책은 총 아홉 꼭지로 구성됐다. 공자와 유교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전락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유교 사상이 새로운 문화시대의 대안이 될 수 밖에 없는 시대정신을 전망한다. 저자에 따르면 오륜과 삼강, 유신 등의 전통 규범은 사실 상대적이고 수평적이며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 마련됐다.

이어 유교의 오륜을 챕터별로 나눠 본래 참뜻을 밝힌 후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려고 시도한다. 예를 들어 '새로 듣는 군신유의' 편에서는 전통적 유교의 본래 정치철학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인 민본주의 왕도정치에 있다며 이를 현대 정치사에 되비추고는 전통에 입각한 올바른 역사관과 정치관을 정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어 이 책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마지막 챕터 '관계의 미학'에서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내세운 오륜과 삼강윤리에 깃든 중용의 미덕이 현대인에게 중요한 덕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동양사상에 심취해 다년간 유불선을 공부해온 저자의 통찰력은 유교의 인, 의, 예, 지, 신 다섯가지 오상(五常)을 불교 오계와 대비하며 상관성을 짚어보는 데서 발한다. 예를 들어 불살생은 어질 인(仁)의 핵심으로 이는 다시 불교의 자비라는 생명윤리로 승화된다. 술을 삼가라는 오계는 지(智)로서 이는 다시 지혜로 연결된다.

자신과의 조화, 나아가 타인과 세상과의 조화와 평화를 꿈꾸는 이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깊고 풍성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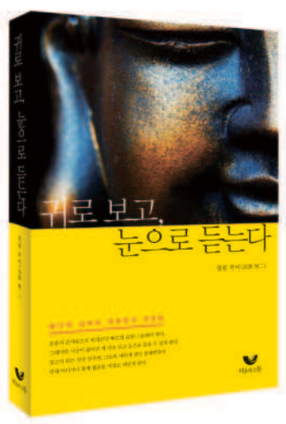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우주의 주인공, 걸림없는 대자유인으로 살아가라!



의지함이 없는 도인(無依道人)으로 사는 법
임제록 강설 덕산 역해 | 46판 | 흑백 | 432쪽 | 15,000원

'선어록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임제록은 당나라 때의 고승 임제의현(臨濟義玄)선사의 독특한 가풍(고함지르는 할 · 喝이 대표적)을 보여주는 어록으로서, 실천적인 선(禪)의 진수를 설파한 명저다. 임제스님은 조계종의 선맥(禪脈)이기도 하며 일본 임제종의 연원이기도 하다. 덕산스님은 선(禪)의 세계를 바로 알리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구가할 수 있도록 법어와 선문답 등을 쉽게 풀이했다.

'줄 없는 거문고' 연주하고 '구멍 없는 피리소리' 들으며
고해를 건너 니르바나 언덕에 닿게하는 '밑 없는 배'



간화선 수행의 실제와 깨달음의 연금술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다
청원무이 저 | 46판 | 흑백 | 468쪽 | 15,000원

이 책은 청원 무이법사(지불회 지도법사)의 30여 년에 달하는 진솔하면서도 감동적인 구도기로부터 시작된다. 제1장 평상심의 일상, 제2장 불조(佛祖)의 가르침과 수행의 실제, 제3장 깨달음의 연금술, 제4장 선(禪)의 뒤안길, 그리고 화두 관문인 무이십관(無二十關)으로 구성된 이 책은 파란고해를 건너 니르바나 언덕에 닿게해줄 '밑바닥 없는 배'가 될 것이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한민족 삶 속에 전승된 불교생활문화



절에 가는 날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엮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8천원


초파일의 불교풍속 연등회. 세계적 축제가 된 연등축제모습.

책은 우리 민족의 삶과 정서가 담긴 불교 세시풍속과 일생의례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선조들의 지혜를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에서 엮었다.

불교 세시풍속과 일생의례에 대한 발굴과 전승은 불교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책은 한민족의 역동적인 삶 속에서 전승되어 온 이러한 불교생활문화를 체계적으로 다루어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불자들이 '자연의 순환' 과 삶의 순환 ' 속에서 보다 불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간되었다.

불교문화의 의미와 전승주체들의 수용양상을 분석해 온 불교민속학자 구미래, '불교' 라는 주제를 교리, 역사, 인물, 문화, 미술, 상징 등의 관점으로 조명해 온 자현스님, BBS '경전의 숲을 거닐다' , 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을 진행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의 이야기와 쉬운 문장들로 전하는 이미령, 세 필자들이 집필을 맡았다. '한국불교의 세시풍속과 일생의례' 에 대한 정수만을 뽑아 엮었다. 불교세시풍속과 일생의례에 담긴 의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민족의 불교생활문화 조명
불교세시풍속 · 일생의례 정수
자현 스님 · 구미래 · 이미령 집필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불교세시풍속' 에서는 설에서 윤달의 가사불사에 이르기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절기마다 담긴 불교세시풍속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단순히 불교와 절기의 상관관계만을 엮은 것이 아니라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설날 부처님 전에서 가족과 이웃, 중생을 위한 발원, 적선공덕, 지혜와 자비의 구족에 대한 가르침을 은은하게 전달하고 있다.

정초에 행해지는 성도놀이의 경우 불교에 처음 입문한 불자들이 놀이를 통해 불교의 교리와 세계관을 흥미롭게 익힐 수 있으며, 수행자들은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되새기면서 신심을 고양시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사월초파일에 행해지는 호기놀이와 물장구놀이는 어린이의 명절이라 할 만큼 아이들이 주체가 된 독특한 놀이이기도 했다.

사월초파일, 칠월백중, 정월대보름과 팔월 한가위의 강강수월래가 탑돌이에서, 다리밟기는 월천(越川)공덕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듯이 한국의 세시풍속에는 불교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2부 '불교의례' 에서는 부처님오신날, 출가재일, 성도재일, 열반재일, 우란분절 등 불교의 5대 기념일과 불교의 재일을 다루었다. 부처님 탄생과 열반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통해 종교적으로 정리되고 체계화된 측면에서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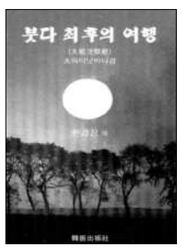
3부 '일생의례' 에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경전에서 의미들을 찾는 방법을 통해 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산모, 성년, 부부가 됨을 서약하거나, 나이 듦을 축복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발원문이 담겨 있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와 우리 민족의 삶과 정서를 함께 해온 지 어언 1700년이 흘렀다. 이러한 불교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고양을 위해 정성을 기울이고, 때로는 기존의 민간신앙과 서로 대립, 교류하는 가운데 중생의 삶과 뗄 수 없는 하나의 문화로 융화되었다. 한국의 사계(四季)에 담긴 불교 세시풍속은 자연의 순환리듬 속에서 부처님의 가피가 우리 삶에 깃들기를 바라는 간절한 발원들이 모여 형성되었다. 불교력(佛敎曆) 또는 동북아의 불교적 배경에 따라 정립된 5대 기념일과 주요 재일 및 자연세시인 명절과 절기에 행하는 불교적 풍습은 한국의 소중한 전통문화로 뿌리내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중요한 단계마다 치르는 일생의례는 우리 민족의 불교적 일생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특히 불교의 일생의례에 대한 관심은 주로 사후에 집중되어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자식을 낳아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에 이르기까지 일생의 전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감로의 지혜가 담겨 있다.

부처님의 마지막 육성

붓다 최후의 여행–대반열반경

한갑진 옮김 | 한진출판사 | 1만원



책은 '난중일기' 등 290여 편의 영화를 제작한 바 있는 한진영상 회장이며 한진출판사 대표인 한갑진 선생이 옮긴 〈대반열반경〉과 부처님의 일대기를 함께 묶은 것이다.

"아난다여, 내가 가고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부처님이 입멸하시고 남은 제자들은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생각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유훈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곧바로 부처님 말씀을 결집하는 대합송 작업에 들어갔다. 그 작업은 라자가하의 칠엽굴에서 장장 7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부처님의 마지막 행적도 소상히 합송하여 부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전승하고자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디가니까야〉 제2권의 〈대반열반경〉이다.

〈열반경〉은 부처님 입멸 후 초기에 성립된 〈소승열반경〉과 대승불교가 일어난 후 성립된 〈대승열반경〉으로 구분되는데, 모두 그 이름을 〈대반열반경〉으로 하고 있어 제목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 책은 〈소승열반경〉빠알리 본을 옮긴 것이다.

〈소승열반경〉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만년에 마가다의 수도 왕사성에서 쿠시나가라 지역의 사라쌍수에 이르기까지 여행하는 도중에 있었던 일들과 법문들, 공양을 받고 병을 얻으신 일, 최후의 설법, 열반에 드시는 모습, 다비의 절차, 다비 후 얻어진 사리의 분배 등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 〈소승열반경〉은 부처님의 입멸을 통해 인생의 무상과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무상과 죽음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것을 투철하게 관찰하는 것에 의해 인생에 대한 집착을 끊고 유전하는 인생에 동요함이 없이 자기를 확립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육신의 허망성과 한계를 보여 줌으로써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에서 도피하지 말고 그 문제와 마주앉아 투철하게 대결할 것을 몸소 보여준다.


90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반열반경〉을 펴낸 저자 한갑진.

〈소승열반경〉이 부처님의 입멸 과정을 역사적인 사실로 서술하고 있는 데 반해, 〈대승열반경〉은 역사적인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종교적 의미를 밝히려 하고 있다. 부처님이 여행하시는 모습이라든지 열반에 드신 후 화장하는 모습들이 묘사되지 않고 있다. 〈대승열반경〉의 관심사는 하늘과 땅으로부터 존경을 받은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왜 돌아가시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주류를 이룬다.

책의 후반부는 올해 90세인 역자가 평소 정리해놓은 '부처님의 일대기' 이다.

역자는 "나이 90세이 책을 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마감하는 가에 대하여 이 책은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며 "이번

사랑과 욕망은 서로 다르다

틱낫한 스님이 말하는 섹스, 그리고 사랑

틱낫한 지음 | 신소영 옮김 | 영림카디널 펴냄
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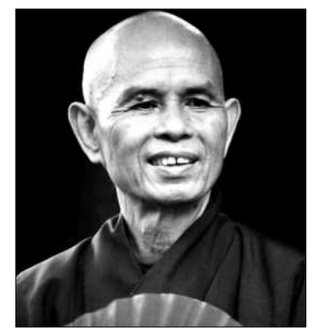
"우리 모두는 사랑과 이해가 필요하지만, 종종 사랑과 욕망을 혼동하기도 한다. 사랑과 욕망은 서로 다르다."

세계적인 정신적 스승인 틱낫한 스님〈사진〉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우며, 사랑과 욕망을 혼동하여 생기는 고통과 외로움의 근원을 파헤쳐 전한다. 그는 마음챙김(mindfulness)을 통해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 감각적 욕망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길을 안내한다. 단순하게 섹스에 집착하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에 얽매이지 않는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야기 한다.

인간의 원초적 욕망은 생존이다. 사람들은 죽음과 고독이 두려워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자손을 남기고 싶어 한다. 우리가 섹스와 생식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다. 섹스를 통해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깊이 발전시킬 수도 있다. 당연히 섹스를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섹스를 사랑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진실한 사랑에 반드시 섹스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섹스 없이 완전한 사랑을 나누는 것도 가능하고, 사랑 없는 섹스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구경〉 중에 사랑에 대한 경문을 모은 '애욕망경' 에서는 애욕에 사로잡히면 물고기가 스스로 그물에 걸려들어 자유를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한다. 오로지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랑을 하다보면 거기에 얽매여 자유를 잃고 고통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삶의 의욕을 얻는다. 그러나 사랑이 감각과 육체에 지배당하면 걱정과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돈과 권력도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무언가 또 다른 갈망이 생겨나고, 고통과 허탈함이 반복되며 삶은 삭막해진다.

기쁨과 환희의 사랑이 얼룩져 삶을 피폐하게 한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주말마다 파티를 찾아다니며 수많은 사람들과 하룻밤을 보내더라도 자신의 안식처는 결코 찾을 수 없다. 내면에 공허한 감정만 쌓여갈 뿐이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치유와 위로를 받거나 따듯함, 친밀감을 진정으로 느끼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이다. 육체적 사랑에 발이 묶이면 상대가 떠나거나 배신할까봐 전전긍긍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이다. 하지만 종종 사랑과 욕망, 필요와 두려움이 뒤섞여 구분하기 어렵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필요해요." 등의 가사가 담긴 사랑노래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이런 가사들은 사랑과 욕망이 같은 것이며, 사랑의 대상이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암시한다.

나무를 옮겨 다니는 원숭이처럼 우리는 애욕의 감옥을 옮겨 다니고 있는지 모른다. 잘 지내던 배우자나 연인이 어느 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린다. 그리고 이내 짝을 바꿔버린다. 애욕을 좇아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실한 사랑을 통한 행복이란 범접하기 어려운 이상향처럼 멀어 보인다.

"진실한 사랑에 반드시 섹스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틱낫한 스님은 사랑하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진실한 사랑은 자애, 연민, 기쁨, 평온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우선 자신에 대한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파트너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이 충족될 때 누구나 사랑으로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애욕의 갈망에서 벗어나 고통과 외로움을 치유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진실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틱낫한 스님은 책에서 마음챙김과 집중, 지혜 얻기를 통해 애욕의 갈망을 이겨내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집착에 눈이 멀면 곧 애욕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더해져 연못을 가득 채우듯이 불안감은 하루하루 더해갈 것이다." –애욕망경, 3절

책은 '진실한 사랑' 에 필요한 것들을 9개의 장에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다. 각 장의 시작마다 '애욕망경' 의 구절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경구들만 읽어도 진실한 사랑에 대해 깊이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박재완 기자



‘근원으로 회귀’ 제시한 불교 인문학의 지침

불교로 읽는 古典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자기 자신을 믿는 것

“중생으로 하여금 의심을 제거하고/ 삿된 집착을 버리게 하여/ 대승의 바른 믿음을 일으켜/ 부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마명) “이 논을 지은 대의는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위의 반은 아래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함임을 밝혀냈고, 아래의 반은 위로는 불도를 넓히기 위함을 나타냈다. 중생의 길이 생사의 바다에 빠져 열반의 언덕에 나아가지 못하는 까닭은 다만 의심과 사집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화중생의 요체는 의심을 제거하고 사집을 버리게 하는 것이다.” 〈원효〉

인문(人文)이란 말에는 인간의 무늬와 고전의 향기가 배어 있다. 즉 ‘인’에는 인간이 벼려온 가치와 의미가 담겨 있고, ‘문’에는 인간이 쌓아온 고전의 냄새가 쌓여 있다. 때문에 인문의 정신을 담고 있는 고전은 ‘어제의 옛 책’이 아니라 ‘내일의 새 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고전 속에서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 사이의 거리의 최소화’와 ‘살아있는 것들의 생물학적 조건의 동일성’이라는 ‘보편성’ 내지 ‘동시대성’을 발견한다. 이 동시대성 내지 보편성은 셀 수 없는 시간과 헬 수 없는 공간의 비판적 칼날을 견디고 살아남은 고전의 주요 특성이다.

원효(617~686)는 인간학과 고전학을 아우른 인문학자였다. 그의 〈대승기신론소〉는 마명의 〈대승기신론〉을 독창적 해석으로 풀어낸 인문고전이다. 원효에게는 이 저술 외에도 약 7종의 〈대승기신론〉 주석서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현재는 청년작인 〈대승기신론별기〉와 만년작인 〈대승기신론소〉 두 종만이 남아 있다. 원효는 이 저작을 통해 ‘일심’(一心) 혹은 ‘진여’(眞如) 또는 ‘대승’(大乘)의 철학을 입론하였다. 때문에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인 〈대승기신론〉을 원용하여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심의 지형도로 펼쳐낸 그의 〈대승기신론소〉는 인문학의 수다라라고 할 수 있다.

〈대승기신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세계의 우주만물인 존재(法)와 그 일체를 머물게 하는 궁극존재가 모두 진여(眞如)의 발현이자 표현이라고 논한다. 여기서 대승은 ‘진여’ 즉 ‘참으로 그러함’을 가리킨다. 진여는 ‘존재의 바탕’ 또는 ‘존재의 기반’이란 뜻에서 ‘법체’(法體)라 일컫고, 그 법체를 ‘진여’ 혹은 ‘진여법신’이라 부른다. 해서 이 논서는 진여 자체(體)와 진여의 드러난 모습(相)과 진여의 현상적 활동(用)을 밝히고 있다.

마명은 대승 즉 진여의 체상용(體相用)을 밝힘으로써 진여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 이 책을 지어 ‘중생심이 곧 진여심’이며 ‘진여를 믿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임을 역설한다.

버릴 것도 세울 것도 없이…

우리는 삶 속에서 버릴 것과 세울 것을 구분하면서 살아간다. 버릴 것이란 쓸모없는 것을 가리키고, 세울 것이란 버려둘 수 없는 것을 일컫는다. 우리가 눈앞의 현상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쓸모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버려둘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상적 삶에서는 버릴 것은 버리고, 세울 것은 세우며 이루어진다. 반면 우리의 본질적 삶에서는 버릴 것도 세울 것 없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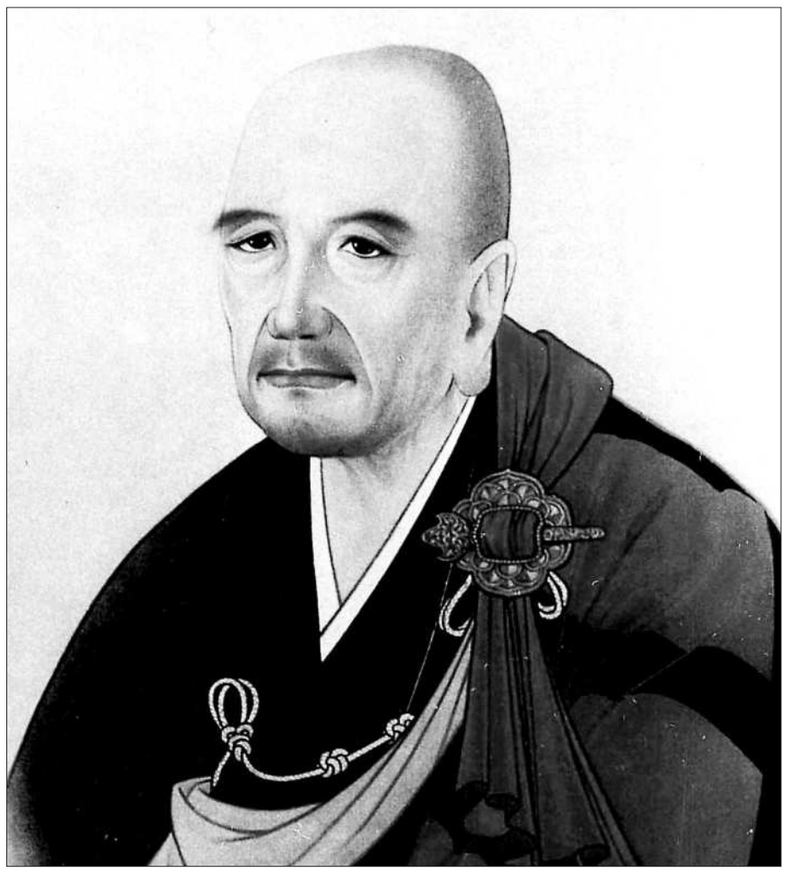
원효는 〈대승기신론소〉에서 대승의 다른 이름인 진여에 대해 “버릴 것이 없음을 ‘진’(眞)이라 하고, 세울 것이 없음을 ‘여’(如)라고 한다”며 “이 진여의 체는 버릴 만한 것이 없으니 일체법이 모두 다 참되기 때문이며, 세울 만한 것도 없으니 모든 법이 다같이 같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그는 “그러니 일체법은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진여(眞如)라고 부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는 버릴 것이 없음과 세울 것이 없음에 대해 섬세하게 분석해 내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반야중관의 공관(空觀)과 유가 유식의 가관(假觀)을 기신 진여의 화관(和觀)으로 통섭해 가고 있다.

원효는 “〈대승기신론〉은 세우지 아니함이 없으며, 깨뜨리지 않음이 없다. 반면 용수의 〈중관론〉과 〈십이문론〉 등처럼 모든 집착을 두루 깨뜨리며 또한 깨뜨린 것도 깨뜨려 깨뜨리는 것과 깨뜨려진 것을 도리어 허용하지 않아 ‘보내기만 하고 두루 미치지 못하는 담론’(往而不 論)과 무착의 〈유가론〉과 〈섭대승론〉 등처럼 깊고 얕은 이론들을 온통 다 세워서 법문을 판별하면서 스스로 세운 법을 두루 버리지 아니하여 ‘주기만 하고 빼앗지 못하는 담론’(與而不奪論)이라고 평가하면서 공관과 가관을 넘어 자신의 화관(和觀)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그는 〈대승기신론〉은 슬기롭기도 하고 어질기도 하며, 그윽하기도 하고 넓기도 하여, 세우지 아니함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떨쳐내고, 깨뜨리지 아니함이 없으면서도 도리어 허용하고 있다. ‘도리어 허용한다는 것’(還許者)은 저 가는 자가 가는 것이 다하여 두루 세움(往極而 立)을 나타내며, ‘스스로 떨쳐낸다는 것’(自遣者)은 이 주는 자가 ‘다 주면서 (두루) 빼앗음’(窮與而奪)을 밝히니, 이것은 모든 논서의 조종이며 모든 쟁론을 평정시키는 주체라고 일컫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효는 “〈대승기신론〉은 펼쳐보면 ‘헬 수 없고 가이 없는 뜻’(無量無邊之義)으로 종지를 삼고, 합쳐 보면 이문 일심의 법(二門一心之法)으로 요체를 삼고 있다”며 “이문의 안은 온갖 뜻을 받아들이되 어지럽지 아니하며, 가없는 뜻은 일심과 같아서 혼융되어 있다”고 한 뒤 “그러므로 펼침과 합침이 자재하며(開合自在), 세움과 버림이 걸림이 없어서(立破無碍), 펼쳐도 번잡하지 않고, 합쳐도 협착하지 않으며, 세워도 얻음이 없고, 버려도 잃음이 없다”며 이것이 ‘마명(馬鳴)의 묘술이며 이 논의 종체’이라고 했다.



원효 스님의 대표 진영. 원효 스님은 〈대승기신론소〉 등 독창적 해석이 담긴 주석서를 발간했다. 스님은 당대의 뛰어난 수행자이자 인문학자였다.

대승불교 입론서이자 당대 사상 집결된 고전
“중생은 一心의 존재” … 붓다로 나아가는 길 제시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인 우사인 볼트는 100미터 달리기에서 9.58초를 기록했다. 그는 인간의 한계치를 극복해 가며 1초에 10미터를 넘게 달리는 위업을 달성하였다. 당시 스타트 라인에 선 주자들은 심판의 총소리에 맞추어 출발선을 넘었다. 총알이 실선을 그리며 나아가는 것처럼 모든 주자들의 마음 또한 끊어짐이 없는 실선을 그리며 나아갔다. 그 결과 우사인 볼트 등은 대기록을 세웠다. 만일 주자들의 마음이 끊어짐이 있는 점선을 그리며 나아갔다면 그 사이로 갖은 번뇌가 밀려들 대기록의 달성은 어려웠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실선과 같이 지속되는 해맑고 깨끗한 마음(心眞如門)과 점선과 같이 단절되는 물들고 때묻은 마음(心生滅門)이 공존한다.

〈대승기신론〉에서 ‘물들고 때묻은 마음’이란 찰라생 찰라멸 하는 마음의 틈새로 침투한 번뇌로 오염된 마음이다. 반면 ‘해맑고 깨끗한 마음’이란 불생불멸의 갑옷을 입고 생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그런데 원효는 심층 마음과 표층 의식의 배대에 있어 독자적 시각을 보여준다. 그는 심진여문과 심생멸문, 그리고 심생멸문 내의 각(覺)과 불각(不覺)의 구도 아래 본각(本覺)과 시각(始覺)과 불각(不覺)의 관계를 통해 중생이 부처가 되는 길을 제시하였다.

원효는 “시각이 불각에 대해 있고, 불각이 본각에 대해 있으며, 본각은 시각에 대해 있다. 서로 상대해 있기에 무자성이다. 무자성은 각이 있지 않은 것이다. 각이 있지 않은 것은 서로 상대해 있기 때문이다. 서로 상대해서 성립하므로 각이 없는 것이 아니다. 각이 없지 않으므로 각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자성이 있어서 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원효는 무명(無明)으로 념(念)이 일어나는 ‘무명업상’과 마음이 자신을 찾아 바라보려고 하여 능히 보는 모습인 ‘능견상’ 그리고 그 눈에 보여지게 하는 경계로서 나타난 모습인 ‘경계상’의 삼세상(三細相)과 나를 개별 자아로 잘못하는 모습인 ‘지상’과 잘못된 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인 ‘상속상’, 유근신의 나는 자신과 자신 밖의 세계를 자와 타, 주와 객으로 이원화해서 집착하는 ‘집취상’과 이러한 분별에 사용된 언어에 매인 모습인 ‘계명자상’, 의식의 분별 집착에 따라 업을 짓는 모습인 ‘기업상’과 그 업에 따라 고통의 보를 받는 모습인 ‘업계고상’의 육추상의 구도 아래 망념의 생주이멸(生住異滅)을 논한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분별사식)과 의(말나식과 아뢰야식)의 작용, 다시 그것을 상응염(執, 不斷, 分別智)과 불상응염(現色, 能見心, 根本業)으로 논하고 있다.

〈대승기신론〉은 진여와 무명의 구도에 입각하여 심층 마음과 표층 의식 사이의 관계를 염법훈습(染法薰習)과 정법훈습(淨法薰習)훈습의 이중 구조로 보여주고 있다. 염법훈습은 본래 청정무구한 진여가 무명에 의해 가려짐으로써 망심인 업식이 작동하면서 허망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반면 달리 정법훈습은 오염된 현상세계에 매인 채 살아가는 중생의 망심 안에 바탕으로 남아 있는 진여성이 중생으로 하여금 집착과 분별을 버리고 청정한 마음 바탕 즉 진여 자신에게로 되불러 들이는 과정이다. 원효는 6추상의 잘못된 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속상을 의식의 이상(異相)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은 경계상과 능견상을 아뢰야식의 주상(住相)으로 간주하는 법장과 다른 지점이다.

삿된 집착의 제거와 발심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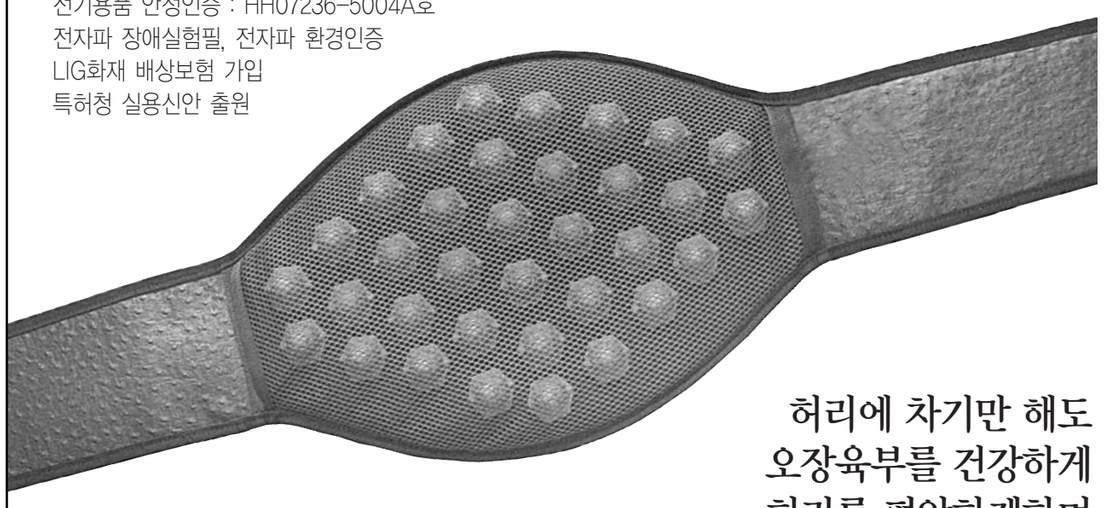
불각은 진여라는 존재 즉 진여법이 하나임을 모르는 근본불각과 이 불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불각인 지말불각으로 이루어진다. 원효는 이 근본무명에 의해 일어나는 지말불각의 3세상과 그 경계상에 의해 생겨나는 6추상을 각 의식에 배대해 보여준다. 그는 “이 중 앞의 세 가지 상은 미세하여 아뢰야식의 지위에 있고, 뒤의 여섯 가지 추상은 나머지 칠식이다. 다만 저 근본무명에 대비하면 모두 근본무명으로 인해 일으켜진 지말이기에 통틀어 지말불각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대승기신론〉에 의하면 아뢰야식에 의해 형성된 경계상을 인연으로 하여 마음 표층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상은 아는 상인 지상(智相)이다. 원효는 이 지상을 말나식의 작용으로 보아 “육추상 중의 처음 하나의 상은 제7식이다”고 했다. 이것은 아뢰야식이 그려낸 경계상의 바탕 위에 가장 먼저 작동하는 식이 바로 주관의식 혹은 자아의식인 제7말나식이기 때문이다.

〈대승기신론〉의 귀경게처럼 “대승의 바른 믿음을 일으켜/ 부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려면 “중생으로 하여금/ 의심을 제거하고 삿된 집착을 버리게 해야” 만 한다. 삿된 집착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발심하여 수행해야만 한다. 일체의 삿된 집착은 개별 실체로서 대승을 처음 배우는 이가 일으키는 ‘내가 있다는 견해’(我見) 즉 아집(我執)에서 비롯된다. 여기에는 ‘인간에게 내가 있다는 견해’(人我見)와 ‘세계에 내가 있다는 견해’(法我見) 즉 법집(法執)이 있다. 인아견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공(空)에 대한 잘못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하고, 유(有)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승이 일으키는 법아견 즉 일체법이 각기 체성이 있다는 계탁을 떨쳐 내기 위해서는 오음법은 자성이 나지 않는 것이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열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시한 뒤에 여러 부처가 증득한 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보살이 어떻게 발심(信成就 · 解 · 行 · 證)하고 성불하기로 결정된 근기(正定聚)에 들지 못한 중생에 의거해 어떻게 신심을 수행(施 · 戒 · 忍 · 進 · 止 · 觀門)해 나아가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다. 나아가 그 이익을 들어 수행을 권장하고 있다.

이처럼 〈대승기신론〉을 풀어낸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는 현상 세계를 형성하는 중생의 생멸심 안에 불생불멸의 진여심 즉 여래 법신이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여래법신 안에서 중생은 모두 일심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존재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따라서 〈대승기신론소〉는 중생이 지니고 있는 일심 즉 진여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밝혀낸 인문학의 수트라요 바이블이다. 원효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한 영원한 대자유인’ 즉 붓다로 나아가는 길을 가장 잘 드러낸 인문학자였다. 우리가 〈대승기신론소〉를 읽는 이유 또한 ‘일심의 근원인 붓다로 돌아감’ 즉 ‘하나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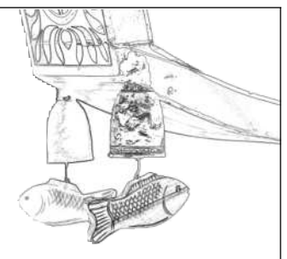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작은 선행이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하찮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떨어져 큰 항아리를 가득 채우듯
작은 선행이 쌓여 큰 공덕을 이루리라.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대웅전 불사 원만 성취 발원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688-662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 천년고찰)
010-7139-1798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54)244-9995
010-3677-3845 보성 합장

명리학(사주철학)개인지도
1. 경력 30년 '병제철학원'
2. 명리학 + 성명학
3. 완전기초부터 자격증 합격까지 완전숙지
4. 주 1-2회, 3~4개월 완성 (주/야 평일, 휴일 선택)
010-3695-1626
서울 가락시장역 3번출구 3분거리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양구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인연있는 분께 미륵불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010-4630-8005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북한산성 내)
02)387-3216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시설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시설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기도스님 모십니다
(경남)
010-4591-1139

특수한 기도법
●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
●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8776-122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5)574-2882
010-3501-0225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강력한 삶의 변화 원네스 치유명상
1 가족세우기 지도자 과정 (참관가능)
* 매주 토,일요일 치유명상
* 강력한 변화와 힐링(부부,자녀,조상,진로)
2 원네스 깨어남 코스
* 삶의 비밀을 경험하고 성공,번영,건강,성장
* 매주 화, 수요일 저녁 7시 무료명상
네이버카페 - 원네스 행복한 가족세우기
신청문의 :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문자)

대 작 불 사 권 선 문
큰인연으로 약사여래불 조성불사에 설판이나 시주하여 주시는 분에게 큰스님 글씨와 그림 30여점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으로 몸과 마음에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무량복덕을 받으시고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연락처 : 054)853-3855 만허 합장
※ 기도중에 전화가 안될 때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산승이 연락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622-24-0064-982 (예금주 : 유명혜)
농 협 729-02-117074 (예금주 : 유명혜)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요일 저녁반, 목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5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다음카페 "연꽃마을 복지관" 검색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914번지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영 가 찾는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반드시 발복 흥성하는 혈맥생기터
혈맥터는 천년지기이자 보궁이다!
물은 강길따라 흘러 바다를 살리고,
산은 맥길따라 혈을 맺어 사람들을 구하는 도다!
▸ 명당은 땅속 혈맥 갖춰야 진터 (태극상)
▸ 맥과혈 짚어내는 비술득통 (백점백혈)
▸ 도승들이 펼친 산수혈맥주술법 전수
▸ 명당필수 조건 최초 입증 (정통풍수)
▸ 흥망성쇠좌우 터 길흉감정
▸ 명당혈맥터 확보 인연점지
▸ 절암자, 주택산장, 사업장, 묘지, 가족납골수목장 등
명당은 반드시 3-5년 안에 발복되어야 진혈이다
※ 태극서린 혈맥터에서 인물나고, 부자되고, 집안이 흥성합니다.
지장법사 휴담
010-4600-7399

정체 평형 일침요법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일침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 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축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병,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결과 유효율이 99%이고 현효율이 96.25% 치유율이 86% 그 가운데 일침치유율이 15%임.
(38개의 혈로 248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모집인원 : 약간명 수시모집
[공인] -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평형 침구보건사 자격취득 가능 (중급, 고급)
- NGO. 밝은사회 국제봉사단 회원가입 가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민간 단체임)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약 사 여 래 도 량
보 금 정 사 주지 혜문 합장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 2리 1195번지
054)954-7744 / 010-3535-9797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33년 역사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으로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365 친절상담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전무 이강욱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010-7314-2522
대출기간 기본5년(연기가능) / 근저당설정비 면제
제주도 포함 전국, 단체명의, 종단사찰 모두 가능 !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접수일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가 격 : 1회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선업은 마치 부모와 같아 좋은 곳으로 데 리고 가고 악업은 마치 큰 원수와 같아 지옥 이나 아귀, 축생 등의 세계로 끌고 간다."

- 정법염처경 -

사 찰 (급) 안 내

아름다운 토굴 안내
- 위치 : 구례군 지리산 온천부근
- 총부지 : 1150평, 도로 : 8m접
- 건물 : 42평, 남향
- 지하 200m 암반수 : 일일 취수량 500톤
- 금액 : 평당 20만원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바다전망 좋은 사찰
- 대지 2700평 • 건물 : 4동 (법당50평,요사채40평,산신각,주지실)
- 텃밭 : 300평
- 가액 : 6억 8천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통 051-863-6622 (대표: 김의순)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만덕동, 다산타워 505호)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양도하실때는이박사에게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인연을 찾아드립니다.(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사찰부지, 매매임대전문중개사

010-7347-1010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대표:이규철)
010-3426-9393 이박사공인중개사(대표: 이현종)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50(성일아파트 상가 108호)
■ 전국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서구 서대신동 32평(4층)
-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
- 시설비800만원, 절충가
- 포교원 가능
- 지하철 2분거리(동대신역)

010-7314-873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동해시내 중심지역
- 상가 2층 55평
- 언제든지 법회 가능
- 보증금 : 2천만원 월66만원 시설비 별도 상담 요망
- 스님건강상 급 안내

010-9018-6656
033)533-9947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주시 불국사 부근 도로접하고 있음, 4층 건물
- 깨끗하고 시설완벽 구조 잘 되어 있음
- 대지 80평, 건평145평
- 주차장 시설 완벽
- 가액 : 5억 5천(융자 2억 7천)

010-8507-979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2층 건물
- 1층 요사채 35평, 2층 대법당 30평, 산신각 5평
- 법당, 산신각, 인등, 산신불, 관음불, 지장불, 영단 후불탱화(입체금탱화)
- 황토방 2, 주방 15평
- 조경시설, 과실수, 텃밭, 우물, 용궁
- 즉시법회가능, 집기 일절
- 가액 : 상담 후 절충

010-4561-2149

사찰(급) 안내
- 위치 : 포항시 북구 양덕동
- 법당 28평, 단청완료
- 산신각 2평, 단청완료
- 요사채 약 80평,(방6개) 심야전기
- 창고 3개, 주차 50대이상
- 가액 : 7억 5천(조정가능)
- 평수 : 대지, 개인도로 673평, 답 100평

010-6409-8114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북구
- 약 90평
- 시설완벽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010-8606-7918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진동 방향
- 대지 : 160평, 건평 : 80평 1-2층 양옥기와집
- 법당 20평 아미타삼존불, 주차장완비
- 요사채 40평, 공양간 20평 별도 다용도실 30평
- 창원 마산시내 5분거리
- 가액 : 3억4천(융자1억 6천포함)

010-8846-709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4동
- 3층건물에 3층
- 도심포교원 최적지,버스정류장앞
- 평수 40평(마당포함)
- 시설비, 보증금 합 2,000만원 월 50만원 (절충가능)

010-5496-6417

옛 절터 부지 안내
- 위치: 전북 익산시 왕궁면
- 약 14,400㎡
- 가격 : 4억(절충가능)

010-9303-7556

사찰(급) 안내
- 위치 : 포항시 북구 양덕동
- 법당 28평, 단청완료
- 산신각 2평, 단청완료
- 요사채 약 80평,(방6개) 심야전기
- 창고 3개, 주차 50대이상
- 가액 : 7억 5천(조정가능)
- 평수 : 대지, 개인도로 673평, 답 100평

010-6409-8114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북구
- 약 90평
- 시설완벽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010-8606-7918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진동 방향
- 대지 : 160평, 건평 : 80평 1-2층 양옥기와집
- 법당 20평 아미타삼존불, 주차장완비
- 요사채 40평, 공양간 20평 별도 다용도실 30평
- 창원 마산시내 5분거리
- 가액 : 3억4천(융자1억 6천포함)

010-8846-709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4동
- 3층건물에 3층
- 도심포교원 최적지,버스정류장앞
- 평수 40평(마당포함)
- 시설비, 보증금 합 2,000만원 월 50만원 (절충가능)

010-5496-6417

옛 절터 부지 안내
- 위치: 전북 익산시 왕궁면
- 약 14,400㎡
- 가격 : 4억(절충가능)

010-9303-7556

서울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법당 59㎡ 스님실 62㎡
- 요사채67㎡,토지139㎡
- 등산로입구 한적한사찰
- 주차장있으며 전망좋음
- 양도가액 : 6억6천만원

(원주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포 교 원 안 내
- 위치:부산시 서구 충무동 교차로 주변
- 약 82평(법당, 산신당, 방3개, 공양간1)
- 5층 건물중 2층
- 지하철(자갈치역) 5분거리, 버스정류소 2-3분거리
- 보증금 2천만원 월66만원 시설비 2천9백만원(절충가능)

010-3869-679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부안 내변산 입구
- 종교용지 130평
- 수목장 용지 10,000평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 종각, 미륵석불, 저수지, 경관수려(소나무 숲)
- 가 액 : 2억 5천만원

010-6478-156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오거리
- 대지 64평. 건물 2층 슬라부주택 3층 조립식 건물
- 요사채 : 1층 약 30평, 2층 약19평, 법당 3층 약 16평
- 삼존불 3자, 2.5자<동불> 약사여래불 목불 3.5자
- 가액 : 2억 6천 5백만원<융자 1억 포함>
- 주변 아파트 및 준상가지역

010-3409-4502

절 터 안 내
- 위치: 경북 문경소재 임야
- 낮은 구릉 3만평
- 3천여평 절터흔적 산재
- 약초재배 최적지
- 진입로 구비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345-966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상가 2층
- 약 60평
- 시설환경 특 A급
- 가액: 보증금 1천 월 45만원
- 시설비 2천 500만원 (조절 불가)

010-5173-3355

도심속 토굴 수행처(급) 안내
- 위치 :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 주택빌24평 4층건물에 4층
- 방3,내부전체 리모델 깨끗
- 교통편리, 여주 이천간 111번 버스
- 참선도량 적합, 아주 싼집
- 빠른입주, 융자 무, 선착순
- 가액 : 4천2백만원

주인직통 010-9787-5505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구포동
- 평수: 대지 47평, 3층 슬라브
- 3층법당 1, 2층 요사채
- 삼존불, 신중, 산신, 칠성탱화, 소불
- 가액: 1억 7천 5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에 위치
- 지하철에서 도보로 5분거리
- 시설일체 완비(몸만오시면 됨)
- 평수 : 43평
- 보증금 4,000만원, 월2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0-8505-0101

도심속의 암자(급)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역, 나들목, 터미널 10분이내
- 한옥 40평 (문중부지 200평)
- 550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상담후 조절가능)
- 몸만 오셔서 법회가능
- 상담 스님 최상

010-6651-6663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청도면
- 2층 건물
- 1층 요사채
- 2층 법당
- 산세 수려함
- 가액 : 3억 5천만원

010-9058-535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울산근교 약 15키로)
- 부지 2,182제곱미터(약660평)
- 마을과 저수지 푸른산 대나무숲 지대가 높으며 아름다운곳
-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하며 마당이 크고 약 25년된 암자로 건물은 수행하기에 불편함이 없으며 단청이 되어있음
- 건물은 보시하고 땅값만 받고 양도함 (주변시세 백만원)
- 가액 : 3억 5천만원(은행 1억 안고 2억 5천만원)

010-6536-350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 신축사찰
- 대지 250평
- 신축법당(20평) 2011년 준공 신축요사채(34평) 2012년 준공
- 대전에서 15분거리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486-1275

포교원안내
- 위치 : 속초시 중앙시장 입구
- 4층 건물에 3층 약 90평
- 아미타, 관세음, 대세지, 지장
- 시설A급 완벽함
- (1)전세 보증금 2,000만원, 월세 무 시설비 3,000만원(절충가능) (2)보증금 1천만원에 월 25만원도 가능

010-3750-5424
02)826-6409

행운의 땅 양도
저는 인연이 다해 복 받을 분에게돌려드립니다
- 위치: 경기도 가평군
- 2,000평
- 가액 : 6억
- 본인직접

010-5414-2643
010-5234-3288

암 자 안 내
- 위치 : 가야산 국립공원 850고지
- 수행도량 토굴
- 대지 516㎡ • 건평 138㎡
- 실 사용평수 약 500평
- 심야전기, 편의시설완비 비품일체포함, 대출 4000만원
- 가액: 1억 5천만원

010-4542-0902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옥천읍에서 5분거리, 대전에서 10분거리
- 대지 505평, 1층 요사채40평, 2층 와가법당 20평(단청필)
- 옥외건물 20평(창고), 화장실, 샤워실, 창고 6평
- 수려한 금잔디 및 조경, 6층석탑 주변 팬션 및 별장있음
- 대전 영동간 4차선 국도 300M 접
- 가액 : 4억3천(조정가)

011-645-136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 중구(대전역 도보 8분)
- 3층 건물의 3층., 45평
- 법당1, 방2, 화장실2, 주방, 보일러 냉온풍기, 세탁기, 냉장고
- 햇살이 좋은 양택, 살림도 가능
- 보증금 5백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650만원

010-7450-9763

포교원 안내
- 위치 : 마산 3층 건물에 3층 (160평)
- 포교원 10년 한 자리
- 삼존불,후불탱화,법당, 종무소, 방4,
- 화장실(실내 1, 실외 2), 법당과 모든 방에는 난방필름 되어 있음
- 시설완비,불사소임관계 부득이 양도
- 옥상사용 주차장완비 일체민원없고 조용함
- 보증금 : 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협의
- 바로법회가능

055)221-5182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문정역에서 3분거리(고속도로 5분내 접근)
- 4층 건물중 2층, 45평, 방3
- 삼존불, 닷집, 원목탁자, 108불, 모실단, 영단, 에어컨 2대 등 주차장 외(법회가능)
- 보증금 : 2천만원, 월 130만원 시설비 : 7백만원(절충가능)

전화 : 02)7620-108번
031)5410-106번

포교원(급)안내
- 울산 남구 신정 시장 입구
- 2층건물에 2층 평수 45평
- 법당 20평
- 공양간, 큰방, 작은방, 옷방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전세도 가능
- 시설비 상담후 결정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9767-411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IC부근
- 법당 삼존불 , 약사여래기도도량
- 완벽한 법당 시설
- 즉시법회 가능, 몸만 오시면 됨
- 텃밭, 주차장 시설완비
- 가액: 1억 (절충 가능)

010-2575-987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감만동
- 2층 건물 중 2층 (30평)
- 주택밀집지역
- 삼존불, 신중전, 칠성전
- 산신전은 별도로 모심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010-2503-389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문화재 사찰
- 목조, 단청 대웅전,삼성각,종각
- 요사채 2 외 건물
- 기도하기 좋은 사찰
- 대지 1,000㎡ , 건물 290㎡
- 가액 : 15억

(주)금호부동산
051)861-2233 (이찬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풍각면 근처
- 대지 337평, 건평 한옥 56평, 집뒤 대(竹)밭, 잔디밭 정원조성 양호, 대구까지 30분
- 가액 : 2억 5천만원 → 1억 7천만원 (급)안내 <대출 5천5백 있음>
-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0-7417-456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감만동
- 2층 건물 중 2층 (30평)
- 주택밀집지역
- 삼존불, 신중전, 칠성전
- 산신전은 별도로 모심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010-2503-3899

사찰(급) 안내
- 위치 : 포항시 북구 양덕동
- 법당 28평, 단청완료
- 산신각 2평, 단청완료
- 요사채 약 80평,(방6개) 심야전기
- 창고 3개, 주차 50대이상
- 가액 : 7억 5천(조정가능)
- 평수 : 대지, 개인도로 673평, 답 100평

010-6409-8114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북구
- 약 90평
- 시설완벽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010-8606-791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함안 IC 5분거리
- 지장전, 산신각, 노천지장보살, 요사채3동, 방10개
- 토지 : 6필지 약 1450평 (종교 414평, 대지 355평, 전 359평, 답536평)
- 노인복지시설, 연수원, 선원, 기타개발최적지
- 가액 : 10억

010-9465-1915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시장 인천교대에서 1번 출구 도보로 5분거리
- 평수 30평, 4층중 3층, 법당 작은방, 거실 집기일체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2271-5811

건 물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 특징 : 절, 요양원 최고의 조건
- 부지면적 : 2,300㎡ (700)
- 건물면적 : 7,000㎡ (2,000)
- 가액 : 58억

(주)금호부동산
051)861-2233 (이찬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신림동 3층 건물중 2층
- 석가모니, 관음, 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봉안 지장보살 원불 297분
- 법당 외 방1, 주방1, 화장실1
- 약 30평 도심속의 포교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시설비 3,300만원 월 77만원 시설비(답사후 절충가능)

011-309-353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불로동
- 2층 28평
- 주차장시설 완비
- 가액: 3천보증금, 월1백만원 또는 1천5백만원, 월 40만원

010-4534-6697

포교원 안내
- 위치 : 사찰도 할 수 있고, 발효식품과 사찰음식점도 할 수 있는 경관이 아름다운 한옥집 3채가 있습니다
- 가액 : 전세(상담후 결정)

010-3521-6920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대지 : 130평
- 법당 : 35평
- 요사 : 40평
- 가액 : 4억 8천
- 위치 : 한강이남
- 부지 : 4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20억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대표: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종교용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가액 : 8억 8천만원

010-3858-8335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상사
- 법당 10평, 친견실 10평
- 공양간 16평(옥상사용)
- 주차용이, 아파트밀집지역
- 보증금 천오백 월세 90만 시설비 2,500만원 법당내닫집
- 집기모두 새물건임

010-7236-1808

사찰 터 안내
- 좌청룡 우백호가 살아있는 소쿠리터
- 갓바위뒷편 영천신령면 1066번지의 5필지
- 논 약3천평 내외 성토작업 완료 가옥 60평
- 마당앞에 계곡물이 흐르고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가액 : 4억 5천만원

010-6253-3107
(철호스님 합장)

청 평 한 옥
- 대지 199평
- 건평 30평
- 방 3, 욕실 2, 거실, 주방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가액: 2억7 천 5백만원

010-9411-5302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함안 IC 5분거리
- 지장전, 산신각, 노천지장보살, 요사채3동, 방10개
- 토지 : 6필지 약 1450평 (종교 414평, 대지 355평, 전 359평, 답536평)
- 노인복지시설, 연수원, 선원, 기타개발최적지
- 가액 : 10억

010-9465-1915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 시장입구
- 실평수 85평, 법당 약 30평, 큰방2, 종무실, 다용도실, 욕실(게르마늄 황토 찜질방). 주방(시설 1년 안됨)
- 보증금 1,000만원 130만원 시설비 3,300만원 협의절충
- 몸만오시면 됨, 부재시 문자 주세요

010-3606 - 244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IC부근
- 법당 삼존불 , 약사여래기도도량
- 완벽한 법당 시설
- 즉시법회 가능, 몸만 오시면 됨
- 텃밭, 주차장 시설완비
- 가액: 1억 (절충 가능)

010-2575-987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감만동
- 2층 건물 중 2층 (30평)
- 주택밀집지역
- 삼존불, 신중전, 칠성전
- 산신전은 별도로 모심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010-2503-3899

포교원 안내
- 위치 : 사찰도 할 수 있고, 발효식품과 사찰음식점도 할 수 있는 경관이 아름다운 한옥집 3채가 있습니다
- 가액 : 전세(상담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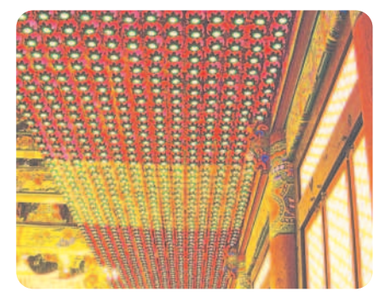
010-3521-6920

연등시공전문기업
BORYEON 보련기획

보련기획은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품전선과 LED전구를
사용하여 직접 시공 관리합니다.

전문가 직접 연등시공





H·P 010-9446-1862
전 화 031)526-2201
031)526-2202

현존수업

마이클 브라운 (저널리스트 · 남아프리카공화국)

〈4〉 의식적으로 응답 선택하기

있는 그대로 고통 통찰하면서 답을 기다려라

통찰 수신하기

현존 수업 2주차에서 당신은 세상에 나타난 당신의 무의식적 기억의 반영을 알아차리도록 권유받았다. 그것은 현존이 보낸 '메신저'를 알아차리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자신의 경험을 관찰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 메신저를 알아차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그것은 당신을 흥분시키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건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 메신저들을 죽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와 함께 당신은 '메신저에 지나치게 집착하지도 않는다.' 당신은 당신을 흥분시키는 경험이 지닌 가치는 '메시지 자체'에 있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온 자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

자신의 통합되지 못한 감정적 누적물의 반영에 대해 마치 그것이 실재하는 것인 양 자동반응하는 것은 인지기능장애이자 일종의 정신착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메신저를 그저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실제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이때도 행동을 취하기 전에 건전한 상식에 물어보아 단지 자신의 기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동은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기억할 것은, 현존 수업이라는 이 작업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잘 느끼게' 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앞으로 당신이 겪게 될 만남들에서 그것의 느낌의 측면에 아무런 조건 없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의 경험에 의식적으로 응답하겠노라는 의도에 늘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모든 행동은 반응적이 아니라 응답적인 것이 될 것이다.

어떤 만남이라도 그 느낌의 측면을 존중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에 진실해지고자 한다면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는 모든 당사자에게 이로울 것이다. 여기서 기본원칙은, 상식을 활용하면서 내면의 앎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이 갖는 진정한 의도를 아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다.

이번 3주차에 당신은 이 과정을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이다. 메신저에 걸려들지 않은 당신은 이제 그 메신저가 가지고 온 메시지를 받아들일 차례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바로 '통찰'이다.

처음에는 이것이 도전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껏 당신은 감정의 방아쇠가 당겨질 때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루 두 번 의식적으로 호흡을 연결시키며 현 순간의 자각을 꾸준히 쌓고 있는 당신은 이제 자각 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현 순간의 자각을 통해 당신은 경험 속에서 당신을 감정적으로 흥분시키는 모든 일이, 실은 현존이 당신의 무의식적 감정적 누적물을 거울처럼 비춰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현존은 세상에 대한 당신의 경험을 겨울효과로 바꾸어, 당신의 무의식적 감정적 누적물을 비춰 보여준다. 당신은 외부에 반영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당신 내면에 깊이 억압된 감정적 누적물이 물리적 차원에 드리운 그림자라는 사실을 거울효과를 통해 알게 된다. 메신저가 가지고 온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요구된다.

① 메신저에서 주의를 거둔다.(여기서 메신저란 당신의 감정 방아쇠를 잡아당기는 사람의 행동이나 물리적 사건을 말한다).

② 당신을 자동반응하게 만드는 스토리에서 한발 물러난다.(다시 말해 정신적 사건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한다).

③ 감정의 방아쇠가 당겨져서 동요한 결과로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주의를 집중한다(감정적 사건).

당신은 감정의 방아쇠가 당겨질 때마다 아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짐으로써 메신저가 가지고 온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내 감정의 방아쇠를 잡아당기는 이 사건은 느낌과 직감의 차원에서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무언가가 느껴질' 때, 당신은 메신저가 가지고 온 메시지가 수신되었음을 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대개 당신이 불편하게 느끼는 무엇이다. 인지되는 감정 상태로서 느끼고 있는 그 에너지를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이 에너지 상태를 느끼는 것 그 자체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

느끼는 능력을 통해 당신은 내면의 원인이 있는 자리를 응시한다. 이것이 곧 통찰을 일깨우는 행위다. 당신의 몸은 공명(resonating)을 통해 메시지를 받았음을 확인한다. 다시 말해 당신의 몸은 감지할 수 있는 신체 감각으로써 그 메시지를 전한다. 이 공명은 손이 부르르 떨리거나 명치가 조여오거나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얼굴이 화끈거리는 등의 여러 가지 신체적 신호로 나타날 수 있다. 몸 안, 혹은 몸 주위에서 느껴지는 공명을 접했다면 당신은 메시지를 받은 것이다.

메시지를 받았으면 당신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다. 다음단계는 더 큰 통찰에 다가가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메신저에 의해 방아쇠가 당겨진 이 특정한 감정 반응이 당신에게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자신의 누적된 감정 상태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이러한 통찰에 다가가기 위해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지금 직감으로 느껴지는 이 공명과 동일한 경험을 한 것은 최근의 언제였나?"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당신은 현재의 마련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불편한 감정이 일어났던 과거의 경험을 들추어낼 수 있다.

이전에 당신의 방아쇠를 잡아당겼던 그 사건의 물리적 세부사항에 정신적으로 걸려들지 않고, 또 그것에 관해 자신과 마음속의 대화에 빠지지도 않는 가운데 동일한 성질의 감정, 곧 동일한 불편한 공명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라. 그리고는 직감을 이용하여 과거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라. 다음과 같이 물어보라.

"이 상황 이전에 또 언제 이것과 동일한 불편한 공명을 느꼈었지?"

과거에 당신의 감정 방아쇠를 잡아당긴 사건을 하나씩 들추어낼 때 마다 당신은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진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아동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느낌의 패턴을 조금씩 파헤쳐낼 수 있다.

깨어남의 첫 단계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미래에 일어나리라고 상상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에서 행동의 힌트를 구하는 것이다.

과거의 유령이나 미래의 환영으로부터 현재의 공명을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반영이나 투사와 진짜 사건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당신이 지금 '메신저'에 휘말리는 대신 그들이 가져온 '메시지'에 다가가는 데 집중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감정의 방아쇠가 당겨질 때마다 바깥을 향해 주의를 투사하지 말고 자기 내면을 향해 다음 질문들을 차례로 던지라. 이를 통해 당신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적 행동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 심오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이 겪게 될 만남들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모든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응답하게 돼

고통 · 불편 고치려 하지 말고
가능한 깊이 들여다보고 주의 기울이면
느낌의 변화 알아차릴 수 있어

① "내 감정의 방아쇠를 당기고 있는 이 사건은 직감의 차원에서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직감을 통해 불편한 느낌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

② "지금 직감으로 느껴지는 이 공명과 동일한 경험을 한 것은 최근의 언제였나?"

③ "이 상황 이전에 또 언제 이와 동일한 불편한 공명을 느꼈었지?" 원인에 도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진다.

직감으로 느끼는 울림을 통해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 자각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러한 반복적 패턴의 통합을 시작할 수 없다. 느낌과 직감을 통해 이것을 경험적으로 자각하면 모든 것이 변화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과거에는 무의식적이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물론 한동안은 학습된 드라마가 충동적으로 연출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당신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동안'(혹은 그 직후에) 자신이 자동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결국 당신은 멀리서 다가오는 메신저를 알아차리고, 그것에 자동반응하기 '전에' 스스로 멈출 줄을 알게 된다.

여기서 머리로 생각하거나 분석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모든 정신적 추구를 피하라. 질문에 대한 답은 울림의 느낌으로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다. 또한 그 답은 가장 적당한 시간, 가장 상서로운 시간에 당신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당신의 주의를 과거로 향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당신의 과거는 더 이상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무엇으로 남아 있지 않다. 당신의 과거는 더 이상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무엇으로 남아 있지 않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버렸다. 그렇지만 통합되지 못한 당신의 감정적 누적물은 감정체 '안에' 각인된 에너지 상태로서 계속 남아 있다. 본질적으로 당신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지금' 당신 안에 들어 있다. 당신이 필요로 할 때 그것이 의식표면에 떠오를 것을 믿으라.

조건 없이 느끼면 통합된다

'시간 속에서 사는' 결과, 당신은 고통과 불편을 경험한다. 고통과 불편은 당신의 감정체 안의 에너지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에너지 상태에는 당신이 신체적, 감정적으로 불편하게 느끼는, 통합되지 못한 누적된 감정도 포함된다. 정신적으로는 그것이 불쾌하고 비 생산적이고 당신에게 해가 되고 부자연스러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

고통과 불편을 통합하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한 과정이다.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고통이나 불편과 '함께하기를' 택하라. 이것은 당신이 '불편과 함께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의도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불편한 느낌을 어떤 식으로도 고치거나 바꾸거나 이해하거나 심상화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 느낌과 직감으로써 그것을 가능한 한 깊이 들여다보라. 누적된 감정이 '필요에 따라' 응답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라는 것은 당신이 불편과 '함께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모두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다.

고통과 불편을 통합하는 능력을 발휘하려면 특별한 것이 한 가지 요구되는데, 그것은 바로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저 그것을 느끼는 것이다. 자신의 고통과 불편에 조건 없는 주의를 기울여보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느낌이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도 알아차릴 수 있다.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말고 그저 그 변화를 지켜보라. 그 변화가 당신에게 유리한 것이기를, 혹은 당신이 느끼고 있는 불편을 당장 끝내주기를 기대하지 말라. 어떤 결과가 오든 그것에 마음을 열고 있으라. 어떤 특정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도'를 품지 말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당신은 살아온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 고통과 불편을 무시하고 억눌러왔다. 그것을 물리쳐야 할 적으로 대했다. 사실 그것은 감정의 통합을 돕기 위해서 찾아온 메신저인데 말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이 고통과 불편에 의식적으로 다가가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 부모에게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라면 부모가 갑자기 팔을 벌려 사랑으로 안아준다고 해서 금세 마음이 누그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아이는 처음에는 망설인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면서 서둘러서는 안 된다.

이 글은 마이클 브라운이 쓴 〈현존수업〉(정신세계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2014년 홍익범패 강의 안내

본 대학에서는 스님들을 위주로 전통범패를 강의하고 소질이 있는 분을 발굴하여 범패단원으로 인정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관심있는 분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비스님을 꿈꾸고 계신분도 기초부터 공부하여 훌륭하신 큰스님을 인연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강 의 내 용

◆ 2014년 3월 3일 오후 3시 개강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5시
▷바라춤, 나비춤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5시
▷목탁, 요령, 태징, 북, 기초, 조석예불, 사시예불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49재, 천도재, 방생, 시다림, 구병시식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일반인 기초예절법, 난 누구인가,
▷붓다를 찾아서, 천수경 해석,
▷불자님 같이하는 예불법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3동 1873-83 효성빌딩 4층 (연수로 190 효성빌딩 4층 법지사)

전화 : ☎051)852-0108 법지사 / 010-4466-3575 (강주 지효스님)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병원진단시 우울증 환자를 포함하여 환청,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효과가 증명된 프로그램으로서 우울증 환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보호자와 상담 후 프로그램 참가 가능》

프로그램 내용

내 용	일 정
법화경 일일 독성	매일
묘법연화경 정근	매일
108배 수행	매일
일주일 점검	전문 상담을 통한 마음치유

교 육 기 간
2014년 3월 9일 – 5월 25일 (12주)

장 소
기청사 : 양산 통도사에서 5분거리

참 가 비 12주 코스 15만원

참가인원 20명 제한
(인원 미달시 다음 프로그램으로 연기)

상 담 자 혜공 스님
(진행상담사 문의처 010-4616-5438)

대한불교영산종 기청사 (법화도량)

영가 찾는법 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무료공개강좌 : 3월 7일(금)
오후 2시(2 ~ 3시간 강의)
◆ 대 상 : – 명리 왕초보반
– 영가반(철학관, 포교원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보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결혼을 못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신경성,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공부가 안되는 학생
◆ 교육과정 : 기초반 – 3개월 완성(월수강료 15만원)
영가반 – 2 ~ 3개월 완성(월수강료 3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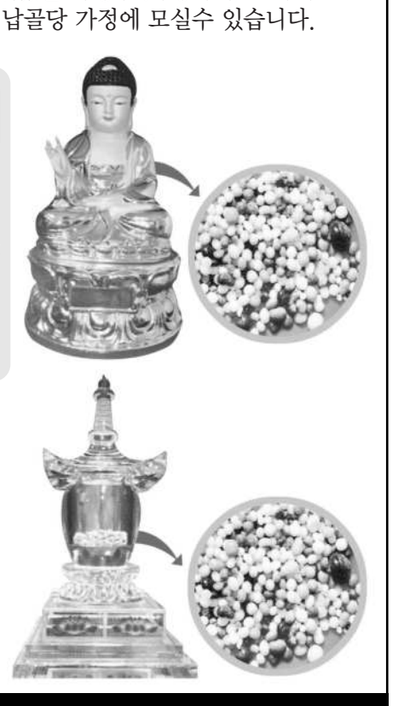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전화문의 바람.

백 암 역 리 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자성주(自性珠)를 아시나요?

화장(火葬)된 고인의 유골에 어떠한 광물질이나 화학 물질을 섞지않고 섭씨 2,300℃ 이상의 고온에서 **순수한 고인의 유골만**을 생성하는 **자성주(자성사리)** 입니다.
아름답고 품위있는 자성주(자성사리)로 하여 종교시설 및 납골당 가정에 모실수 있습니다.

자성주 결정체의 특징
자성주로 모시면 잘못된 묘자리 또는 화장된 유골의 부패와 해충으로 인한 후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어 좋은 인연을 이루어줍니다.



NAVER 자 성 주 네이버 검색

납골당 분양 및 지사지국 모집

(주) 보은의 사랑
010-3679-1080,1899-1042

갤러리 색즉시공



조고각하

조고각하(照顧脚下)입니다.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두루두루 살핍니다.

오늘은
나의 마음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맑은 햇살은
살짝이
옆에 있어 줍니다.

맑은 햇살은
살짝이
사라집니다.

그런 걸림 없는 성품에
합장합니다.

글 · 작품=희상 스님

자신을 알아야 세상을 얻는다

Buddha in Comic & Ani
⑤ 윤태호의 '미생'



윤태호의 〈미생〉 마지막권 표지.

누군가 그랬다. 바둑은 인생과 같다고. 가로 세로 19로의 바둑판에서 흑과 백은 서로 번갈아 착수하며 이내 경계선에서 한판 싸움을 벌인다. 그 과정에서 흑과 백의 돌은 삶과 죽음이 발생하며, 한수 한수마다 수많은 격언과 교훈이 파생된다.

한국 만화가 중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윤태호가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연재한 〈미생〉은 제목만 보면 바둑 만화로 보인다. '미생'은 완성되지 못함을 의미하는 바둑용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품을 살펴보면 자본주의의 첨병에 있는 치열한 영업 현장의 이야기이자 한 젊은이의 취업 일기이다.

〈미생〉은 11살에 한국기원 연구생으로 들어가 프로기사만을 목표로 살아가던 청년 장그래가 입단에 실패하고 '회사'라는 전혀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면서 시작된다. '원 인터내셔널'이라는 종합상사에 인턴으로 입사한 장그래는 특유의 통찰력과 인간미와 배려심 깊은 상사들의 도움으로 드라마와 같은 입사 P·T 시험을 거쳐 계약직이지만 정식 사원증을 목에 건다. 그리고 2년 동안 계약직 사원으로서의 분투기가 총 145회 안에서 펼쳐진다.

〈미생〉의 매력 중 하나는 바둑 대국의 기보를 제시하고 그에 맞춰 이야기를 구성하고 보여준다는 것이다. 작가가 제시한 기보는 한국 바둑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끌어올린 대국이었던 제1회 응씨배 결승 제5국(최종전)으로 한국 조훈현 9단과 중국 네웨이핑 9단이 대결을 펼쳤다. 여기서 조훈현은 유력 우승 후보인 네웨이핑을 145수 만에 물리쳤고, 첫 세계 챔피언이 된다.

작가가 굳이 조훈현의 세계 데뷔 대국의 기보를 매회 머리에 올린 이유는 분명하다. 아무런 스펙을 가지지 못한 변방의 장그래가 대기업이라는 전쟁터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스스로 발전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실제 작가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동'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현대의 직장생활에 문제의식을 느꼈고, 월급과 승진만이 아닌 직장생활 자체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이 만화를 시작했다.

실제 〈미생〉의 장그래는 매일 하루를 자신만의 기보를 정리하며 마무리한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안에 펼쳐졌던 이야기들을 '수담(手談, 바둑의 다른 말)'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주인공 장그래는 자신이 주어진 바둑판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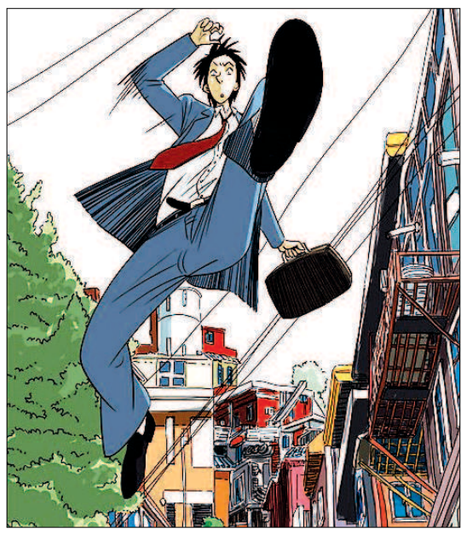
바둑 대국 · 에피소드 조화 '눈길'

바둑 한 수 한 수가 화두며 공안

'眞我' 찾는 사람에게 기회 온다

장그래의 성찰과 발전 과정은 이전 '시마 시리즈'와 같은 비즈니스 장르 계열의 만화와는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시마 시리즈'의 주인공 시마 코사쿠가 온갖 처세술로 라이벌을 물리치고 사원에서 사장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미생〉의 장그래와 조연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인지 모든 일에 매진하는 그의 모습은 화두에 몰두하고 있는 참선 수행자와 비슷하다. 바른 안목(正眼)을 갖고 끊임없이 올바르게 노력해야(正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일에 성공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바둑을 선(禪)에 비유한 이유도 여기 있다. 바른 안목을 지니지 않고서는 좋은 수를 내놓기도 어렵거니와 넘어서기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미생〉의 한 장면들. 바둑 기사를 꿈꿨던 청년이 종합상사에 인턴으로 취직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특히 매회 머리에 있는 대국 기보와 에피소드의 절묘한 조화는 작품의 다른 볼거리다.

그래서 바둑에는 '위기십결(圍棋十訣)'이라는 격언도 존재한다. '위기십결'을 정리하면, △욕탐불승(欲貪不勝 욕심을 내면 진다) △입계의완(入界宜緩 적의 세계에 들어갈 때에는 누그러뜨려야 한다) △공피고아(攻彼顧我 적을 공격하기 전에 자기의 결함을 돌아보라) △기자쟁선(棄子爭先 폐석을 버리고 선수를 장악하라) △사소취대(捨小就大 작은 이익을 버리고 큰 이익 취하라) △봉위수기(逢危須棄 달아나도 효과가 없으면 버려라) △신물경속(愼勿輕速 경솔하고 졸속하게 움직이지 말라) △동수상응(動須相應 적의 완급을 보아 응수하라) △피강자보(彼强自保 적이 강할 때는 오로지 자신의 보전에 힘쓰라) △세고취화(勢孤取和 고립된 형세에서는 화평책을 써라) 등 이다.

선에 1700공안이 있듯이 바둑은 한수 한수가 모두 화두고 공안이다. 사실 바둑뿐이겠는가. 우리네 인생사 순간 순간이 모두 수행이고 화두이기 때문에 늘 바른 안목을 가지고 정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바둑에서는 두 집을 만들어야 '완생(完生)'이라 말한다. 두 집을 만들기 전은 모두 '미생(未生)' 즉, 아직 완전히 살지 못한 말, 상대로부터 공격받을 여지가 있는 말이다. 오늘도 우리는 자신만의 인생 바둑을 둔다. 수 많은 인연과 사건들이 세상과 나의 바둑판에 채워진다. 나의 바둑이 '완생'으로 끝이 날지 '미생'으로 마무리될 지는 매일 매일 던지는 나의 돌이 결정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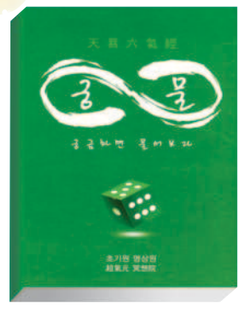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물어 알게됩니다



天易六氣經
궁물
궁금하면 물어보라

◆천역육기경은 우주삼원에서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답답한 삶의 돌파구!

운기 · 사업 · 소원 · 결혼 · 매매 · 대인 · 실물 · 가출인 · 출산 · 소송 · 여행 · 취직 · 시험 · 이사 · 질병 · 지능 (직업)

이들을 알고자 하시면 육기주를 두 번 굴리세요.
문제에 답이 풀립니다!
누구나 쉽게 궁물할 수 있습니다.

"책" 궁물은 영원한 동반서!!!

주문처 : 1588-5654. 010-3743-9943
정가 10만원 / 계좌 : 농협 195-02-157774 박규화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며, 주문시 즉시 배송하여 드립니다.



대행 스님

모두가 공덕이 되게끔 공양을 올리고 마음을 내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마음이라는 자체가 바로 우주 삼라만상을 빚어내기도 하고 삼라만상의 모든 일체 만물만생을 다 마음으로 그려내기도 하고 마음으로 짓기도 합니다. 이 마음은 정말 어디다 비할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한생각을 잘 굴려서 내면은 일체 모든 게 생기고 구해지지만 한 생각을 쉬게 되면 모든 고에서 벗어나게 된다, 모두가 소멸된다 이 소립니다. 이 고가 다 소멸된다는 그 자체가 한생각에 어떻게 그렇게 다 소멸될 수 있을까 하지만, 믿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생사에 관한 건도 모든 것이 다 놔집니다. 죽고 사는 것도 다 놓게 되면은 고에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죽는다 산다 하는 것은 이거 말짱 거짓말입니다. 이건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름이 흩어졌다 모였다 하듯이 그와 같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뭐 별건가요? 이 무명을 쓰고 있다가 무명이 벗겨지면 다른 무명을 쓰고 다시 나오고. 그래서 마음의 발전을 해야만이 지금 산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발전 즉, 정신계의 발전을 해야만이 물질계의 발전도 할 수 있거니와 또는 여러 가지로 중용을 할 수 있어서 자동적으로 자유자재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한 그릇 먹어도 그것을 해서 올리는 자는 누구며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해서 올리는 자도 자기요 받는 자도 자깁니다. 그런데 내면으로 볼 때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먹는 것입니다. 몸속에도 수십억 마리의 생명들이 모두 들어 있음으로써 네가 먹었다 내가 먹었다 누가 먹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양 한 그릇을 내가 먹는다 하더라도 생각을 잘하면 공양이 되고 생각을 잘못하면 밥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하면 네가 먹었다 내가 먹었다 할 것이 아니니 그래서 공양입니다. 그래 공양을 올리게 되면 공덕을 입는다 이런 소립니다. 공양이 아니고 개별적인 밥이라면 공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공양이라는 것이 내 한 몸체의 조직체 즉, 모든 생명들이 다 같이 한 그릇을 놓고 다 같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다 같이 먹으니까 다 같이 마음을 내서 모두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서로서로 작용을 하고 작용을 해주고 이러면서 사니까 공동체고, 그러니까 바로 공덕이 되죠. 공덕이 된다는 뜻도 그렇지만 공양을 올린다 하는 것도 그렇고 공향(共香)을 피운다 하는 것도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공양을 올리면은 이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전부, 만물만생이 전체가 다 한 그릇을 놓고 내부나 외부 전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덕이 될 수밖에요. 나를 떠나서 상대로 믿는다면, 상대를 믿는다면 공덕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공양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마음의 향이 될 수가 없고요. 공향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공덕이 되게끔 공양을 올리고 공향을 피우고 공덕이 되게끔 행을 하고 마음을 내라 이거죠. 바깥으로 믿고 바깥으로 끄달리고 바깥으로 아무리 공양을 많이 올리고 시주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공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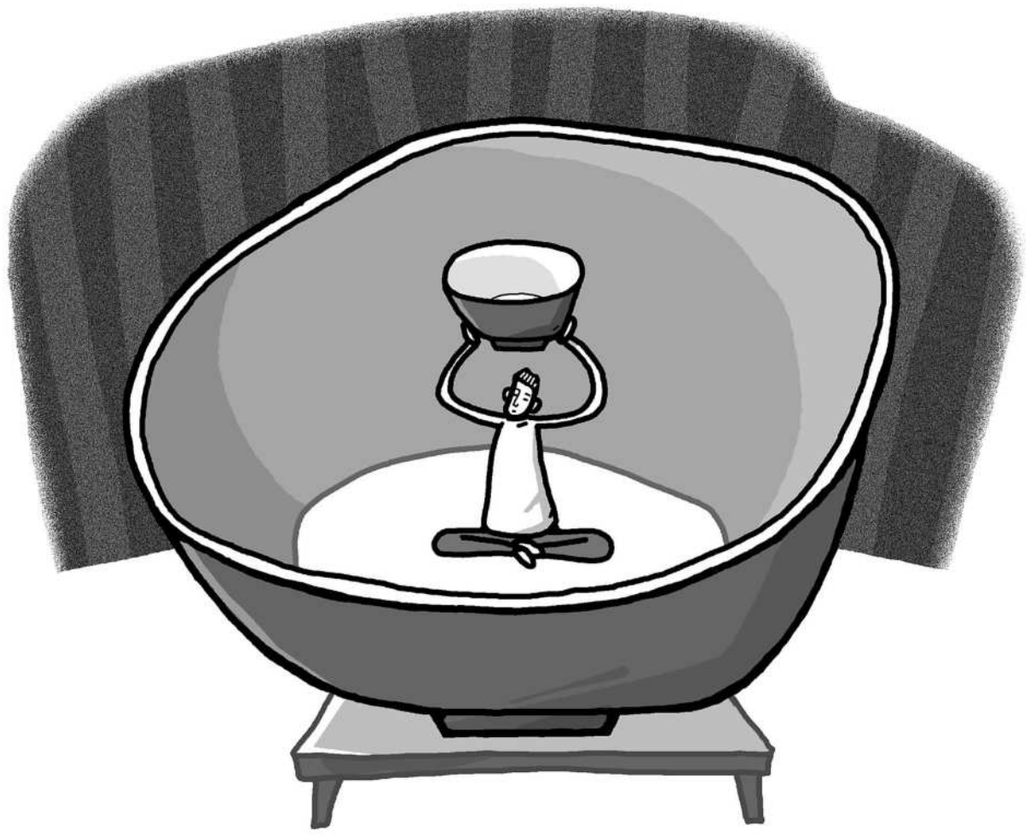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무엇이든지 조직체로서 운영을 하는 거지 조직체가 아니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회사도 조직체가 돼 있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조직체라는 이름 없이도 말입니다.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총무가 있고 상무가 있고 이렇게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고 그렇듯이 우리가 공양한 그릇을 올린다 하면 내가 먹는다 하더라도 공양입니다. '이거는 내가 먹으니까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단 한 숟가락을 먹더라도 공양을 올리십시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도 공양이요, 둘이 아닌 바로 공생(共生)·공용(共用)·공체(共體)·공식화(共食化) 하고 돌아가는 이 전체가 바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든, 한 그릇을 바치든 공양은 공양입니다. 더불어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제사 지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은 내가 먹는 밥 한 그릇 가지고도 천도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내가 먹는 밥 한 그릇 가지고도 지극하게 공양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를 알면은 아주 멋진, 자유권을 갖고 행할 때 그게 공덕이죠, 모두가. 내가 먹는다고 해서 공양이 아니고 남을 준다고 그래서 공양이고, 이게 아닙니다.

향을 하나 피워 놓는다 하더라도 마음은 체가 없어서 이 우주 삼라만상을 한 찰나에 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 물질적인 향이 아니라 마음의 향을 피우시라 이겁니다. 잘 생각해서 공덕이 되게끔 마음을 잘 내는 것이 바로 마음의 향입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예배를 올릴 때 계향(戒香)·정향(定香)·혜향(慧香)·해탈향(解脫香)·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 합니다. 이 다섯 가지 향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공양을 올려야죠? 누구나가 입산제자나 유발제자나 다 마찬가집니다. 이 모두가 다 공양이 되게끔 하고, 공덕이 되게끔 하고, 내가 공동체로서 어느 거 하나 빼놓지 않고 구할 수 있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이 계셨다고 볼 수 있겠죠. 첫째, 계향(戒香)이니, 부처님의 법에 누가 되지 않게 하며, 은사에게 누가 되지 않게 하며 자기한테 누가 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일체 물질계와 내면세계와 모두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거를,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려라. 자기 탓으로 돌리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체 모두 화목을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악과 나쁜 것을 녹이고 선행을 그대로 여여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이 계향 아닌 계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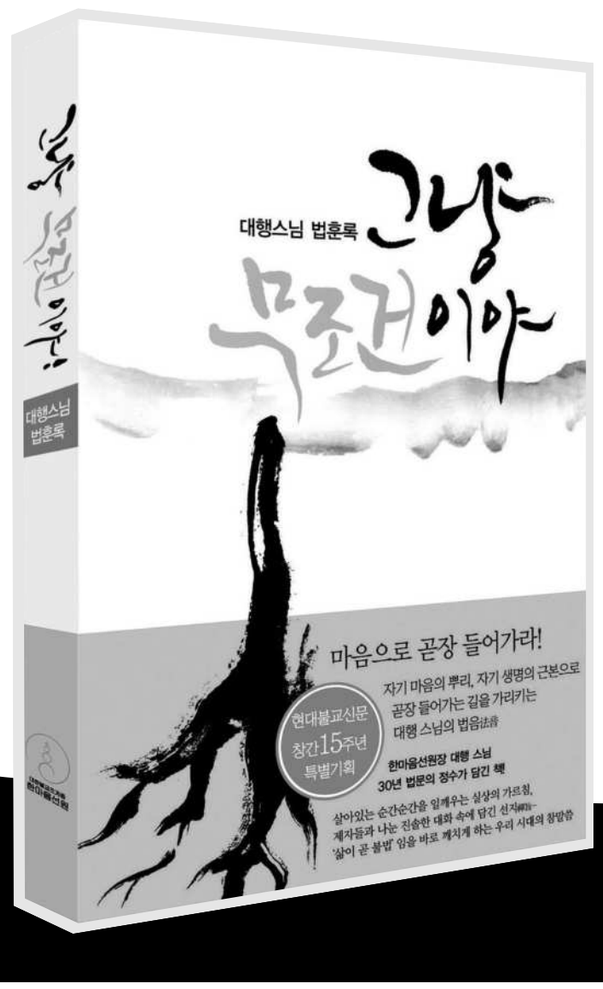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둘째, 정향(定香)이니 이 내면에 굳건히 내 주인공을 세우고, 나쁘고 악한 거든지 그런 게 다가올 때는 마음을 한생각 잘 내서 굴려서 거기 놓고, 자기가 선행을 했든 좋은 일이 생겼든 모두를 감사하게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 굴려놓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 이름해서 정향입니다.

셋째, 혜향(慧香)이니 지혜로운 마음으로서 물질계와 내면계를 둘 아니게 관찰하는 것이, 그리고 체험하는 도리가 바로 혜향입니다. 그것도 이름해서 혜향이지, 혜향 아닌 혜향입니다.

넷째, 해탈향(解脫香)이니 만물만생이 무명에 묶여 있음을 푸는 것이, 또는 풀며 여여하게 다스려나가는 것이 해탈향입니다. 그것도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믿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죽고 사는 것도 다 놔지게 된다

☞ 29면에서 계속

이름해서 해탈향이지, 해탈향 아닌 해탈향이죠.

다섯째,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이니 우주 삼라만상, 일체 만물만생을 느끼고 다스림이 항상 밝아서 걸림없이 구족함을 해탈지견향 아닌 해탈지견향이라고 합니다. 이 모두 내가 여직껏 말씀해드린 것은 그 다섯 가지 향이 바로 오음(五陰)의 직결심이 한 일심으로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해 주기 위해섭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것만 닥친다고 이것만 해서는 닥쳐오는 모든 걸 타파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는 의사 노릇만 하지 다른 건 못합니다. 공업계에는 공업계만 하지 이걸 못하고 참, 천문학계는 천문학계만 하지 이걸 못하고. 이렇게 못하는 게 많으면 다가오는 걸 어떻게 타파를 합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어떠한 거든지, 윤회성이든지 영계성이든지 업보성이든지 또는 세균성이든지 어떠한 고뇌가 닥친다 하더라도 모든 거를 하나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하나도 없이 다 타파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져야만 이 여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부처님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급한 게 마음 씀씀이와 행동, 말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마음을 잘 써야 행동을 잘하고 행동을 잘해야 말을 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여여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은 화가 나는 대로 즉시 화가 안 나게 하는 것도 그 자리요, 화가 나게 하는 것도 그 자리니 그 자리에다가 즉시 돌려서 화가 안 나게끔 하는 도리를 아셔야 할 겁니다. 그 화나는 것 하나로 표현을 했지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기를 '구정물을 아주 새물로 해서 먹고 써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 어느 법당엘 가든지 부처님이 계시니까, 칠성도 계시고 신중도 계시고 또는 독성도 계시고 산신도 있고 신장도 있고 모두 이렇게 해놓고 한 것은 옛날에 얘기해드렸죠? 스님네들을 탄압을 할 때에 먹고 살 수가 없어서, 한 군데다가만 갖다 놓으면은 도저히 공부할 수가 없어서 여러 군데다가 놔야만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놨던 거라고요. 그런데 그 유래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흘러 내려오고 있죠.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절간을 운영을 못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해놓는다고요.

한 가정에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가 이렇게 식구를 이끌어나가고 있는데 때로는 이게 되고 때로는 저게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형이 되고 사위가 되고 아들이 되고, 이렇게 되듯이 부처님 마음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중생이요, 중생이 즉 마음이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동일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생각에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지울 수도 있고 또는 일으켜서 생산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모두 그려서 생산한 것이 바로 우리 모든 만물만생입니다.

또 법당에 가서 초를 켜놓고 향을 피워놓고 공양을 올리고 그러는데 공양을 공양답게 올립니까, 어디? 공양을 올릴 때 내 공양, 네 공양 하고 올립니다. 내거 네거, 촛불도 네거 내거, 향도 네거 내거 하고 싸움들을 하고 올립니다. 그전에 보니까 말입니다. 아는 사람은 빙그레 웃고 옆에서 구경을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죽을 둥 살 둥 내가 켜야 되고 누가 치우면은 그냥 벌벌 떨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꽃은 바로 사람의 마음, 아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꽃공양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은 나뿐이 아니라 전체 조직이 돼 있는 우주 만상이 전체가 조직이 돼서 전달을 하고 돌아가는데 찰나찰나 돌아가는데 어떻게 내 아름다움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꽃공양' 합니다. 꽃공양!

그런데 향공양은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향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생각을 잘해서 내는 것이 우주 법계에 바로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향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의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죠. 필연적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더욱더 향을 피우죠, 마음의 양식이라고.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발전도 할 수가 없고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석인데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향을 켤 줄 알아야 하고, 그래야 공향이 되지 마음의 향을 못 켠다면 공향이 아니라 그냥 물질적인 향입니다.

그리고 공미 공양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한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 만물만생이 전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면서 찰나찰나 전달을 하고 돌아가면서 서로 공생 공용을 하고 있고 공식화하고 있는데 공양 한 그릇을 올렸다고 그게 어떤 귀신이 혼자 받습니까, 어떤 부처가 혼자 받습니까? 또 자기가 혼자 먹습니까? 혼자 먹어도 혼자 먹은 사이가 없죠. 내 몸뚱이 속에도 생명체가 수십억 개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양이죠. 허허허. 네가 더 먹었느니 덜 먹었느니 할 것도 없이 공양이죠.

그러니까 한 그릇을 올려도 공양으로 올려라. 공향으로 피워라. 꽃공양을 할 때도 아름답게, 마음의 아름다움을 말한 거니까 아름다운 마음으로 올려라. 그게 방편으로서 표시지 물질적인 우리 이 몸뚱이도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허망한 그 물질의 움죽거림이 움죽거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이 허망한 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기에 청수를 올리는 건 사람의 마음, 지혜를 말합니다. 바로 지혜의 공양입니다.

> 우리가 한생각을 잘 굴려서 내면은
> 일체 모든 게 생기고 구해지고
> 한생각을 쉬게 되면
> 모든 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이 몸뚱이 자체가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을 먹든 꽃을 받든 일을 하든 어떤 걸 하든,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하고 상점을 하고 어떤 걸 연구를 해서 물건을 만든다 하더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지, 넓게 생각을 해보면은 전체 공동으로 먹고 공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바로 공행이 되는 거고 공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공양' 할 수도 없으니깐 일하는 데는 그게 공덕이 된다 이 소립니다.

우리가 공덕이 된다는 것은, 안팎에 공덕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공덕을 짓게끔 공양을 해야, 즉 말하자면은 모든 일거일동이 공동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시라고 해서 공생、공용、공체、공식화하고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만이 살았다고 하지 말고,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내가 줬다고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바로 나 아닌 내 주인공이 하고 있는데, 내 주인공이 주고 있는데, 모두가 준 것이 없어. 그쪽이 왔기 때문에 내가 줬을 거고 내가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 것이지. 모두가 그렇게 서로서로 주고받고 사는 거죠. 그게 공동체며 바로 그 도리를 알면은 공덕이 될 수가 있고 공양을 올릴 수가 있고 지혜롭게, 맑고 밝게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묘한지 내가 곰곰이 생각하기를 내가 밥을 먹건 남이 밥을 먹건, 하다못해 과자 하나를 먹더라도 이게 공양인데, 이 공양의 뜻을 어떻게 말을 해야 여러분이 잘 들을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아시겠습니까?

직접적인 이 도리를 우리가 느끼고 알아야 됩니다. 벌써 "얘, 아무개야!" 하고 아버지가 부르면, 아침에 그 아버지가 무엇을 찾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얘, 아무개야!" 부르면 벌써 '신문 가져오너라.' 이 소린 줄 알고 신문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와 같다 이겁니다. 일어나면 눈 썩썩 비비면서 보통 신문부터 찾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아는 사람은 벌써 미리 알고 "아무개야!" 부르면은 '뭐, 그걸 찾으시려니.' 하고 벌써 신문을 갖다 놔야, 벽을 치면 봇장이 울려야 해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나는 만날 마음 마음 마음! 이렇게 하는데 마음만 귀중한 게 아니라 귀중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모든 일들이 바로 마음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신기하게 또, 오늘 생각했습니다. 우리 금왕지원에 공양주가 계셨습니다. 그 공양주가 언젠가 한번은 이렇게 말을 합디다. "스님, 나는 이다음에 죽을 때도 자식들한테 가서 앓고 그렇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에서 죽자니 또 절에서 앓거나 이런다면은 스님네들에게 누가 되고 그러면 아니 됩니다. 그러니 스님, 죽을 때도 그냥그냥, 살다가 그냥 앓지 말고 그냥 금방 가게 해주십시오. 내처지가 그러니 어떡합니까?" 아, 이래요. "아이고, 그거는 당신의 마음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않소?"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엊그저께 여기 와서 얘기를 모두 벌여놓고 그러고는 가다가 그냥 쓰러져서 열반하셨답니다. 하하하.

자기가 서서 죽든지 앉아 죽든지 누워서 죽든지 자기 마음대로겠죠. 옷 벗는 것도, 내가 전에 그랬죠. 이 업을 모든 것을 녹이지 못하면, 그 애고(哀苦)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콩이 익지 못한 콩깍지와 같다. 익지 못한 콩깍지는 까도 속껍질이 찰싹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 그게 까도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야파서 질질 매고 그냥 죽네 사네 하고 온통 남을 괴롭히고 이런 거와 같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러나 콩이 잘 익은 것은 탁 건드리기만 해도 싹 그냥 콩이 나옵니다. 하하하. 그거와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건 늙었는데 뭐, 내가 이런 공부는 해 뭘 해.' 하지만 바쁘게 돌아가니까 젊어서 또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보다 외려 더 쉽게 젊어질 거니까 빨리 해야죠. 허허허. 그러니 노인네든 젊은이든 애든 어른이든 남녀를 막론해놓고 이 도리를 알아서 벗어나야만 이 우리가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애고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게을러서 말입니다. 하하하. 뭐 속가에 계신 분들은 게으르다고 할 수 없죠. 그전에 가만히 보면요, 스님네들이 그 도리를 몰라서,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는 도리를 몰라서 말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만 있는 것이 스님인 줄 알고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그냥 만들어서, 의정을 만들어가지고선 내는 거야. 만들어가지고 의정을 내려면 이게 의정이 의정이 아니죠. 스스로서 의정이 나야지 그게 진짜 의정이죠. 이런 것은 어디서 왔을까? 이 화나는 것은 어디서 왔을까? 하하하. 또는 즐겁게 생각이 나는 건 또 어디서 올까? 자기가 스스로 의정이 나야만 의정이지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아는 것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의정을 내는 건 의정이 아닙니다. 이 모두가 사람이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고, 부지런히 마음의 계발을 해서 바깥으로 뛰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참, 정신적으로도 계발을 하고, 육체적으로도 뛰면서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스님네들이나 유발승이나 모두들 여러분이나 다 같이 그 공덕의 의미를 세밀히 알고 실천을 하는데 조금도 어색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3년 3월 21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부부 간 증오범죄, 내 안의 탐욕을 줄여야



선업 스님
밝행복치유센터장

최근 부부 간 다툼이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이혼 소송 중에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남편 측 인사의 청부 살인을 요청한 충격적인 사안도 있고 이혼 소송을 냈다고 아내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대중들을 놀라게 한 일도 있다.

국내 부부폭력에 대한 현황은 '여성가족부' 에 의해 3년 마다 진행되고 있는 '가정폭력 실태조사' 를 통해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는데 최근 발표된 조사 내용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부부폭력 발생률 및 폭력유형별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년('12년 8월~'13년 7월)간 부부폭력 발생률은 45.5%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

그 중 정서와 연관된, 모욕적인 이야기와 언어적 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37.2%)' 과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는 '방임(27.3%)'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고 있다. 그리고 신체와 연관된, 손바닥으로 신체를 때린 다거나 목을 조르거나 흉기 등의 위협과 가해 등이 자행된 '신체적 폭력(7.3%)' 과 '성학대(5.4%)' , 그리고 '경제적 폭력(5.3%)' 도 꽤 높은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부부폭력은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데 여성은 상대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43.6%)와 '매사에 대한 불안, 우울' (38.5%)에서, 남성은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78.7%)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부간 폭력수위 심각해
좌절감을 배우자에게 화풀이
적개심 늦출 치유방안 필요

폭력이라는 주제는 경전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법구경〉에 보면 "그는 나를 욕하고,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굴복 시키고, 나의 것을 약탈했다."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의 경험이 피해자들에게 '적대감' 으로 사무쳐 '원한' 으로 복수하게 되는 폭력의 악순환이 언급되고 있다.

부부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병적 증상이 원인이라는 견해와 성격적 특성이라는 견해로 요약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사회 심리적 관점과 사회구조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부부폭력이 왜 흉포화되는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좌절을 경험할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공격이 드러나게 된다는 좌절 공격이론에 따르면 자신이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하거나 환경에 의해 좌절 되었을 때 그 분풀이를 배우자에게 폭력으로 행사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이론에 따르면 재정적인 문제, 실직, 질투심, 음주, 임신, 자녀문제, 사회적 지위의 차이 등이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하여 갈등이 일어나 결국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본다.

사회구조적 관점인 교환이론으로 보면 부부간의 폭력은 가족의 교환관계가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데 혼수 등이 기대보다 작아서 또는 배우자의 배경이 기대보다 못해서 그 부족분을 충족시키는 자원으로 폭력이 동원된다는 것이다. 결국 과도한 소유를 부추기는 사회와 충족하지 못한 욕망을 배우자에게 폭력으로 투사하는 미성숙 사회구성원의 합작품이 폭력 흉포화로 나타난 것이다.

부부폭력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성가족부에서도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에서의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그리고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배치와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및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참에 〈법구경〉에 언급된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린'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해소될 수 있는 치유의 방법을 찾아 피해자를 회복시키는데 힘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슴에 맺힌 원한이 상대적 약자에게 행해지는 투사형 복수의 반복을 막기 위해 예방적 교육에 온 역량을 쏟았으면 한다.

충격적 사건으로 인해 멍든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은 상상이상이라고 한다. 물리적 비용 없이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쓰는 사회적 정근(正勤)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社說

AI 생매장 살처분 다시 생각하자

죽음의 행렬은 이어지고, 살육의 연쇄고리는 끊어질 줄 모른다.

2월 25일 현재 조류독감의 예방적 살처분을 위해 565만3000마리가 인간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사람으로 치면 서울시 인구의 절반이 죽음을 당한 것이다. 그것도 산채로 묻혀서.

보다 못한 스님들이 직접 나서서 예방적 살처분의 무용(無用)과 생매장을 자행하는 원칙 없는 방역행정을 꼬집었다. 조계종 교육원이 '조류독감과 살처분' 을 주제로 2월 28일 개최한 교육 아사리 포럼에서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교육 아사리 원영스님은 "생명존중의 태도가 일체 배제된 원칙 없고 불합리한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면서 "살처분 대상이나 지역 범위를 정하는 것도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 비판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경우 AI가 발생할 경우 해당농가의 가금류만 살처분하고 나머지 3km 지역내 가금류에 대한 예찰과 방역을 강화하고 이동제한 이동금지를 할 것을 권고한다. 유럽연합도 오염지역 500m 내에서의 선택적 살처분을 통해 생명의 죽음을 최소화하고 있다.

원칙없는 행정에 죽어가는 것은 인간의 탐욕에 의해 공장식으로 사육된 가축이고, 이를 처분하는 인력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옥을 경험한다. 정말로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하다면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고 생명으로서 예를 갖춰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 돌아온 유태인 작가 프리모 레비는 수용소의 경험을 담아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을 썼다. 우리에게는 예방적 살처분이지만 가축에게 생매장 구덩이는 아우슈비츠,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할 일인지 되묻고 싶다.

종립대 국제 교류 폭넓은 성과 기대

불교계 각 대학들이 아시아 각국과 불교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다. 먼저 동국대는 중국과 일본, 대만의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스리랑카의 켈라니아대학, 페라데니아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금강대 또한 2월 12일 파키스탄 콰이드이아잠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사실 종립대학들은 불교권 국가들과 학술교류 협정을 맺어왔다. 하지만 대부분이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2012년부터 다시 진행된 종립대학들의 교류협정이 2014년에 들어서며 본격화 되고 있다.

이러한 종립대학들의 학술교류 협정은 불교 전통을 갖고 있는 아시아 각국의 대표적 대학과 대승불교 전통의 우리 대학 간의 핵심네트워크 구축을 의미한다.

대학들의 네트워크 구축은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학문의 교류는 문화의 교류를 의미하며 이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우호 관계는 정치 · 외교적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문화적 교류로 이해를 두텁게 하는 것이 더 쉽게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문화적인 공감대가 넓혀지면서 정치나 사회적 문제도 쉽게 풀려가는 모습은 과거 역사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 국빈 방문에서의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도 방문 중 만모한 싱 인도총리와 만나 문화교류 등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세계 최초의 불교대학인 날란다 대학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도 여기에 포함됐다. 불교문화를 바탕에 둔 양국의 교류는 불교를 종교가 아닌 문화로 각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종립대학들의 교류협정을 단순한 학술교류에 그치지 않고 국가 간 네트워크 확대의 계기로 삼는 안목이 필요한 때다.

발언대

출가 · 열반재일에 관심을

음력 2월은 출가일(8일)과 열반일(15일)이 있어 특별한 달이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경주에서 남녀가 이 시기 흥륜사 탑을 돌며 복을 비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신라인들도 출가열반주간을 뜻 깊게 보낸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불교는 출가 · 열반재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대한 사부대중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특별 수행 정진 주간으로



법상 스님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부처님은 계급차별과 남녀차이를 부정한 인류최초의 선각자이자 실천가다.

출가열반주간에 이 뜻을 기려 보다 많이 가진 이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이것을 다시 부족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불교라는 종교를 통한 새로운 분배구조이다. 이것은 불교의 대사회적인 역할이라는 부분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방식으로 오늘날 되살려도 충분한 의미를 가지는 행사라고 생각된다.

조계종에서는 1996년부터 이 기간을 '불교도경건주간' 으로 정하고 자비나눔의 탁발행사와 같은 대사회적인 실천노력을 기울여왔다. 각 사찰에서는 이 시기를 용맹정진주간으로 정해 특별 수행에 진력하고 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믿고 실천하려는 종교다.

출가재일에서 열반재일에 이르는 한 주간만이라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진리와 승단을 생각하는 거룩한 성행(聖行)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다양한 수행 · 법회로 관심을



법현 스님
태고종 열린선원장

부처님오신날을 비롯해 성도재일, 출가재일, 열반재일은 불교의 4대 명절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한 것은 성도에 이르기 위한 출발점이고, 성도 이후 깨달음을 완성한 것은 열반을 통해서다,

사실상 출가와 열반은 부처님 생애의 전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를 때문에 우리 수행자와 불자들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명절로 삼고 정진해야 한다.

이렇게 중요한 명절이라고 하지만 현재 한국불교의 사부대중은 잊고 사는 경향이 크다. 이는 현실의 구복만을 중시하는 세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본다.

출가를 세속에서 떠나고, 열반은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생들의 감각에 깊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다. 반면 부처님이 오신 날은 감각적으로 당장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된다.

일선 사찰에서도 불자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행 법회를 준비하고, 특히 출가재일을 맞아 범종단적인 단기출가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인다.

각기 다른 기념일 연구 필요



조준호
한국외대
남아시아연구소 연구원

부처님오신날, 즉 탄신일과 출가 · 성도 · 열반재일을 따로 보는 것은 대승불교권의 문화로 남방불교권에서는 이 4대 기념일을 웨삭데이라는 기념일로 하루에 지낸다.

이 웨삭데이는 대대적으로 이뤄지는데 그 이유는 3대 · 4대 기념일을 함께 지내기 때문이다.

이 웨삭데이이는 탄신일 행사가 가장 큰 의미를 지니지만 다른 기념일에 대한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방불교권에서는 다른 재일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는 등의 문제가 없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기념일이 각 국가마다 왜 서로 다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불기를 비롯해 서로 다른 전적에 근거한 기념일과 같은 것들을 서로 논의해 전세계 불교계가 조정해 갈 필요가 있다.

세계인의 소통과 화합을 사상적 대안으로 꼽히는 불교다. 이제는 우리 불교계부터 서로 소통해야 하지 않을까.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2014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굔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애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한마음요전 (품절)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